

구술인터뷰 개요 및 일정

본 구술인터뷰는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대구사진사와 대구사진교육사에 대한 내용으로 총 두 차례의 그룹인터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대구사진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구사진사를 여러 방면에서 오랜 기간 연구해 온 구술자들을 선별하여, 사전면담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구술인터뷰 진행사항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구술자들의 회고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구사진계의 사진단체 및 주요 작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 사항을 신문지상 논쟁과 사진학과 설립 등 한국사진사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술인터뷰는 뮤지엄한미의 최봉림 부관장과 뮤지엄한미연구소의 김소희 학예연구관이 진행을 맡았으며, 인터뷰는 약 한시간마다 촬영 장비의 배터리를 교체하며 휴식시간을 가진 후 재개되었다.

첫 번째 인터뷰는 2023년 6월 7일 오후 2시 2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뮤지엄한미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로 20여 년 교직에 몸담았고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강위원 선생과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전시와 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구사진사를 조명해온 김태욱 선생 두 분을 모시고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전개된 최계복과 구왕삼의 사진활동, 대구사우회와 대구사광회 사이의 사진논쟁, 이후 전개되는 사진교육사 그리고 사진비엔날레 설립 배경 등 대구사진사 형성과 전개를 구체적으로 회고해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인터뷰는 6월 9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진행한 첫 번째 인터뷰를 보강하면서 1960년대 전후 대구사우회와 대구사광회의 반목과 일간지상 논란 당시 사진단체의 활동, 사진전문서 출판 등 대구사진계의 전개에 대해 월산예술학원 출신이자 계명문화대학교 사진영상과 교수로 퇴임한 사진작가 장진필 선생과 대구산업정보대학 사진영상과 교수로 교육자와 작가를 병행해온 양성철 선생의 구술을 통해 들어보았다. 대구의 사진교육자였던 두 구술자는 또한 대학교 내 사진학과 신설 과정 그리고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창설 배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회고를 들려주었다. 한편으로 이번 인터뷰는 1930-40년대 대구사진계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가 부재하고 1950-60년대 주요 사진단체에서 활동했던 사진가들이 작고하여 직접적인 회고를 들을 수는 없었던 점 등으로 구술의 한계가 있었다.

전 면담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디지털 파일로 녹화했고 1대의 스틸카메라로 대담 장면을 촬영했으며, 디지털 카메라와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통해 대담을 녹음했다. 인터뷰 후에 녹취, 정리된 구술 내용 전문은 구술자들의 검토를 받았다.

일러두기

- 1 본 구술프로젝트는 뮤지엄한미연구소가 2023년 6월 7일과 6월 9일 뮤지엄한미연구소에서 개최한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대구사진사와 대구사진교육사' 그룹 인터뷰 전문을 수록한 것이며 구술자들에게 자료집 발간을 허락받았다.
- 2 구술인터뷰 내용 전문은 녹취 원문 중 독자의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술자가 표현한 원 의미를 손상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전달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된 표현 및 중복된 어구를 일부 삭제하고 비문은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구술을 그대로 문자로 옮겼을 경우 이해가 불가능한 발음과 어휘는 연구자가 수정했다.
- 3 구술 녹취록에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를 보류한 부분은 이를 밝힌 후 일부 삭제했다.
- 4 인명, 지명, 단체명, 전문용어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 모호한 내용,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각주로 처리했다.
- 5 구술 내용 중 ()는 구술자의 행동, 표정, 각종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 채록불가, 그 외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첨가한 말에 사용했으며, { }는 대화 도중의 호응 혹은 동시 발언에, []는 대화중에 생략된 말을 첨가하는 데 사용했다.
- 6 구술 내용 중 발음상의 이유로 불분명한 내용의 경우 '채록 불가'로 밝혔다.
- 7 그 외의 문장 부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 》: 전시명, 행사명, 〈 〉: 작품명, 「 」: 논문, 에세이명, 기사명, 『 』: 책, 잡지, 신문명, —: 말늘임, ...: 말줄임, “ ”: 대화 중 타인 혹은 자신의 말을 인용한 구절, ‘ ’: 대화 중 과거 자신의 생각을 인용한 구절, *: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
- 8 구술의 내용은 구술자의 주관적인 기억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역사적 사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는 다를 수 있다.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대구사진사와 대구사진교육사

제1차 구술인터뷰



일시 2023년 6월 7일(수) 오후 2시 20분 ~ 오후 5시 20분

장소 유지엄한미연구소

구술 강위원(姜衛遠, 1949~)

김태욱(金胎郁, 1969~)

면담 최봉림(유지엄한미 부관장)

구술자 약력

강위원(姜衛遠, b.1949)

1975년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및 1986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 학과를 졸업했다. 1968년 월산예술학원에 입학, 1970년 한국사진협회(현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하며 본격적으로 사진 활동을 시작했다. 1977, 1981, 1982년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1985년도 《동아미술제》 등 국내 사진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다. 이후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사진전람회》, 《대구사진대전》 등의 초대작가로서 운영위원,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사진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등 학술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백두산과 조선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천의 얼굴 만의 마음』(1990)을 시작으로 『백두산의 사계』(1995), 『중국인의 초상』(1997), 『흑룡강성의 조선족』(2005), 『조선족의 문화를 찾아서』(2008), 『두만강』(2012) 등 저서 및 사진집 18권과 학술논문 그리고 동명의 개인전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한국사진역사전》(예술의 전당, 1998), 《한국현대사진 60년전》(국립현대미술관, 2008), 《사랑하라! 대한민국》(문화역 서울284, 2015) 등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태욱(金胎郁, b.1969)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 중이다. 「대구 근대사진의 형성과 전개-사진공모전과 이론을 중심으로」(『한국학논집』, 제49집, 2012) 등의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의 의미와 재현》(동구문화체육회관, 2007), 《방천예술프로젝트-방천의 기억》(예술공간 아르토, 2009) 등의 전시에 참여하며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구상삼 탄생100주년 기념사진전」(동강사진박물관, 봉산문화회관, 2009), 《대구 근대사진의 모색》(봉산문화회관, 2010),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초대전시 《대구 사진사 시리즈 II》(대구문화예술회관, 2021)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저서로는 『대구사진사 I 인물자료집』(2001), 『대구사진사 II 인물자료집』(2007) 등 인물자료집 5권, 『최계복 사진 작품 연구 및 활동의 역사적 의의』(2022) 등이 있다.

최: 저희 연구소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먼 길 올라오신 강위원 선생님 또 김태욱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대구사광회, 대구사우회의 중요성을 인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 또 저희들이 미술관 소속 연구소이다 보니 다른 미술관 일정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도 그런 어떤 인터뷰 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개관전¹⁾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를 방문하면서 여러 주요 사진가들의 유족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김태욱 선생님도 만나고, 강위원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오히려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대구의 사진계가 한국사진계에 차지하는 그 중요성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23년인 지금이라도 대구사진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인식에 저희 연구소가 도달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사진사의 시작을 어디로 잡을까라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저희 연구소는 한국사진사의 범주를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사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진사가 일제강점기에 아마 일본인들이 경영했던 사진관에서 대구에 사진이 전파되고, 대구 사진이 시발점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진사에 대해 저희 연구소가 규정한 틀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 그 범주를 한국인으로 국한시킨다면 불가피하게 1930년대 최계복²⁾ 선생의 사진 활동을 대구사진사, 그러니까 한국 사진사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기여했던 대표사진사의 시작을, '최계복 선생에서부터 잡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계복 선생에 대한 것은 이미 단행본도 나왔고 또 여러 책자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었고, 심지어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계복 선생의 유작을 다 정리정돈 하는 입장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이런 저런 실증적인 자료도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창⁴⁾ 선생의 「대구사단 30년사」라는 글을 읽어보면, 선생의 최종학력이 '일본 동경사진전문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에서 돌아온'이라는 애매 모호한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⁵⁾ 이 '돌아온'이라는 의미가 졸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청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강: 제가 볼 때 그때 김일창 교수님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대구사진사를 썼습니다.⁶⁾ 그 당시에는 자료가 참 미비했지요. 그래서 최계복 선생님이 유학을 갔다고 하니가 '동경사진전문학교가 아니겠는가'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승언 씨의 증언, [최계복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최인진 선생님이 조사한 바는 무엇이나 하면 최계복 선생님은 교남학교를 졸업하고 미술 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일본 교토에 있는 유명화가의 문하생으로 그림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최계복 선생님은 사진가가 되는 것이 낫겠다

최: 최봉림

강: 강위원

김: 김태욱

1) 뮤지엄한미는 2022년 삼청동에서 새롭게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개관전 《한국사진사 인사이트 아웃, 1929-1982》(뮤지엄한미, 2022.12.21.-2023.4.16.)를 개최했다.

2) 최계복(崔季福, 1909-2002). 일본 교토의 영남사진기점(永納寫真機店)에서 근무한 후 귀국해 1930년대 초 대구에서 '최계복사진기점'을 운영했다. 일본인 중심의 대구사우회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인으로 구성된 대구아마추어사우회를 창립했고 《남량사진현상모집》, 《조선사진살롱》 등 다수 공모전에서 수상 회 이상 입상하면서 작가적 입지를 굳혔다. 1957년 영업사진가 중심의 한국사진작가단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196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후 개인전을 개최했다. 구체적 연보는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사진+문화 vol.6』(그래픽코리아, 2013), 16-18 참조.

3) 최계복의 유족은 2018년 최계복 사진첩 및 필름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고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최계복 사진첩의 영인본을 제작했다.

4) 김일창(金一昌, 1940-)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한국사진협회(현 한국사진작가협회), 1968년 사월회에 입회하면서 사진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1967년 프랑스 《제11회 낭트국제사진살롱》 입선을 시작으로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사진 전공으로 졸업했다.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 사진과 교수를 역임했다.

5) 김일창, 「제6장 대구사단 30년사」, 『대구예술30년사』, 대구예술3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지부, 1993), 669.

6) 김일창, 「사진전래와 대구사단의 사적고찰」(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1984).

는 판단으로 교토의 영남사진기점에 입사하여 17세부터 7년간 사진기의 사용과 촬영기법, 촬영에 대한 지식과 현상, 인화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도제관계로 습득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최: 그러면 동경사진전문학교에서 돌아온 그 말은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 삭제를 해야 됩니다.

김: 그 부분은 동경사진전문학교, 지금도 현재 있는 학교라서 졸업생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성함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 신낙균⁷⁾ 선생이 그쪽 학교 출신이지요?

김: 예, 그래서 확인을 하지는 못해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최계복 선생이 1930년대에 귀국하시고 운영한 것이 '최계복사진기점'⁸⁾입니다. 사진 기

자재와 이것이 사진관도 겸업을 하셨던 건가요?

강: 초기에 최계복사진기점은 사진잡지, 사진 관련된 도서, 인쇄매체로 구비된 지금의 연구소 같은 형태였습니다. 사진기와 감광 재료, 약품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 판매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동호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촬영도 나가고, 작품에 대한 토론회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최계복사진기점은 대구사진관으로 운영했습니다. 마는 나중에 [촬영] 기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2년 그 자리에 한국사진학원을 개원하면서 대구사진관은 폐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 그러니까 대구사진관, 그러니까 소위 초상사진관 관주로서 말씀하신 대로 1946년에 개관….

김: '45년도에.

최: 대구사진관을 개업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52년까지 영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군요?

김: 그 자료 사진을 보면 사진관은 아마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기점 하시던 그 건물을 나중에 증축의 형태로 건물이 조금 더 커져서 1층은 사진관 한 귀퉁이에서 하시고 그리고 2층을 한국사진예술학원으로 만드셔서 학원을 운영하시고, 1층에서는 사진관을 하시는, 크게는 안 하시고 조그맣게 하셨다고 해요.

최: 사진관을 하셨다는 것은 방증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52년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갔을 때 임응식⁹⁾ 선생이 한국사진작가협회¹⁰⁾라는 것을 만듭니다. 만들 때 협회장을 현일영¹¹⁾ 선생을 시키고, 부협회장직을 최계복 선생하고 임응식 선생이 맡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혼한 말로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 문제 혹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갈등인지, 대구분들하고 부산 분들의 지역적인 갈등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최계복 선생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계복 선생을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부협회장직에서 축출합니다. 그래서 최계복 선



한국사진예술학원 기념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최계복,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제공.

생이 일종의 소위, 임응식 선생이 축출하게 된 명분은 영업사진가와는 소위 말해서 예술 사진, 창작사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57년에, 그때는 전쟁이 끝난 종전 후이지요. 최계복 선생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사진작가단¹²⁾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프랙티컬(practical)한, 커머셜 (commercial)한 사진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지요. 이건중, 정희석, 정도선, 성두경, 다 소위 말해서 영업사진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김: 한 가지 최근에 제가 본 사진들에 의하면, 사진관을 하셨던 것이 확실한 게 1954년에 이미 한국사진학원을 개원하시고 난 다음이죠. 2년 후에 촬영한, 대구사진관 명칭으로 그 이름을 사진관 스탬프로 만들어서 찍으셔 가지고, 그 당시에 대구 1세대 남자무용수가 있으세요.¹³⁾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사진이, 그러니까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세 점이 최근에 발견되어 가지고.

최: 대구사진관에서 찍은 거라는 얘기가요?

김: 그렇죠.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 확실한 거라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셨던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 혹시 (강위원을 바라보며) 선생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강: 아니요, 됐습니다.

최: 저희들이 예전에 이명동¹⁴⁾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으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동 선생은 경북 성주 출신이세요.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그분이 한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계복 씨는 일정시대 때 너무 친일을 했기 때문에 말이지, 한국 사회고, 대구 사회고, 서울 사회고 받아주지를 안 했어, 그 사람을” 이런 말이 나옵니다.¹⁵⁾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계복 선생님은 정말로

11) 현일영(玄一榮, 1903-1975). 매동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 일본의 오리엔탈사진학교에서 수학했다. 현일영사장을 운영하며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1952년 창립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 현일영의 구체적 연보는 한국 사진문화연구소, 『사진+문화 vol.6』, 18-19 참조.

12) 1957년 3월 창립한 상업사진가 단체로, 최계복, 이건중, 정희석, 정도선, 성두경, 조명원, 이경모, 홍사영이 활동했다. 1957년 창립진을 개최했고 총 3회의 그룹전에 그쳤다.

13) 김상규(金湘圭, 1922-1989). 한국 1세대 남성무용가이자 대구 최초의 남성무용가이다. 대구에서 '김상규신무용연구소'를 개소했으며 경상북도 지역에 현대무용을 전파했다.

14) 이명동(李明洞, 1920-2019). 경상북도 성주 출생으로, 『동아일보』에 사진기자로 재직하면서 1963년 《동아사진코테스트》 창설을 주도했다. 일간지, 잡지 등에 사진평론을 기고하며 사진비평가로 활동했다. 1989년 월간 『사진예술』을 창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보도사진의 이론과 실제』, 『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가 있다. 《서울시문화상》, 《육관문화훈장》, 《건국포장》 등을 수상했다.

15) 2009년 뮤지엄한미연구소가 주최한 이명동, 정병태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동이 솔직한 부분이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사문화연구소 자료집 vol.2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1945-60년대 사진계의 활동과 동향』(가현문화재단, 2010), 29.

1930년대에 한국사진계의 스타였잖아요. 주요 공모전을 다 석권하신 분이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함을 고산계복(高山季福)¹⁶⁾으로 창씨개명을 하신 거죠. 다른 분들도 사실 창씨개명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임응식 선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명확히 드러나는 예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친일의 많은 문제, 지금도 한일 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 사실 어떤 문학계나 미술계에서는 소위 친일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된 감이 있거든요. 사실 사진계 쪽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주요 사진가들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저는 이명동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당시에 필름이나 인화지는 통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려고 하면 일본과 관계가 좋은 친일파가 아니면 다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주에서 필름을 구하러 최계복 선생을 만나러 가면 굉장히 거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친일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이명동 선생 젊은 시절에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최계복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계복 선생님 행적 중에서 보면 6.25 동란 중에 모든 사진인들이 대구-경북으로 옵니다. 그럴 때 낙동강 전투가 벌어지는 시절에는 대구사진관이 국방부 정훈국의 사무실 겸 숙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연으로 대구지역 사진인들 중에 상당수인 최계복, 김진옥, 김원영, 안월산, 홍사영 선생 등이 한국전쟁에 종군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신 최승언 씨 이야기에 의하면, **{최: 최승언 씨인가요?}** 예예. 뉴욕에 있는 차남이죠. **{최: 최계복 씨의 둘째 아들이세요?}** 예예.

최: 사협의 회원이었나요?

강: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인진 선생님이 쓴 글 중에 최승언 씨의 증언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북한에 최계복 선생님이 종군을 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주면서 “피난을 오게 되면 대구 우리 집으로 와라.” 그분들을 최계복 선생님 가족들이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없으면 집도 마련해 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인품이 어떤 것인가? 사람과 친불친(親不親)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최: 그러면 친일 행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은...

강: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구의 제 은사들 중에서 최계복 선생과 관계된 사람이 많습니다. 강영호 박사님도 그렇고, 김원영 선생님도 그렇고, 최계복 선생님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두 분 다 한국사진학원¹⁸⁾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최계복 선생님 친일 이야기를 절대 안 하세요. 없습니다.

최: 그런데 제가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명동 선생님의 말씀을 빌면은, 창씨개명 한 것 이야 제가 보기에도 친일 행위의 중요한 근거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인신공격일

수 있고요. 그런데 최계복 선생이 항상 일제강점기 시절에 소위 일식 복장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심지어 나막신까지 신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봐서야 뭐 어떠한 형태로 봐도 거의 일본인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¹⁹⁾ 더군다나 복장까지 다 왜 식(倭式)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최계복 선생님의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 김태욱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인터넷에서 최계복 선생에 대해서 자료 올라온 것을, 믿을만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개를 봤는데, 일본 여인들이 기모노 입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제가 몇 장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친일적인,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진가였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대구에서는 그 분의 친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강: 글썽요. 그런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녔거나, 시험을 쳤거나, 공무원이 되었거나, 살았던 사람을 다 친일파로 몰면 한국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기모노를 찍었다? 나막신을 신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있는 것은 전부 친미파입니까? 우리 옛날에 양복 안 입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가면 그 지역의 독특한 복장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친일로 몰아 부치면 그 공기 마시고, 숨 쉰 사람들 다 친일파입니다.

최: (김태욱 쪽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어떤...

김: 제가 대구사진사 정리하는 시간 동안 최계복 선생님과 관련해서 친일 관련한 내용들은 저도 이명동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셨던 이 말씀 외에 다른 분들에게서 들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기모노 입었던 사진들이나,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풍경에 의해서 보여 지는 어떤 사회적 모습을 사진 찍었다고 해서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최계복 선생이 출생하셔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배워왔던 그 시대는 그냥 일본이 **{강: 그냥 일본 시대야.}** 지배를 하던, 일제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았었다. 그 안에서 활동을 했고, 물론 대동아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하는 그 시기까지는 사진공모전도 활발하고 또 그 공모전이 그 시기에 사기진작과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 각종 사진공모전들에 작품을 출품하시고, 거기서 수상도 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회에 충실하게 살고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최: 특별한 친일 행위를 했다든지, 친일주의자로서 처신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김: 그렇게 보는 게}** 조금 과한 말로 판단하시는...

김: 조금 그렇게 보는 것이 안 맞겠나...

16) 위 인터뷰에서 이명동은 최계복의 창씨개명을 언급하면서 성을 ‘高山’으로 개명해 ‘다까야마(高山)기복’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 이러한 그의 친일 행적으로 국내 입지가 점차 좁아져 이민을 가게 된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17) 최승언, 『아버지 최계복을 말한다』, 『영선못의 봄, 최계복 사진집』, 사진역사연구소 편찬(문사철, 2009), 157.

18) 한국사진전문학원을 말한다.

19) 이명동은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필름을 좀 얻어 쓰려고 시골에서 감자를 한 집 짚어지고 최계복씨한테 찾아갔더니 그때 최계복씨는 일본 사람처럼 하오리를 입고 앉아 있다가, ‘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 측면사(1) 이명동 선생께 듣는다.①’, 165.

20) 향토색은 1922년 식민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조선미술 전람회》의 심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조선의 민족적인 소재를 사용하거나 근대화 이전의 동양의 목가적 삶을 표현한 것을 말했다. 아카데미즘으로 자리잡은 향토색은 조선의 정체성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조선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이국 취향과 결합하여 전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박계리, 『일제시대 '조선향토색',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집(1996년): 166-210 참조.

21) 경북사진문화연맹(慶北寫眞文化聯盟). 해방 이후 대구사연회, 대구사광회 그리고 대구사우회 등 경북의 사진단체로 구성된 연맹체였다. 1945년 9월 최고위원장에 최계복, 최고위원에 안월산, 임운창 그리고 회원에는 이윤수, 조상규, 구왕삼, 홍사영, 김원영, 장병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 2월 3·1절 기념 《건국사진공모전》을 개최했다.

22) 최계복은 1942년 백두산 등반대에 지방 산악지부 소속의 '수송대 및 사진기록 담당 대원'으로 참여했고, 1947년 한국산악회에서 실시한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에서도 한국산악회의 경북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최계복, 『그리운 시절-백두산 천지 등반기』, 『영선문의 봄, 최계복사진집』(문사철, 2009), 130-134.; 『울릉도학술단 조사수행기 (1) 동백꽃 피는 바닷가에서 도민의 해양비약을 기원』, 『영남일보』, 1947년 8월 19일; 한국산악회, 『한국산악회 50년사』(한국산악회 50년사 편찬위원회, 1996), 82.

23) 최계복의 차남인 최승언의 글에 의하면, 최계복의 형이 아니라 큰아들이 미국 뉴저지주에 머물고 있었다. 최계복은 큰아들의 집에서 지내다 정착했다. 최승언, 『아버지 최계복을 말한다』, 162.

24) 영화와 관련된 최계복의 이력은 일간지에서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3월 6일 자 『영남일보』의 '천연색 영화제작 개개'에서는 최계복이 필름 작업을 통해 천연색 영화를 만드는 데 성과를 냈으며, 대구출신 영화감독인 이규환(李圭煥, 1904-1982)이 1954년에 제작한 춘향전(春香傳)의 스틸 사진 작업에 참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태욱, 『최계복 사진 작품 연구 및 활동의 역사적 의미』(대구사진문화연구소, 2022), 236.

강: 그리고 최계복 선생님이 발표회에서 일본에서 수상한 각종 사진들이 대부분 한국적인 것입니다. (경주의 고적)이라든지, 대부분 한국적인 거예요.

최: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향토색²⁰⁾이라는 것이 [당시의] 미학적 관념을 지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의 어떤 로컬컬러(local color), 지방색이 큰 것, 그런 작품들이 오히려 공모전 입상에 유리했거든요.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워낙 저희들과 인터뷰 할 때에는 이명동 선생이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한국사진계는 어디에서도 최계복 선생을 받아주지 않았다” {**강:** 그건 어폐가 있는 게} 네.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찾아봐도 1945년에 최계복 선생이 최고위원장으로 경북사진문화연맹²¹⁾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한국사진예술학원도 설립하셨고 또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도 임용식과 더불어서 부협회장직을 맡으셨고,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강: 그 외에도 독도를 찍었거든요.

최: 예. 그런 것들 저도 봤습니다.

강: 그때 촬영할 때 탐사대원 일원으로 갔고, {**최:** 예. 탐사 일원으로 독도도 가셨고.} 백두산 등정을 할 때에도 탐사일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²²⁾

최: 네. 그러니까 이명동 선생님의 말에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 하면 “[친일 행위와 연관성 때문에] 이민 갈 수밖에 없었다” [최계복 선생님은] 1964년에 도미하시게 되는데, 저는 [구술인터뷰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도 소위 친일 행위와 연관성 때문에 한국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김: 자리를 잡기 힘들었다고?

최: 네, 그것에 대한 관련성으로.

강: 그런데 최승언 씨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불식되는 것이 최인진 선생님이 낸 책에서 최승언 씨 아들 증언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최계복 선생님 형이 미국에 가 있었고 그다음에 형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딸이 먼저 가있었답니다.²³⁾ 그래서 친지방문으로 갔다가 놀러 앉아버린 거예요. 좋아서. {**최:** 형이 먼저} {**김:** 그렇죠.} 먼저 가 있어서 거기 놀러 앉아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한국사진학원이 초기에는 괜찮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그것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영화판에 뛰어들어서 영화 스틸사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²⁴⁾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다가 “형이 거기에 있으니깐 한번 놀러 와라”고 해서 갔더니 미국 사회가 너무 좋으니깐 거기 놀러 앉았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증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이따 전 가족 다 갔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일까요?



최계복의 영화 춘향전의 스틸컷이 수록된 『한국화보 1954-1955』(국제보도연맹, 1955). 스태프 목록에 'Stil Ki-bok Choi'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 네, 글썄요. 더군다나 1960년대...

강: 그리고 실제 그 한국사진학원이 그래서 폐원하고 한 아픔은 있잖아요. 평생의 꿈이던, 전 재산을 투입해서 사진학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망했을 때 그 허탈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 또 1960년대는 한국의 지식인, 소위 의사 같은 사람들도 다 미국 이민하려고 그때 엄청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강: 네, 가보니 너무 좋고.

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사진학원이 맞습니까?

강: 한국사진전문예술학원.

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강: 한국사진예술학원.

최: 한국사진예술학원 맞습니까? 한국사진학원이 맞습니까?

김: '52년도에 한국사진예술학원²⁵⁾으로 개원하시고요. '57년도.

최: '56년에 폐원하지 않았나요?

김: 아니요. '56년도에 한국사진전문학원으로.

강: 전문예술학원 아니고요?

김: 아니요. 한국사진전문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최: 그러니까 한국사진예술학원으로 개원했다가 한국사진전문학원.

김: 예, 그렇게 이름을...

최: 그러니까 한국사진학원이라는 명칭은 없었던 거네요?

김: 예. 그래서 한국사진전문학원으로 '56년도에 명칭을 변경하셔서 1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최:** 하시다가} 훨씬 더 어려워지신 거예요.

최: '57년에 폐원을 하게 되는 거군요?

김: '57년 겨울에. 그러니까 1월인가 2월인가 폐원하시고 가족 분들 두시고 서울을 가시죠.

25) 최계복이 대구 동문동에 설립한 사진교육기관. 전쟁 중인 1952년에 개원했으며, 박필호, 강영호, 이윤강, 김원영 등을 강사로 초빙해 사진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1956년 한국사진전문학원으로 개칭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폐원했다.

서울 올라가셔서 집을 구하시고, 가족 분들이 다 따라서 서울 오신 거예요.

최: 그러니까 한국사진학원이라는 말은 없었던 거네요? 아예, 그것은 잘못 기입된 것이네요?

김: 예, 그것은 잘못 기입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최: 최계복 선생하고 대구사우회를 리더로서 활동하신 분이 안월산²⁶⁾ 선생님인데, 정말 대구 사진계의 태두 3명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최계복 선생, 구왕삼²⁷⁾ 선생, 안월산 선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1909년생이세요.

강: 네 분입니다. 이윤수²⁸⁾ 선생님을 넣어야 됩니다. 최계복, 안월산, 이윤수, 구왕삼, 네 분이 다 1909년생입니다.

김: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구왕삼 선생님의 이력을 조사하다 보면 [연도가] 조금 안 맞습니다. 10대 때 되게 이상한 것을 신문에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아서. 조금 어긋난다 싶어서 조사를 했더니 훨씬 더 조금 앞서세요. 정확하게 제적등본을 보면 1905년생으로 나옵니다.

최: 1909년생이 아니고요?

김: 예, 왜 1909년생으로 하셨을까? 제적등본을 보니까, 제가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셔서 첫 번째 부인하고는 사별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오셨는데 사별하시고, 재혼을 [고려]하시면서 대구를 '40년에 올라오세요.' '39년도 연말에 올라오시는데 여동생이 대구에서 결혼하셔서, 그때 김해에 있을 때이니까. "김해에서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와서 선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대구에 오셨다가 대구에 완전히 정착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디 이력서 낼 때는 그것을 조금 조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

최: 게 생각합니다.

강: 옛날 분들도 많이 바꿨으니까요.

'왜 1909년생이라고 하는고' 하면 안월산 선생님 유작집²⁹⁾에 그 책이 지금 나한테 없는 데, 유작 집에 보면 이윤수 선생님 글을 썼어요. 이윤수 선생님 글 쓴 것에 [보면] 세 사람이 동갑인데, 월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야유회를 나가서 아코디언을 쳐고 즐겼다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그렇게 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³⁰⁾ 그것이 이윤수 선생님 글이에요. 그때는 이미 구왕삼 선생님은 돌아가신 후고, 안월산 선생님 돌아가셨고, 안월산 선생님 유작집이니까. 이윤수 선생님은 아주 늦게까지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절친 했던 관계라.

최: 어떤 관계로 안월산 선생님하고 최계복 선생님은 대구사우회...

강: 다 한량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월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하니까, 해방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 또 놀기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최: 그런데 사진적 이력이라고 할까요. 사진적 명성으로 보면 사실 안월산 선생님하고 최계복 선생님은 조금 크나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 지금 보면, 대구사우회에 입회할 때 1934년에 대구사우회가 {**김:**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조.³¹⁾} 대구아마추어사우회가 될 때 구왕삼 선생님과 안월산 선생님이 뒤늦게 거기 가입합니다.

김: '37년에. {**최:**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1934년에 대구사우회 이미 이전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강:** 같은 해에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최:** 대구아마추어사우회가 한국인의 사진[단체]} 그러니까 대구사우회를 못 쓰고, 최계복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만 모여 있는 사진단체를 하나 결성해야 공모전에 출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구아마추어사우회를 만드셨는데, 그때 다섯 분 만드실 때는 안월산 선생님이나 구왕삼 선생님 성함이 없어요.

강: 없었어요.

김: 안 계시다가 '37년도에 몇 분이 더 들어오시지요. 구왕삼 선생, 안월산 선생.

최: 구왕삼 선생은 더 후에 들어오지 않나요?

강: 아니요, 같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최: '37년예요?

김: 안월산 선생, 홍사영 선생, 이렇게 그런 분들이 '37년도에 가입해서 대구아마추어사우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셈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제식 관계의 어떤 사진 전파가 아니라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단체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 대구의 사진이 한국 어느 도시보다 사진이 달랐던 것은 다른 도시에는 대부분 도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활발한, 요즘과 같은 어떤 그런 열린 단체였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계복 선생의 명성은 압도적이지 않았나요?

강: 그렇죠. 압도적이었지요. 그러니까 항상 최계복 선생님 중심이었죠.

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예술사진학원은 굉장히 운영이 어려웠다고 보면 되겠네요?

강: 초기에는 [학원을 차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까지] 몰려와 상당히 좋았답니다. 그런데 약간 지나니까 사진 좋아하는 사람 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또 사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했으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겠지요.

최: 예술사진학원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초상사진관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잘 여겨지진 않는데...

26) 안월산(安月山, 1909-1978). 호는 월산(月山)이며 본명은 안성호(安成虎)이다. 1946년 《건국사진 공모전》에서 준특선과 가작에 당선됐고, 《제1-2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 《제1회 한국향토문화사진전》에서 특선에 입상했다. 1954년부터 1965년까지 대구사우회 회장직을 역임했고, 임기 동안 경북사진작가 연맹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에서 월산에 술학원을 운영했다.

27) 구왕삼(具王三, 1909-1977). 동요 작곡가, 음악평론가, 찬송가 편집자로 활동했다. 1930년대 후반 대구아마추어사우회에 입회해 사진 활동을 시작했고, 대구사연회와 대구사광회에서 활동, 지도했다. 1946년 《건국사진공모전》에서 특선, 《제1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에서 준특선에 입상했다. 1947년 『영남일보』의 논평을 시작으로 사진평론가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했는데, 특히 1950년대 이후로는 임응식, 이명동과 함께 리얼리즘 사진을 주창했다. 1963-65년 《동아사진콘테스트》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1966년 광주와 목포, 1967년 진주와 김해에서 시와 사진을 접목시킨 개인전 《구왕삼시사진》을 개최했다.

28) 이윤수(李潤守, 1914-1997). 1945년 대구사연회 결성 회원, 경북 사진문화연맹 창립 회원, 1947년 대구사우회 결성 회원으로 활동했다. 《건국사진공모전》에서 예술작품 부문 준특선에 입선했다. 전국 최초의 시동인 죽순구락부를 결성해 시인으로도 활동했으며 이듬해 문학동인지 『죽순』을 창간하고 대구의 문단을 이끌었다.

29) 1980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발행된 『안월산 유작 사진집』은 차용부(車龍夫, 1942-)를 주축으로 김원영의 고종, 강위원의 프린트를 통해 제작되었다.

30) “어쩌다가 具王三과 더불어 셋이 어울렸을 때 어떤 때는 具王三이 어떤 때는 月山이 카메라와 함께 아코디언을 메고 나설 때도 있었으니, 그렇게 하여 젊음의 낭만에 젖어 보기도 (...) 즐겁기만 했던 것이다.” 이윤수, 『寫眞과 月山-月山の片鱗』, 『안월산 유작사진집』(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부, 1980), n.p.

31) 1934년 최계복이 주축이 되어 정운상, 조상규, 장병진이 결성한 대구 최초의 한국인 아마추어 사진단체로, 1937년부터 구왕삼, 안월산 등이 총원되어 전조선사진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최계복, 장병진은 《조선사진전람회》에 여러 해 입선하며 괄목할만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일제의 총동원령에 따라 해산되었다가 해방 후 1947년 이윤수, 최상화, 김원영 등으로 구성된 대구사우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곧 한국전쟁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54년 안월산을 초대회장, 최계복을 고문으로 재결성해 오늘에 이른다.

강: 아니, 그런데 초상사진 수업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초상사진 수업 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남해경³²⁾ {최: 남, 해?} 바다 해(海) 자. {최: 남해경이요.} 씨가 한국사진예술 학원 졸업생인데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복향을 해서 자연광을 받아들이는데, 햇빛유리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자연광으로, 스튜디오[인물사진 촬영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김: 최근에 또 사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관련해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면, 한국사진예술학 원 만든 해가 1952년인데, 1952년도는 쉽게 말하면 사진이 사용되는 즉, 사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전쟁으로 인한 수요가 많았던 시기라서 사진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고, 그때 당시에 생존의 문제 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최: 사진관 창업도 하고...

김: 창업도 하고, 군인들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요가 빠지고 나니까 조금 경영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수업을 보면 야외수업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야외에서 인물 촬영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미 1950년대 중반을 가면, 그러니까 최계복 선생님 위치가 사실은 조금 그때 당시에 애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작가로서의 명성은 1930년대에 {최: 확립을 했죠. 네.} 확립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³³⁾ 그리고 광복이 되고 한국전쟁 끝나고, 1950년대 쯤 오면 벌써 터울이 20년 쯤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한국사진계 중진 이상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사실 사진개론 정도 부분은 최계복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다는 데, 나머지 부분들은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 될 수 있는 이야기들만 해 줄 수 있는 위치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이 아닌가,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데도 그때 당시에 한국사진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최: 그러면 이민 가신 후에도 대구사진계와 교류[가 없었습니까?].

강: 전혀 없었습니다.

최: 전혀 없었나요?

김: 제가 본 자료에는 '60년대 초반에 아마 미국 가서가지고, 그러니까 편지를 한두 번 보내 서서 미국 소식 그런 것을 보내시는 정도.³⁴⁾

강: 교황 찍고 할 때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 사진계의 상황이 어떻게 정도라는 그런 소식, 미국 사진계 소식 정도 보내주시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 최계복 선생님이 대해서 어쨌든 저희 연구소가 품고 있는 많은 사안을 선생님께서 명확

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축인 구왕삼 선생님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구왕삼 선생님이 대해서 박정봉이라는 분이 쓴 아주 인신 공격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한 번 인용할까 합니다. “초장에 너절하게 아동문학으로 전을 폈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놓고 파는 전을 폈다가 안 팔리니까 음악평을 시도했고, 그것도 경기가 없으니까 회화평을 한 답시고 간판을 걸러다가 이것 또한 밀천이 짧아서 10여 년 전에 사진평을 들고 나왔기에 말이다.”³⁵⁾ 이러한 글이 1962년 그때 한참 대구사진계가 양분이 되어서 정말 험악한 논쟁을 할 때죠.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말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력을 봐도 그렇던 말이에요. 아동문학 하셨고, 음악평 하셨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호 연관성이 그다지 없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거든요.

김: 그런데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악평을 쓴 글이라든지...

김: 그것은 제가 다 찾아서 읽어도 보고, {최: 예.} 초창기 음악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 1954년 정도까지 음악평을 쓰세요.³⁶⁾ 발표회장 가서서 직접 보시고, 음악평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박정봉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이 분이 되게 궁금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찾아봤는데, 이 분이 잘 안보이세요.³⁷⁾

최: 저도 못 찾았습니다.

김: 이분이 문학평론가세요. 문학평론가이시고 서울분이신데, 전쟁으로 피난을 왔다가 대구에 쪽 머물러 계시다가 '64년, '65년 정도 쯤 되어서 서울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글이 신문에 나옵니다. 박정봉 선생이 서울을 가면서 남긴 글인가, 아니면 다른 분이 쓰셨는가, '박정봉 형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답니다. 그 이전에도 이분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박정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은 몇 개를 보기는 했는데 문학평론가 정도로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구에, 전쟁 이후에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해 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다방별로 이렇게 모여서 오전에 어디 가고, 오후에는 어디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는데 아마 그 그룹들 중에, 그러니까 구왕삼 선생님 만나시는 분들이 아마 문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시 문학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시고, 음악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진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방면에 인맥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최: 아동문학을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동문학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동문학에 대한 평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35) 박정봉, 「유해성 독설의 표본- 구왕삼 씨의 곡필은 천하일품이다, 『매일신문』, 1962년 9월 4일.

36) 구왕삼은 1950년대 초 대구에서 발간된 『전선문학』에 「약단현상-상반기의 악단」(1952), 「전시악단의 동향」(1953), 두 편의 음악평을, 1953, 1954년에는 「대구매일신문」에 「불과 여성과 음악」(1953), 「엔드 스톱 독창을 듣고」(1953)를 포함하여 총 6편의 음악평을 게재했다. 구왕삼의 음악평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은하, 「음악평론가 구왕삼에 대한 연구, 『이화음악논집』 제14집 (2010년): 118-135 참조.

37) 박정봉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언론인으로, 『대구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의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김원중, 「대구의 공초 언론인 박정봉(朴靜峰) 선생, 『김원중 테마에세이, 사람을 찾습니다』 기인이 그리운 세상」(소소리, 2009), 121-126 참조.

32) 남해경(南海鯨). 한국사진예술 학원에서 사진에 입문한 후 『대구일보』 사진부장으로 재직했다. 대구 북성로에 남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광고사진 분야에서 활동했다. 제2회, 제15회 《동아사진콘테스트》에서 입선했고, 대구사진연구회 지도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부 부지부장, 이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33) 최계복은 1936년 4월 대구부 윤컵 《대구사진공모전》에서 〈춘풍〉이 입선된 것을 시작으로 1940년대 까지 《남량현상사진공모전》, 《조선 사진살롱》, 일본 사진신보사 월례 사진공모 등 한국, 일본, 만주 등에서 개최된 사진 공모전에서 60회 이상 입상하면서 한국 사진계에서 지도자 반열에 올랐으며 사진가적 입지를 굳혔다. 구체적인 입상 내역은 한국 사진문화연구소, 『사진+문화 vol.6』, 16-18 참조.

34) 1966년 『사진예술』 9월호에는 「미국서 개인전 개최 중인 최계복 씨의 근황」이라는 짧은 기사를 통해 최계복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미국 내의 장소와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배상하가 운영했던 삼영사 DPE점 필름봉투.

김: 시를 쓰셨지요.

최: 동시를 쓰셨나요?

김: 동시를 쓰시고, 동시 작곡도 하시고 그리고 레코드 취입된 것이 하나 있어요.³⁸⁾ 그게.

최: 동요가?

김: 예, 제가 레코드 취입...

최: 그러니까 그분이 쓴 동시를 가사로 해서 만든 동요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레코드로 나왔다고 한다면...

김: 작곡을 하셨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작곡되어 있는 것이 한 곡이 있더라고요.

최: 그런데 김태욱 선생님이 가장 전문가시지만 이 정도의 다양한 이력을 가지려면 유사 관련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학력에 관한 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 단 한 줄도 없지요.

최: 예, 없습니다.

강: 아까 김태욱 선생이 구왕삼 선생님이 일본에서 초혼했던 분과 사별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구국민학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하고 말만 들은 이야기라...

최: 중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는지는 모르고요?

강: 안 나왔다는 거죠.

최: 그러면 독학자네요?

김: 아니요. 그거는 조금...

강: 그런데 잘못 된지 모르겠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인데, 내가 듣기로는 대구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구왕삼 선생님이 삼영사에 출근하다

38) 동요작곡가로서 구왕삼이 남긴 동요 중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레코드로 취입된 '조선의 꽃'이다.

시피 살았답니다. {최: 삼영사라는 게} 배상하³⁹⁾ 선생님이 운영하는 현상소. 그러니까 그건 배상하 선생님 부인이하는 이야기라. 내가 배상하 선생님 부인을 어렵게 통화를 했거든요. "구왕삼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 직업은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시다.

강: 그리고 매일 하는 일 없이 삼영사가서 죽치고 삼영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직업을 가진 것은 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최: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뷰 자료집에서 쓴 건데⁴⁰⁾ 청포도다방을 박영달⁴¹⁾ 선생님이 하신 것 입니까? 구왕삼 선생님이 하신 것입니까?

김: 그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청포도다방은 박영달 선생님이 포항에서 1952년부터.

최: 하셨던 거군요.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김: 그것이 아마 강상규 선생님 기억이 약간 흐릿해서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 그러니까 박영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청포도다방이었던 것이지, 구왕삼 선생님과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군요?

김: 저도 학력 부분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学)을 졸업하셨다는 것으로.

최: 그러니까 극과 극이시네요.

강: 그런데 와세다대학을 졸업했으면 구왕삼 선생님 이력에 와세다대학 언제나 따라붙어. 그것이 왜냐하면 안월산 선생님도 중학교 졸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중학교만 졸업해도 대단한 학력이에요. {최: 일제강점기 때.} 왜냐하면 중학교라는 것이 요즘 중고등학교거든요.

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셨으면 해방 후에 장관도 하실 수 있을... (웃음)

김: 그래서 저도 확인을 아직 못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데, 가족을 보면 위에 누님이 계시고, 밑에 남동생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위에 누님이 그때 당시에 정신여학교, 지금 서울이지요. 김해에서 서울로...

최: 정신여고?

김: 정신여학교라고 해서 {최: 정신여고의 전신이겠죠?} 네. 전신이겠지요. 첫 딸을 그 학교에 유학을 보내세요. 그리고 구왕삼 선생님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을 어디에 보내는가 그러면 평양신학교에 또 유학을 보내세요.

최: 어디요? 평양신학교? 그럼 이분이 카톨릭인가요? 정신여고도 카톨릭입니다. {김: 그렇죠. 전부다 그렇죠.} 명동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김: 네. 그래서 아마 구왕삼 선생님도 그렇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분 성격을 보면 기독교

39) 배상하(裴相河, 1922-1965). 대구 출생으로, 1959년부터 1964년까지 대구의 매일신문사 사진부장을 역임했다. 국내는 물론 일본, 홍콩, 프랑스 등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다. 대구사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당회 회장과 한국사진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40) 강상규와의 인터뷰 중에서 청포도다방이 언급된 부분을 말한다. 박다실, 「강상규, 『대구사진사』 인물자료집, 『마사진연구』 편찬(도서출판 가람, 2008), 154.

41) 박영달(朴永達, 1913-1986). 대구 출생으로 해방 전 대구일보사 포항지사 기자를 역임했다. 이후 포항에서 청포도다방을 운영하다가 1967년부터는 박영달사진아틀리에를 운영했다. 1957년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국제사진살롱》,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부, 《동아사진콘서트》 등 국내외 공모전에 여러 해 입선했으며, 매일신문사 주최 《어린이 사진공모전》등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신학교]에 가서 암전하게 공부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 부모님이 일본으로 보내시지 않았었다, 김해에서 배타고 가면 바로 일본 들어가니까. 아마 일본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자료 찾는 게 부산과 김해 쪽도 알아봤는데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최: 작고하신 큰아드님한테서 이야기 들으신 바는 없어요?

강: 와세다대학에 조회해 봤는가요?

김: 그러니까 와세다대학이 구왕삼 선생님이 다닐 그 시기쯤 되어서는 남자들밖에 안 다녀서 찾아보려고 지금 수배중입니다. 졸업생, 무슨 과, 어디를 가서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오셔서 찬송가, 그러니까 우리 사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요. 그러니까 1933년도 연말에 1년을 기한으로 해서 일본을 가세요. 한국기독교에서 '찬송가를 새로 편찬해서 통일된 찬송가집을 만들자'라고 해서 자료 수집 차 일본에 파견을 구왕삼 선생님이 가십니다.⁴²⁾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데 1년 후에 돌아오세요. 1년 후에 돌아오는데 카메라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서 자료 수집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또 거기 가서 사진을 배우신 거죠. 그런데 사진을 배워서 오셔서 혼자서 아마 그때 당시 도쿄에 6개월짜리 사진 과정들이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배우지 않으셨는가 싶어요. 그러면 사진은 거기에서 배우고 오셔서 찬송가 편집을 해서 찬송가집에 편곡하신 찬송가가, 제가 어릴 때도 그것을 봤거든요. 제가 교회에 심심풀이로 친구들 따라가면 찬송가집 펴는데 거기에 구왕삼이라고, '왜 이렇게 기억하는가?' [하면] 한자로 적어놓았는데 이름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릴 때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구왕삼이 뭐냐?' 그러면서, 저는 같은 분인 줄 전혀 몰랐었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찬송가책이요?

김: 네. 찬송가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보를 들고 와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편곡을 구왕삼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음악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다, {**최:** 그러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아코디언...

강: 아코디언 쳤다고 하는 말은 이윤수 선생님 말에 나옵니다.

김: 그러니까 아코디언 연주를 그렇게 잘 하셨대요. 그러면 '와세다대학 음악 교육이나 이런 쪽을 하셨냐?' 그쪽을 보니까 와세다대학에 그 당시에는 그 과가 없는 거예요. '이야, 대체 진짜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다양하고.

최: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네요. (웃음)

김: 가족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사모님이 며느리들한테 가족들 모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못하는 것이 없다"고. "관심도 많고" 사모님이 와세다대학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요?"라고 물어보면 와세다대학까지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이효상⁴³⁾ 선생 맞나? 전 국회의원? 의장 하셨던 분이시지요?

최: 예, 전 국회의원. 대구분이시요.

김: 네. '67년도에 개인전 하는데 한솔 이효상이라는 이름이 거기 나오거든요.⁴⁴⁾ 비슷한 시기에 거기에 나옵니다.

최: 이효상 씨는 법대 출신이겠지요?

김: 제국대학 나왔거든요.

최: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나왔군요.

김: 동경제국대학 학교 바로 옆에 와세다대학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두 분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마 친분이 계셨지 않나.

최: 유학생들을 같이 했겠다고 생각하시군요.

김: 저는 짐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서 살펴보는 게 더 빠르겠다.

강: (혼잣말로) 왜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최: 김태욱 선생께서 편하신 『대구사진사 인물자료집』에 실린 김태한⁴⁵⁾ 선생님의 인터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왕삼 선생은 해방 후 좌익 사진단체였던 조선사진동맹의 회원이었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⁴⁶⁾ 그리고 저희 초기에 선임 연구원이었던 이경민 씨가 조선사진연맹의 사진동맹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⁴⁷⁾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46년 2월 서울에서 범 좌익문화예술단체인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 결정되자, 대구서도 그 지방조직으로서 그해 6월 '조선문화단체총연맹' 경북도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조금 띄어서 읽으면요. "박삼식과 구왕삼은 대구 사진연구회⁴⁸⁾" 대구사연회죠. "대구사연회의 창립회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북사진문화연맹의 산하단체로 가입되어 있었다." 이런 말을 이경민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⁴⁹⁾ 그러니까 해방 후에 소위 말해서 좌익사진동맹에서 활동한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태한 선생도 1960년대 전으로 험악한 말싸움의 신문 논쟁이 있을 때 그때 어디서, 근거가 있으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구왕삼 선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좌익 활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계복 선생에 대해서 '친일행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애매하겠고, 또 구왕삼 선생의 이 정도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의 시기에 특정인물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김태한 선생님하고 거의 동년배이신 김원영⁵⁰⁾ 선생님이 저한테 은사가 됩니다. 제가 사사를 좀 받았고....

최: 김태한 선생은 구왕삼 선생한테 그냥 아까 1909년으로 하면 19살이 어리십니다.

43) 이효상(李孝祥, 1906-1989). 대구 출생으로 1930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독문과를 졸업하고 1954년 벨기에의 루벤대학교(KU LEUVEN)에서 철학과 문학을 수학했다. 1963년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제5-7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44) 1967년 구왕삼의 개인전 《구왕삼시사전》(진주, 5.17.-?)은 시와 사진으로 구성된 전시로, 작품 목록 1번은 이효상의 시(農路)이다. 총28개의 작품 제목에는 이효상 외에도 박두진, 박목월, 류치환, 김해강 등의 시, 동시,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45) 김태한(金泰漢, 1928-2004). 경상북도 영천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계성고등학교 물리과 교사로 20여년 교직에 종사했다. 대구사우회에서 활동하면서 1960년대 전후 사진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다. 1975년 한성여자초급대학(현 경성대학교)의 사진학과가 개설되자 교수로 부임했고 예술대학 학장과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1971년 《경북문화상》, 1988년 《한국사진문화상》을 수상했다.

46) 이용환, 「김태한」, 『대구사진사 1 인물자료집』, 열린사진문화연구소 편찬(한국사진자료실 포토하우스, 2001), 63.

47) 이경민, 「해방공간의 남북한 사진계의 조직(2)-좌익계열 사진단체를 중심으로」, 『사진+문화 vol.2』,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찬(그래픽코리아, 2010), 8-16.

48) 대구사진연구회. 1945년 해방 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사진단체로 최계복, 이윤수, 구왕삼, 조상규, 김원영, 정운상 등이 주축 멤버로 활동했다.

49) 이경민, 「해방공간의 남북한 사진계의 조직(2)」, 8.

50) 김원영(金元榮, 1916-1984). 『영남일보』 사진부 기자로 근무했고, 대구사우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49년 《전국종합사진대현상모집전람회》 특선, 《제2회 한국향토문화사진전》 준특선 등 국내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다. 1957년 미국문화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후 1962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칼라사진전을 개최했다.

42) 1934년 12월 장로교총회에서 찬송가를 재편찬하기 위해서 당시 찬송가위원회 상무였던 구왕삼을 동경에 파견했다는 내용을 『동아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년 장로교총회에서는 다시 좋은 찬송가를 편찬하기 위하여 (...) 찬송가위원회에서 동회 상무로 일보는 음악평론가 구왕삼 씨를 동경에 파견하여 종교음악문헌을 참고하기로 하고, 「찬송가개정편찬 동경서 문헌수집」, 『동아일보』, 1934년 12월 6일.

강: 예, 똑같습니다. 김원영 선생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강영호, 김원영...
최: 예, 맞습니다. 비슷한 연배세요.
강: 김태한 선생님과 비슷한 연배이십니다. 그런데 김원영 선생님 말에 의하면, 구왕삼 선생님이 좌익으로 몰려서 도망을 다녔답니다. 좌익으로 몰려서.
최: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한국전쟁 끝난 이후예요?
강: 예예,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조금 해결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최: 들은 적이 있으시군요.
강: 그래서 내가 [김원영 선생님] 말년에 그 분 집을 찾아가서 배우면서 사진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사진 이야기하면서 옛날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구왕삼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좌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는 전혀 모르구요.
최: 그리고 또 구왕삼 선생님은 어떤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기들이 리얼리즘을 주창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는, 음해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김: 이것이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몰입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구왕삼 선생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족주의자세요.
최: 민족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웃음)
김: 그렇지요.
강: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김: 많이 다르죠. {최: 그 얘기는 뭐 (웃음)} 구왕삼 선생 누님을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정신여학교 가셨던 분이고, 1919년도 3.1운동 때 고문 받으셔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한 달 정도 미리 김해에 오셨다가 서울에서 3.1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해에서 준비하셨다가 실행에 옮기시고, 잡혀 가서서 한 한 달 정도 고문 받고 나오셔서 집에서 치료하시다가 관심 인물이 되다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말 타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순찰을] 도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순찰도는 순경의] 말발굽 소리 듣고 심장 쇼크사로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구왕삼 선생님이 15살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위에 누님을 그렇게 일찍 잃고, 아마 그쪽으로는 되게 관망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행위는 잘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시대를 보는 눈은 아마 이분만큼 정확하게 보는 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는데]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남긴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광복 이후에 구왕삼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들을 천천히 순서대로 놓고 보면 그리고 작품 발표한 것들을 순서대로 (군동)부터 시작해서요. 그 이후에 '45년도, '47년도 사진공모전에 내서 당선된 사진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순서, 시



구왕삼, <군동>, 1945. 동강사진박물관 소장, ©구경훈

간별로 그 중간에 넣어서 정확하게 보면, 이분이 그 시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하시다가 사진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본인이 되게 거부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대를 털고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시대를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새로운 사진을 그때 당시에 시작, 물론 서울에서 일기 시작이었는데 리얼리즘 사진을 보니까 이전에 해 왔던 사진들과 일제 강점기 때 향토색 섞인 사진들하고 전혀 다른 사진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그것을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자기는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지, 그런 사진을 찍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향후에 벌어지는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 또는 격하게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았나, 나아갔다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 저도 그래요. 선생님께서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김: 네.} 거의 5년간 엄청나게 대구사우회와 대구사광회가 정말 지금으로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김: (웃음)} 어떤 불구대전(不俱戴天)의 원수들 싸움처럼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계복 선생의 친일행각이 있었다라든지 혹은 구왕삼 선생의 소위 공산주의적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험악한 분위기속에서 그런 것을 안 들춰낼 리가 없을 텐데요.

김: 그렇죠. 네, 네.

최: 그때 여러 신문기고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루어지는데도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

면 제가 보기에는 {김: 음해하기 위한} 네. 음해하기 위한 낭설 정도? 유언비어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구체적인 그러한 실례를 찾았다면 그때 언쟁을 벌릴 때, 그때 안 들춰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강: 그런데 그 당시에 심한 좌익인 경우 같으면 살아남기 어렵겠죠.

최: 그렇지요.

강: 약간 (강조하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피해 다니다가 누가 주선해서 정리되는 그런 수준, 그것은 흔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 그런데 대표적인 분이 현일영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 분은 친공 행위를 하셨거든요.⁵¹⁾ {**강:** 예.} 그래서 아마 그분이 소위 말해서 감투라고 할까요? 전쟁 이후에 현일영 선생은 5로(老)⁵²⁾라고 해서 그분의 사진적 능력이나, 나이로나 이런 것을 봐서도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사진단체장을 한 번도 못 맡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6.25 전쟁 때 어떤 친북행위의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왕삼 선생님하고 최계복 선생에 대한 친일, 친북에 관한 것은 제가 봐도 그냥 유언비어 정도로 받아넘기는....

강: 그 시대 상황에 적당한 어떤....

김: 저도 그렇게 물기 힘든 것이 도몬 켄(土門拳)⁵³⁾이 주장했던 {**최:** 예.} 그 일본의 리얼리즘 사진 운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55년도에 정확하게 쓰세요.⁵⁴⁾ "도몬 켄이 말하는 리얼리즘 사진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다"라고.... (웃음)

강: 도몬 켄 이야기입니다.

김: 네. 도몬 켄 이야기입니다.

최: "거지의 리얼리즘이다" 뭐 심하게 비평하죠.

김: 이미 그때 구왕삼 선생이 '55년에 언급하는데 도몬 켄이 실토를 언제 하느냐 하면 '57년도에 해요. 내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사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55년도에 신문에다 글을 쓰면서 도몬 켄이 주장하는 리얼리즘 사진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니깐 이때 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거의 소련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뜻은....

최: 당의 강령으로 확립됐을 때죠.

김: 강령으로 확립된 그런 사진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읽고 받아들이면 안된다' 라고 이미 언급하세요.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으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니까 조금의 연관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최: 구왕삼 선생님은 생활의 수입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김: 사모님.

최: 사모님이 뭐하셨어요?

김: 재혼하셨던 사모님이 대구 동산병원 간호사 출신이세요. 간호사하시고, 결혼하셔가지고는 약방을 여셨던거죠. 지금은 그 약방 하시던 자리가 횡단보도가 되어 버렸는데. 신호등 있는 자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약방을 하셔서 사모님이 약방해서 돈 벌면 아침에 서랍에서 돈 들고 나가시고 (웃음) 하여튼 '집에서 돈은 들고 나가시는데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것이 가족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왕삼 선생 부친께서 김해에서, 소위 말해서 김해에서 하와이까지 무역업을 하셨지요. 하와이에 가서 물건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유통, 판매를 하셔서 상당한 부를 쌓으셨던 것 같아요.

최: 그리고 기독교에도 그것 때문에 또 일찍 눈을 뜨셨고....

김: 눈을 뜨셨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녀들 다 그렇게 공부를 전부 다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 녹화 재개)

최: 대구사우회의 창시자? 정신적 지주가 최계복 선생이라고 한다면 대구사광회의 마찬가지로 정신적 지주, 향도(香徒), 구왕삼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아마추어사우회에서 같이 사진 활동하셨고, 대구사연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원인을 생각한다면 사진적 경향의 대립, 한 쪽은 어떤 형식주의적 탐구? 라고 해도 될 것이고, 또 구왕삼 선생이야 워낙 리얼리즘의 강력한 주창자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분들의 갈등 그리고 그에 이어서는 대구사광회와 사우회의 갈등이 사진적 경향, 사진적 트렌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구사진계의 패권 싸움의 일환이었는지, 물론 두 개다 겹쳐질 수 있고요. 선생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강: 저는 처음에 두 분이 만날 때가 대구아마추어사우회 시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왕삼 선생님, 안월산 선생님, 이윤수 선생님 세 분은 절친한 관계에 있었는데 같이 거기에 들어가신다 말이죠. 그리고 또 경북사진연맹하고 사연회도 계속 활동을 같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구왕삼 선생님 사진이 제가 볼 때는 절정이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서는 구왕삼 선생님 사진 발표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데 — 혹시 김태욱 선생님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삼영사에 있던 배상하 선생의 부인의 말씀에 의하면, 사진 찍으러 가는 것 한 번도 못 봤다는 이야기, 거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사진가의 길을 접고 평론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구왕삼 선생님 말이 거칠고, 말을 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박영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회고록에도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사진도 막 던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확인

51) 현일영은 1947년에 창립된 좌익계열의 사진단체인 조선사진동맹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동은 좌익계열 사진단체의 활동에 대한 슬회 중에 현일영의 친공 성향의 발언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사진문화연구회, 『한국사진사문화연구회 자료집 vol.2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1945-60년대 사진계의 활동과 동향』(가현문화재단, 2010), 21.

52)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원로 사진가 중에서 이해선(李海善, 1905-1981), 현일영(玄一榮, 1903-1975), 김광배(金光培, 1898-1978), 박필호(朴弼浩, 1903-1981), 서순삼(徐淳三, 1899-1973)을 일컬어 사진계의 '5老'라 불렀다.

53) 도몬 켄(土門拳, 1909-1990). 1950년대 전반에 '사회적 리얼리즘'을 표방한 일본의 사진가이다. 1950년부터 사진 잡지인 『카메라(カメラ)』의 《사진 월례공모전》에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리얼리즘 사진론을 전개해 나갔다.

54) "일본서 오는 카메라지의 평론이나 작품 중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이 간혹 있는데 우리가 외국의 이론을 무비판적·직역적으로 수입하면 안 될 것이다.", 구왕삼, 「사진의 리얼리즘 문제 - 작화의 이론수립을 위하여」, 『동아일보』, 1955년 2월 17일.

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에서 본 것인데,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아마 최계복 선생님을 굉장히 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삼영사의 배상하 선생님 부인의 말씀은 삼영사에는 모든 분들이 다 오는데 매일같이 구왕삼 선생님이 출근하다시피 하니 최계복 선생은 단 한 번도 들른 적이 없다, 그것은 최계복, 구왕삼 선생님이 가는 데를 가기 싫어서 안 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차이에 의한 인간적 갈등이 불화의 씨를 뿌렸다고...

강: 처음에는 사진적인 어떤 견해를 구왕삼 선생님과 같이 강렬하신 분이 최계복 선생님이 왔을 때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어느 정도 구왕삼 선생님이 평론을 하면서부터 사진 작업은 떠나고 평론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최계복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구왕삼 선생님이 보면 살롱픽처 (salon picture)라고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하잖아요. 거기에 아마 최계복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났지 않았겠는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최계복 선생님 사진도 살롱픽처하고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최: 그렇게 통칭하기는 힘들지요. [김태욱 선생 쪽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 분의 불화의 근본원인이라고 할까요.

김: 두 분의 관계는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부터 쪽 지속되어 옵니다. 그리고 대구사우회, 그러니까 대구사우회가 두 번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47년도에 {최: 예, 맞습니다.} 대구사우회가 만들어질 때... 두 분이 같이 하시고, 대구사연회 만들 때에도 같이 하시고, {강: 같이했지.}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전쟁 전까지 같이 쪽 활동을 해 오셨고 또 그 당시에는 구왕삼 선생님이 주로 평론 활동보다는 {강: 작품 활동을 했지.} {최: '40년대는요.} '40년대까지는 작품 활동을 하셨고, 구왕삼 선생님은 '47년도 이후에는 공모전에 사진을 안 내세요. 그러니까 '47년도 공모전 《조선사진예술전람회》에서 준특선까지는 하시고⁵⁵⁾ 그다음부터는 공모전에 웬만큼 상 받으실 만큼 받으셨으니까...

최: 그리고 당신의 지위 자체가 누구한테 심사받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김: 그것도 조금.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사진작가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사진을 심사하니깐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사진인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시다가 리얼리즘 사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우리의 사진 방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정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사진평론 쪽으로 접어 드시고, 글을 쓰시는데 이분이 글 쓰신 것을 보면 1930년대 음악평론하실 때부터 읽으면 {강: 거칠지.} 거친 게 아니고 요즘 속된말로 열 받게끔,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화를 돋우는 그런 어떤 문장과 맥락들을 이렇게 사용을 조금 많이 하시죠. 초창기 '54년도부터 시작해서 '56년, '57년 정도까지 평론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세게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왜

냐하면 그때 당시 한 3-4년 정도 시간 동안은 본인 이 이야기하시는 리얼리즘 사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대부분의 사진작가들이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어떤 향토색 짙은 살롱사진 위주의 사진들을 촬영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모습을 보려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깐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이 견고하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 서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처음에는 신문을 통하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만남이나 어떤 그런 전시장에서 대담 형태로 주고받으시다가 본격적으로 신문지상에서 언급을 강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사광회와 사우회 계열로 나누어지면서 5-6년 정도 피 터지는 신문지상의 논쟁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 인신공격성이 보이기도 하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 저도 한국사진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구왕삼 선생의 전시의 평이 아닌 글들은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왕삼 선생님의 사실 최악의 글은 전시회평입니다. 전시회평 때문에 급기야는 1958년에 김태한 선생, 그것도 나이가 19살이나 어린, 거의 제자뻘의 사진가와 험악한 논쟁이 아니라 언쟁, 말싸움이라 얘기해야 하는데, 그걸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사우회 측에 어른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구왕삼 선생과 연세에 있어서나 사진적 이력에 있어서는 맞수인 안월산 선생이나 최계복 선생이 있는데 대구사우회 측은 또 아주 묘한 전략을 펴니다. 그분들은 나서지를 않으세요. 거의 다 구왕삼 선생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어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론 시발점에 촉발을 시킨 분은 구왕삼 선생입니다. 김태한 선생에 대한 <내 얼굴 어때!>인가에 대한 정말 가혹한 평이죠.⁵⁶⁾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미학적 근거가 있는 평도 아니라, 대개 인신공격적인 그런 것인데, 김태한 선생은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유교적 윤리 가치관으로 볼 때 정말 아무리 내가 험한 말을 했다고 한들, 19살이나 나이 어린 후학이 그 정도 발언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더 구왕삼 선생은 격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월산 선생이나 논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최계복 선생은 일언반구를 안 한단 말이예요. 다 구왕삼 선생의 한 20년 후학들이 소위 말해서 대적을,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글이 구왕삼 선생님하고 논쟁을 벌인 것이 김태한 선생님의 <내 얼굴 어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최: 네. <내 얼굴 어때!>에서 촉발이 된 것입니다.} 구왕삼 선생님이 강영호 박사도 건드리고, 김태한 선생님도 건드리고, 젊은 사람을 자꾸 건드

55) 《조선사진예술전람회》는 1946년 3월 창립한 조선사진예술연구회가 주최하여 한국전쟁 전까지 가장 큰 규모로 열린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총 3회 개최했다. 1947년 문교부와 경향신문사의 후원으로 열린 《제1회 조선사진예술전람회》에서 안월산은 (준경)으로 특선했고 구왕삼의 (안개 낀 아침)은 준특선에 입상했다.

56) 1958년 신문지상으로 구왕삼이 김태한 작 <내 얼굴 어때!>에 대해 "추천 김태한 작 '내얼굴어때'는 심사의 '미쓰'로 푸대접을 받고 말았다"며 혹평하자 김태한이 구왕삼의 기사를 공개 비난하면서 신문지상을 통해 주고받은 서로간의 공방전을 말한다. 이렇게 촉발된 신문지상에서의 논쟁은 사우회와 사광회 두 단체의 필진들 간의 감정적인 비방으로 번져 1963년까지 대구사진계를 양분했다. 구왕삼과 김태한의 기사는 다음을 참고. 구왕삼, '불안과 저미의 대구사단 - 제10회 사합전을 보고', 『대구매일신문』, 1958년 11월 11일; 김태한, '좋은 사진작품 평을 위하여, 구왕삼 씨의 "불안과 저미의 대구사단"을 읽고', 『대구일보』, 1958년 11월 14일; 구왕삼, '빈곤한 논조(상), (중), (하) 김태한 씨의 사진평에 답함', 『대구일보』, 1958년 11월 17-19일.



김태한, 《내 얼굴 어때!》, 1958. 『김태한 사진집』(열화당, 1993)에서 발췌.

립니다. 건드렸어요. 그런데 최계복 선생님은 제가 직접 뵈 분은 아니고, 안월산 선생님은 제가 월산예술학원⁵⁷⁾ 다니면서 직접 분이거든요. 안월산 선생님은 앉아 있으면서 하루 종일 돌부처입니다. 말씀 안 하세요.

최: 아, 워낙 과묵하신 분이네요?

강: 과묵하신 분입니다. 대신에 어떤 인정은 그렇게 많고 이러시는 분인데 과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강영호 박사님도 어디 가서 논쟁 절대 안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재수 선생님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예요.

최: 그런데 심지어는 그분들까지도 언쟁에 끼어드니까요.

강: 그러니까 그분들을 구왕삼 선생이 건드리니까요. 또 김재수⁵⁸⁾ 선생님은 글을 씁니다. 김재수 선생님은 사진평을 오래 하셨어요. 논쟁으로 받아친 것이지요. 그리고 강영호 박사님 글은 그렇게 공격성 글은 거의 아니예요.

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새로 저희들이 인물을 모르고, 글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김태한 선생이나 김재수 선생이나, 심지어 강영호 선생님도 그때 정말 주고받는 것 보면 이것은 사실 논쟁이었으면 얼마나 우리 사진계에 그런 격렬함과 열정이 자양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한국사진계의 발전 혹은 대구사진계의 발전에 자양분이 되지 못하고, {강: 못하고.} 정말로 상처와 불화와 불신으로 끝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신 공격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적 미학의 이론이라는 것이 거의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로 어떠한 논리? 정연한 전개도 있지도 않고요. 서로 자가당착적인 자기의 논리들만 퍼거든요.

김: 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그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모색이 나왔다고

57) 1967년 안월산에 의해 설립된 사진전문 학원이다. 정인성이 사진 기초개론과 암실작업, 김태한은 사진미학과 촬영실기 그리고 신현국은 보도사진을 담당해 강의했다. 월산사진학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원로 사진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한 이는 장진필, 강위원, 이재길이었다.

58) 김재수(金在洙, 1929-2006). 대구사우회 소속으로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으며 1965년 호성여자대학(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사진학을 강의했다. 1963년 국제사진실험위원회 위원과 《경상북도미술전람회》, 《동아국제사진실험》, 《대한민국사진전람회》 등 다수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996년 《금복문화상》을 수상했다.



《제1회 한국국제사진실험 The First International Salon of Photography Korea, 1963》 수상목록집 표지, 내지, 1963.

보거든요.

최: 저는 역으로 봅니다. 그 언쟁은 소위 말해서 대구사진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이 대구사진계 그들의 작업을 자극했지, 그 논쟁 자체가 대구사진계 발전에 기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현상은 대구사진계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열정 그리고 라이벌 의식, 이러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으로 기여했지, 그 논쟁자체가 대구사진계의 발전이나 또 한국사진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김 선생님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1963년 《제2회 신라문화제》가 열리고, 그 일환으로서 한국 최초의 국제사진 공모전인 《제1회 한국국제사진실험》⁵⁹⁾, 그런데 이때 대구사우회가 주관하더라고요. 저희 개관전 할 때 한 필자분이 《제2회 신라문화제》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⁶⁰⁾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논지의 글인데요. 어떻게 이것을 대구사우회가 주관할 수 있었나요?

강: 그때 사우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최계복, 안월산, 이런 분들이 거기에 관계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제가 글을 써 놓은 것이 찾으니 안 나오네요.

최: 그러면 어떤 행정조직이나 소위 국가 권력의 어떤 지도층들과 선이 닿았던 건가요?

강: 그 《신라문화제》는...

최: 굉장히 큰 행사였더라고요.

강: 《신라문화제》를 집행한 데가 아마 예총일 것 같습니다.

최: 예, 그렇습니다.

강: 그 산하에...

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강: 총연합회 산하에 안월산, 최계복 선생님 관계되는 경북사진협회인가 그것이 있었거든요.

최: 그런데 사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기관이 한국사진협회이기도 하거든요.

강: 그래서 그 경북사진협회의 주 세력이 대구사우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구사우회가

59) 1963년 5월 한국 최초의 국제사진공모전인 《제1회 한국국제사진실험 The First International Salon of Photography Korea, 1963》이 《제2회 신라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경상북도지부(이하 경북지부)에서 주최했으며, 당시 예총 경북지부 사진협회 지부장 도 심사위원장, 부지부장인 조상민이 임응식, 임석제, 지부원, 정인성, 김조현, 이형록과 함께 심사에 참여했다. 《제1회 한국국제사진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사진 「실험」, 예총 경북지부서 준비, 『경향신문』, 1963년 1월 8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사진실험」 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3년 5월 1일;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10 임응식 스크랩북 발췌 자료집』(가현문화재단, 2015), 146-148 참조.

60) 김지혜, 「국제 사진전 공모와 한국 사진의 국제성: 1950-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사 인사이드 아웃, 1929-1982』, 뮤지엄한미상청 개관전 도록(가현문화재단, 2022), 64-73.

하게 되었다. 그렇게...

최: 그런데 《한국국제사진살롱》이 1회로만 또 끝나는 것은... 한번 그렇게 어렵게 해 놓고...

강: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요.

김: 대개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1회 때도요. 그러니까 처음 해 보는 행사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요.

최: 외국 작가들도 초대하고 그러면...

김: 초대도 하고 또 거기에서 국내 심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업무적으로 벅차게 느껴졌던...

최: 국제 행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김: 네. 그러니까 심지어 1회 행사 도록이 2년 뒤에 발간이 돼요. {최: 아...}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다 사비를 들여서...

최: 그것도 2년 후에 발간이 되었어요?

강: 도록이 나왔었나요?

김: 예, 도록이 나왔습니다. 도록 몇 부를 찍었는지는 안 나오는데요.

강: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에 장원식 씨가 출품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김: 예.

강: 그 사람은 도록 이야기는 없더라고, 유일하게 라벨이 하나 있었고...

김: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또 구왕삼 선생님이 글을 쓰세요. 참 잘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당시에 사우회 총무하셨던 {최: 조상민.} 조상민⁶¹⁾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책이 곧 나온다고, 그것이 2년 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 아마 이때 당시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신문에 구구절절 다 쓸 수는 없지만 그 함축된 내용 안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더 이상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데 《신라문화제》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것 계속해도 되나?’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강: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상민 선생이 거기에 아마 사무국장을 했었고, 호응도는 좋았어요. 대구전시, 부산전시, 서울전시, 이어졌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전시인데도.

최: 예, 순회전까지 했지요.

강: 문제는 인컴(income)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책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그때 경제 사정으로 거의 손님 오면 손님 접대비만 나가지,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을 《신라문화

제》 쪽으로 계속 못 받아서 1회로 끝낸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최: 구왕삼 선생님은 이것으로 한번 마무리를 짓지요. 물론 1960년대가 한국 원로작가들이 개인전이 활발할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최계복 선생조차도 미국 가서 개인전을 하셨고, 국내에서는 개인전을 하신 적이 없고요. 아마 개인전이 일반화된 때는 아니지만 구왕삼 선생님도 개인전을 1967년에 하시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전남 광주에서 하세요.⁶²⁾

김: 저는 전남 광주가 금시초문입니다.

최: 그것이 《시사전》이라는 전시회입니다. YMCA에서...

강: 대전에서도 한번 한 것으로 압니다.

최: 아니, 그런데 그것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왜 자기의 고향인, 자기 행동의 근거지인 대구에서 안 하시고.

김: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 아니, 그러니까 김재수 선생님 증언에 의하면 구왕삼 선생님이 무서워서 아무도 개인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최계복 선생도 못 했고, 그때 당시에 구왕삼 선생의 신문[지상 논쟁] 그게 있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단 한명도 개인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못 했다는 거예요.

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화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 두려울 수 있겠죠.

강: 그렇지요.

최: 1958년-1962년에 언쟁이 워낙 격렬했으니까요. 그것도 있겠는데...

김: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그 시기에도 개인전 하실 분들은 하셨더라고요.

강: 아니, 그 시즌에는 안 했어요. 그 이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는데...

최: 중요한 인물들은 하는 관례가 그렇게 형성되지도 않았었고요.

김: 그렇지요.

최: 그래서 구왕삼 선생님이 왜 자기의 활동의 근거지인 대구에서 하지 않고, 전남 광주 YWCA에서 《시사전》이라는 전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도 소위 '58-'62년의 격렬한 언쟁을 의식하고서 그것을 피해 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강: 지금 김재수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구왕삼 선생님이 대구에서 개인전을 못 했다고 단언합니다.

최: 예예. 저희들도 자료를 못 찾았어요.

강: 동시대에 살아온 김재수 선생님은 2000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사광회와 대구 사우회에 대해 하는 말이 무엇이나 하면, 이것은 내가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김태욱을 바라보며) 자네들이 했지 싶은데, “동시대에 대구사우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사광회의 리얼리즘 또 살롱픽처의 전성시대에 사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비평이 무서워서 서로 개인전을 못 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시

61) 조상민(趙相民, 1925-1966). 도주룡과 함께 한국전력 경북지점에서 근무했다. 1955년 전국사진가연합회 《제1회 공모사진전》, 이듬해 《제1회 어린이사진공모전》에 입상했다. 이후 1961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등 다수의 해외 공모전에 입상했다. 대구사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북사진협회 회장,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 예총 경북지부 부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1962년 《경북문화상》 미술부분을 수상했다.

62) 『광주전남사진사(1943-1993)』에 따르면 시와 사진을 접목시킨 구왕삼의 개인전 《구왕삼시사전》은 27점 출품해 1966년에 광주와 목포에서 열렸다. MBC 광주문화방송국, 한국예총전남지부, 전남일보사 후원으로 광주 YMCA살롱에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 후 목포방송국, 호남매일신문사, 한국예총목포지부의 후원으로 목포 밀물다방에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했다. 광주-전남사진사편찬위원회, 『광주전남사진사(1943-1993)』(삼화문화사, 1994), 31; 옥명심, 『VIII. 60년대 사진의 흐름』, 『한국현대미술사-사진』(동화출판사, 1978), 161.

63) 신현국(申鉉國, 1924-1997). 1955년 대구오광회 회장을 지내다 대구사광회와 통합해 활동했다. 1957년부터 대구매일신문사 사진부에 재직하면서 1962년 《제1회 신인예술상》 특선, 1963년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 특선, 1964년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교부장관상 등 다수의 작품이 국내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경북문화상》, 《수정사진문화상》을 수상했고, 1994년 『인생의 목격자, 신한국 사진집』을 출간했다.

64) 정홍기, 『face to face: 대구원로사진가 김재수, 『포토하우스 45호』(1999년 8월), 9.

65) 구술자는 『대구사진사 인물자료집』(열린사진문화연구소, 2001)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토하우스 45호』에 실린 『face to face: 대구원로사진가 김재수, 편의 김재수 인터뷰 기사를 일부만 발췌하여 수록했는데, 구술자가 언급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구술자가 두 자료를 혼동했다.

66) 서선화(徐善華, 1921-2004). 일본 동경사진통신학교의 사진술과에서 사진과정을 습득했다. 1939년 중국에서 ‘삼명사장’을, 1947년 대구에서 ‘명성사장’을 그리고 명성웨딩을 개업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예총연합회 경북지부 지부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대구사진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사진문화상》 공로상, 《대구시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67) 1970년 12월 19일 명성예식장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정기총회에서 지부장에 서선화, 부지부장에 이창원과 강상규를 선출했다. 서규원, 『제6장 사진작가협회, 『대구예술30년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구지부, 1993), 227.

68) 1952년 12월 창립한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사협)는 1955년 4월 영업사진가들의 전국적인 조직체인 전국사진가연합회의 창립을 주도했던 정회섭과 그를 도와 단체 설립에 협력했던 최계복을 사협에서 제명했다. 임응식은 제명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영업사진가와 순수사진가가 동일시되어 일률적으로 ‘쟁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 사진예술의 순수성을 주장한 결과 작가적 정신이 부패된 자를 여지없이 사단에서 축출했던 것이다.” 임응식, 『사단의 현재와 미래 - 생활주의 사

상황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구왕삼도, 안월산도, 신현국⁶³⁾, 조상민, 김태한, 강영호 그리고 저도 결국 개인전을 못했어요. 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할 수가 없죠.”⁶⁴⁾ 이런 이야기가 김재수 선생님이 아마 2000년대 제1회에서 이용환 교수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인터뷰에서...⁶⁵⁾

김: 저와 동명이인인 김태욱 선생이 아마 인터뷰를 했을 것입니다.

강: 어어.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에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인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신문에 필화사건 이후부터는 아무도 개인전을 못했어요.

최: 그 여파가 {**강:** 무서운 거죠.} 예. 계속 지속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쨌든 1970년에 경북사진협회 그리고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그러니까 대구사광회와 사우회가 통합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지부장이 사광회의 서선화⁶⁶⁾ 선생이 맡게 됩니다.⁶⁷⁾ 아시다시피 서선화 선생님은 전형적인 사진관주로 보입니다. 사진관주를 하시면서 예술사진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사진사에서 정말로 이것은 사진관주 출신의, 아까 최계복 선생님도 한국사진작가단 이야기했고, 임시 수도 부산에서 [창립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최계복 선생을 축출하는 임응식 선생의 논지도 사진관주라는 것이었고요.⁶⁸⁾ 사실 한국사진사 전개에 있어서 단체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데 굉장히 갈등과 불화의 요소였거든요. 그때 서선화 선생도 명성사장, 명성예식장을 운영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우셨던 분 같은데요. 이 분이 지부장직을 맡게 되는데 통합의 지부장직, 그러니까 대구사광회와 사우회 통합의 지부장을 맡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화해-통합의 과정인데, 이 사진관주에 관한 논쟁을 시비 거는 분은 없었습니까? 특히 김태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강 선생의 《포트레이트》전에 대해서 소위 직업, 사진관주로 매도하는 그러한 글을 쓰셨거든요.⁶⁹⁾ 그래서 김태한 선생은 어쨌든 대구사우회의 주요인물인데 통합이 이루어질 때 서선화 선생이 지부장직을 맡을 때 이의제기라든지, 어떤 갈등은 없었는지?

강: 제가 그때 사협에 입회를 했는데, 실제 그 이전에 두 단체는 양분되어서 싸움이 격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랜 기간 서로가 만나서 통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오래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율이 상당부분 되었고요. 그리고 서선화 선생님 자체가 인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협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항상 명성예식장은 무료입니다.

최: 순수예술 지지자들이랄까, 그런 분들에게 큰 반대가 없었습니까?

강: 예. 그리고 서선화 선생님이 아마 중국 심양에서부터 사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사진적인 작업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압니다. (시속 120키로)⁷⁰⁾인가하는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신선함이 있는데, 사진작업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워낙 중간에 인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을 두루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 네, 사진관주라는 직책에 의한 어떤 해묵은 논쟁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ada?

강: 네. 저 같은 경우, 제가 나이가 [서선화 선생에 비해] 한참 젊지 않습니까. 제 자식이 그냥 그 명성예식장에 예식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축의금을 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모르게 베푸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 제가 그 지부장을 몇 년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72년에 사우회의 강영호, 당연히 서선화 선생은 사랑회였지요. 그리고 '73년에는 사우회 김원영 그리고 '74년에는 2년이 지나면 사광회 김영민 선생이 지부장을, 이것이 통합할 때 내규로 약정이 정해졌던 거죠? 2년씩 사광회, [사우회 돌아가면서] 한번씩...

강: 나이 순 비슷하게 그런 것이...

최: 그렇게 했겠지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약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거의 불신, 불화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두 단체는 '71년에 한국사진작가협회와 창작사진협회가 통합하는 역할까지 했거든요. 본부 통합까지 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75년인가? 『경북사진연감』⁷¹⁾이 발간됩니다. 그때 김영민 박사가 그 출판비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때 출판비가 만만치 않은 돈이었는데.

최: 김영민 박사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 예, 지부장이지요. 먼저 번에 서규원⁷²⁾ 선생님한테 받아온 책이 그것인데, 그 당시에 양장제본에 그 제작비가 상당했거든요. 개인 사진집이나 어떤 단체 사진집이 그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110 몇 면인가? 전 작품이 실렸습니다. 저도 한 점 내지 두 점이 실려 있는데. 그러면서 화합적인 결합에서 책 한 권속에 사광회도 들어가고 사우회도 들어가면서, 화합적인 결합이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부장을 바꿔가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최: (김태욱 선생 쪽을 바라보며) 선생님도?

김: 일단은 대구사진계가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어쨌든 고요한 연못에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역할을 항상 구왕삼 선생님이 해왔었다가, 1966년인가? 이것이 개인전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66년쯤 가면 심경에 변화가 오세요. 둘째 아드님이 그때 돌아가시기거든요.

최: 구왕삼 선생님 자체분이요?

김: 예, 그래서 둘째 아드님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 사진만 발표하는 것보다 사진과 시를 함께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 전에 이 《시사전》을 서울에서 누구인가가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사전》을 [오늘 나온 얘기로는] 광주에서도 했다, 대전에서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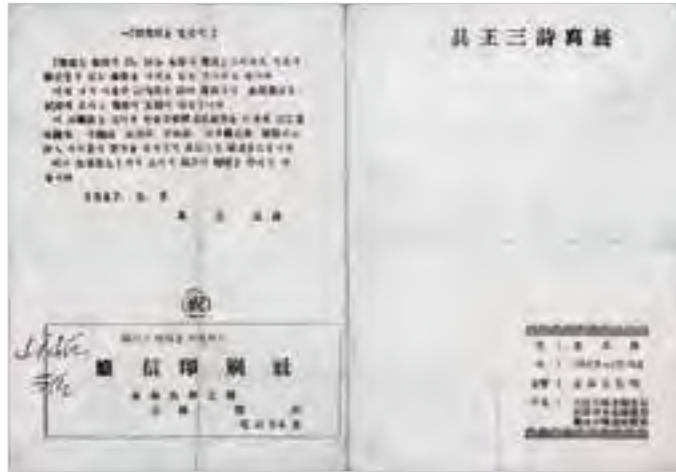
진의 생각을 위하여 (상), 『경향신문』, 1955년 6월 9일.

69) 김태한은 이정강의 《포트레이트》에 대한 전시평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결허된 완전한 실패전 (...) 창작 방면으로 나서고 싶으면 영업사진관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태한, 『결허된 인간성 이정강 『뽀오트레이드』전을 보고, 『대구일보』, 1960년 10월 4일.

70) 구술자가 언급한 사진은 서선화의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작 (시속 100km)이다.

71) 1975년 12월 당시 지부장이었던 김영민(金榮敏, 1913-1992)의 후원으로 회원 76명의 사진 125점이 수록된 『경북사진연감』을 발간했다. 서규원, 『제6장 사진작가협회』, 228, 232.

72) 서규원(徐圭源, 1938-). 1968년 매일신문사 주최 《제12회 어린이 사진공모전》에 입선한 계기로 대구사광회에 입회하여 활동했다. 1990년까지 국내외 사진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다. 《대구사진문화상》, 《대구사진대전》 초대작가상, 《금북문화상》, 《한국예총예술문화상》 공로상, 한국예총 주최 《예술문화상》 예술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구사광회 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 한국예총 대구지부 고문 등을 역임했다.



위. 《具王三時寫展》 김해 개최 팸플릿, 1967,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제공.

아래. 《具王三時寫展》 진주 개최 팸플릿, 1967,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제공.

최: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광주 YMCA입니다.

김: 그러니까 김해, 진주 확인하신 것은 광주...

강: 대전에서 한번 했던 팸플릿, 엽서 한 장을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최: 저희들이 그 확인은 못 했고요.

강: 그 기억이 있어요.

김: 그래서 거기에 보면 훌륭한 작품 사진이 몇 년 전에 경매로 한번 나왔었어요. 경매로 나와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사진을 넣고 옆에 시를 이렇게 써서, 본인 시가 아니고 시인들한테서 받은 시를, 그때 박목월, 조지훈, 이런 당대 최고의 시인들한테서 신작시를 받으셔서...

최: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서 시를 쓴 건가요?

김: 그렇지요.

최: 아니면 사진에 맞은 시를 당신이 고른 것인가요?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지요?

김: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가의 감성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시를 사용하는데 그 작가들, 그러니까 시인들의 동의도 다 받고 하셔서 시를 써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전시를 하실 때에는 대구에 안 사셨대요. {최: 음.} 그러니까 전화로 집마다 "이것도 하나 액자 만들어라" 그러면 전체 전시할 액자를 다 만드셔서 대구역에서 그냥 그것 받으셔서 기차 타고 그냥 가신 겁니다. 그러면 가실 때에는 다 들고 가서 작품을 다 팔고 오신 대요. 그것 다 팔고 오시는데, 그 판 돈은 집에 들어오지는 않고 거기에서 다 쓰고 오신다고 하셨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시를 하시고, 이후에도 그렇게 작품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1차 뇌졸중 오셔서 글 쓰고 다니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65년, '66년쯤 되면 구왕삼 선생의 신문기고 글이 확 줄어들 겁니다. 거의 준 상태에서 그렇게 전시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신문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신문지상에서 논쟁은 '67년부터 더 이상 어떤 사진 운동이라든지, 어떤 주장, 내용,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은 안 나오니까.

최: 그것이 그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대구 지방지에만 독특한 현상이었는지, 혹은 서울의 중앙지까지도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위 아까 그 논쟁들, 사진가들이 그렇게 대구 『매일신문』⁷³⁾이나 『영남일보』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글을 발표가 가능하게 했던 제도가 사진전문 기자가 없었던 거예요. 사진기자도 아까 {김: 배상하 선생님.} 예. 배상하 선생 처남 {김: 권정호.} 권정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하도급을 줬다는 거예요.⁷⁴⁾

김: 그렇지요.

최: 그리고 사진관련 기사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문화부 기자가 아니라 그냥 사진가들 글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 그렇지요.

최: 그 제도가 대구에서 '67년 전후로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그러니까 글 쓰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사진 평이라든지, 전시회 평을 기자들이 쓰게 되는 거죠.

강: '70년대 이후부터 문화부 기자가 글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옵니다.

최: 그러니까 거의 '67년, '68년,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맞아 떨어지니까 아마 글을 쓰는 지면 확보가 쉽지 않아지겠지요.

김: 예, 맞습니다. 서울도 『경향신문』이나 서울지역에 계셨던 사진가분들, 글 쓰신 것이 그 시기 쯤 되면 현저히 줄어들고...

최: 그러니까 이명동 선생이나 그런 분들, 그분은 기자셨으니까 썼겠지만. 어쨌든 '50년대,

73) 대구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은 제호를 여러 번 변경했다. 1946년 발행된 남선경제신문(1946.3.1.-1950.3.21.)이 경제신문(1950.3.22.-1950.7.31.)과 대구매일신문(1950.8.1.-1950.10.3., 1951.6.9.-1960.7.6., 1980.12.1.-1988.2.29.)의 제호를 거쳐 현재 매일신문(1960.7.7.-1980.11.30., 1988.3.1.-현재)에 이른다. 『毎日新聞五十年史』(매일신문사, 1996), 44.

74) 『매일신문』 사진부장을 역임했던 권정호(權正浩, 1939-)는 인터뷰 중 "당시 모든 신문사는 사진부를 도급제로 운영하였다. 그러기에 사진부장은 사진기자를 임의로 고용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임금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석재현, 『권정호』, 『대구사진사』 인물자료집, 대구사진문화연구소 편찬(도서출판 가람, 2009), 165.

'60년대에 사진가분들의 기고가 많았던 것은 이러한 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월산 선생님은 한림화섬주식회사라고해서 섬유회사 같은데, 운영하셨던 기업가신데 이분 경제적 역량이 어떠셨습니까?

강: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1940년대 그 당시에 그리고 구왕삼 선생님과 이윤수 선생님하고 어울릴 때 오토바이를 타고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놀러 다닐 정도였으니까 그때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림화섬도 상당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구의 가장 중심이었죠. 대구경찰서 바로 옆 중부경찰서라고, 만경관 바로 옆인데 그 옆에 5층 건물을 신설했습니다. 1층에는 다방세를 줘서 학원 운영에 보태도록 하고.

최: 월산예술학원이요?

강: 예예. 2층은 사진과, 3층은 미술과, 4층은 무용과, 5층은 월산화랑이었습니다.

최: 화랑까지 운영하셨구나.

강: 화랑까지 운영했는데, 화랑은 오래 못 가고 문을 닫았는데, 거기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한림화섬에서 계속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섬에 경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던 시절에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안월산 선생님이 대구사우회 회장을 하실 때 월례회를 집에서 했답니다.

최: 그러니까 사우회 월례회를...

강: 월례회를 집에서 하는데 음식을 하도 많이 해서 그 남은 음식을 일주일씩 식구들이 그것을 먹고, 치우느라고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었던거죠.

최: 월산예술학원 사진과 출신이 다음 저희와 인터뷰를 하실 장진필 선생님...

강: 장진필 선생님은 저보다 졸업이 1년인가 빠릅니다.

최: 그리고 이재길⁷⁵⁾ 선생이 월산예술학원 출신인 것으로 압니다.

강: 맞습니다.

최: 그 사진과 운영 커리큘럼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 그 커리큘럼은 부산에 정인성 선생님이 메인 강사였고요. 사진 창작실기와 암실 실기수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한 선생님이 사진미학과 촬영실기 수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현국 선생님이 보도사진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역시 촬영 실기를 했는데 촬영 실기를 신현국 선생님이랑 나가보면 신현국 선생님은 촬영 실기가 보도사진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태한 선생님은 어떨 때 촬영 실기를 할 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모 대학에 자기가 출강하는 강의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붙여서 수업도 하고 했습니다.

최: 그러면 퀄리티가 거의 대학사진학과의 수업.

강: 사진학과나 대학 미술학과 수준의 퀄리티였고요.

75) 이재길(李在吉, 1951-). 미국 뉴욕의 스크 오브 비주얼 아트(School of Visual Arts) 학부에서 사진전공 후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대학원에서 사진전공으로 졸업했다. 월산예술학원에서 안월산에게 사사했고 1969년 첫 개인전을 대구 광화회관에서 개최했다. 1999년 이후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사진디자인 교수로 부임해 학과장을 역임했다.

최: 사진관주를 양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군요.

강: 전혀 없었습니다. 그쪽 조명을 가르치거나 이런 쪽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최: 그러면 폐원하게 된 원인은 경제적 문제인가요?

강: 경제적 사정입니다. 안월산 선생님은 원래 서울예술대학 같은 서울예전 같은 학교를 만들려고 꿈을 꾸고 시작을 했거든요.

김: 안월산 선생님은 대구에서 1930년대에 악기상⁷⁶⁾ 하셨어요.

최: 안월산 선생이요?

강: 맞아, 맞아, 맞아.

김: 원래 악기상하시다가 광복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적산 {**최:** 적산가옥? 적산 사업체 같은?} [귀속] 사업체 같은 것 중에 화섬을 인수하셔서,

최: 그 화섬이 그때 인수하신 거군요?

김: 그렇게 인수하셔서 키우시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최: 적산기업이군요. (다 같이 웃음)

김: 아마 구왕삼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는, 대구에서 개인 가정집에 피아노가 들어간 것은 구왕삼 선생님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웃음)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이경희⁷⁷⁾라고 대구가톨릭대 피아노 음대에서 교수하셨던 **{최: 이경희?}** '희'라는 분. **{최: 이경희. 예.}** 피아노하셨던 교수님이 그 집에 와서 개인레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피아노 칠 때가 없으니까 집에 오셔서 피아노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아노를 아마 그렇게 구입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구왕삼 선생님과 안월산 선생님, 포항에 박영달 선생님이 세 분 다 음악 **{최: 마니아.}** 진짜 마니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영달 선생님 본인이 바이올린 켜는 것을 취미로 갖고 계셨는데 6.25 때 숨겨놓고 갔던 것이 피난 갔다 오니까 없어져서 결국 사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시면 사진 이야기도 조금 하시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음악 이야기를 서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그리고 박영달 선생님과 구왕삼 선생님은 막역한 사이셨던 것 같고, 안월산 선생님과 구왕삼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강: 막역한 관계였어요.

최: 그냥 사광회, 사우회 갈등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관참으셨어요?

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박영달 선생님은 구왕삼 선생님과 친해도 사진을 보여주면 구왕삼 선생님이 사진을 던지고 이랬답니다.

최: 그랬다고 하지요. 김태욱 선생이 한 일화에도 나오더라고요.

김: 그러니까 옆에서 보신 분 전언에 의하면 정말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우회에 오셔서 사진들 쪽 보면.

76) 이명동의 회상에 따르면, 안월산은 1940년까지 악기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왕삼은 아마튜어로 활동을 했고, 안월산은 악기점(축음기, 레코드 등)을 경영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담: 원로에게 듣는 사단 측면사(1) 이명동 선생께 듣는 다.①」, 165.

77) 이경희(李慶熙, 1916-2004).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난했던 대구에 정착했다. 1955년부터 1982년까지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최: 사광회이겠지요?

김: 아니요. 포항사우회 쪽에 월례회 비슷한 형식으로 오셔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는 시간에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 사진 이렇게 집어던지신대요.

최: 구왕삼 선생님이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그때 관례였던 것 같아요. 이해선⁷⁸⁾ 선생님도 그러셨대요. 저희들이 이해선 선생님 대한사진예술사진가협회⁷⁹⁾ [관련해서] 인터뷰했거든요.⁸⁰⁾

강: “이것이 사진이냐...”

최: 다 깔아놓으면 막 내던지고, 아주 일종의 리더들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김: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던데요. (웃음) 그렇게 정말 세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세계 하고 가신대요. 가셨다가 한 이틀 후쯤 되면 기차 타고 또 다시 오신대요.

최: 올라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그랬다고...

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뒤에 잠깐 시간을 두고 달래주시고 그래서 오면 또 커피 한 잔 먹고 밥 먹고 가시고. 그런 관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최: 구왕삼 선생님, 최계복 선생님 워낙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배상하 선생님은 삼영사,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현상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일신문』 사진부장직을 겸직하시면서,

강: 겸직을 했습니다.

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까 그 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진은 도급(都給)을 하니까.

김: 하도급 주는 거죠.

강: 사진은 도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근직이 아니고 도급을 하니까 가능했었습니다.

최: 그러면 그러한 제도가 권정호 선생님 때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강: 그 배상하 선생님이 ‘그만 두겠다’.

최: 일찍 돌아가셨고요?

강: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거기 재판부에 있던 정재소라는 분이 와서 촬영을 했대요. 정재소 선생님 사진을 봤는데 사진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60년 6월 9일이 권정호 씨가 첫 급료를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최: 그러면 그때 사진부장은 누구였습니까? 배상하 그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강: 정재소였지요.

최: 정재소, 그다음에 신현국이었습니까?

강: 그리고 신현국 선생님은 권정호 씨가 들어가고 난 1년 후 1961년도에 『매일신문』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최: 사진부장으로 영입이 되셨나요?

강: 바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 이해선(李海善, 1905-1981). 일본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30년대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와 백양사우회를 창립, 지도했으며 해방 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를 조직해 회장과 지도위원을 역임했다. 1941년 일본 아시히신문사 발행 『일본사진연감』에 입상했다. 한국사진협회 고문, 《신인예술상》,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부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4년 신문회관에서 개인전 《이해선사진작품전》을 개최했고, 1980년 『한국의 고공』과 『이해선사진작품집』을 출간했다.

79) 대한사진예술가협회(大韓寫眞藝術家協會). 1945년 이해선, 김정래, 박필호 등을 중심으로 조선사진예술연구회가 조직됐으며, 1947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 1957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로 개칭했다. 박영진을 초대회장으로 이해선, 박필호, 현일영 등 당대 지도자급 사진가들의 활동 기반이 되었던 서울의 대표적인 사진단체였다. 해방 후 전국규모의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사진가를 발굴했으며, 《이해선사진문화상》을 제정하는 등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80)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서 활동한 김원기(金堯祿, 1941-)는 이해선이 회장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월례회의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같은 작품 중에 선생님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성의 없이 찍은 것은 가차 없이 때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8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가현문화재단, 2014), 78.

최: 그 분은 사진 공모전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셔서.

강: 그런데 신현국 선생님 사진집도 보고, 여기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신현국 선생님 사진은 취재 현장에서 촬영했던 사진은 별로 안 보여요.

최: 예? 취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거의 없다가?

강: 취재 현장에서 신문기사로 쓸 수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머러스한 사진들은 많지만 신문 기사로서...

최: 그러니까 시사보도 사진으로서는?

강: 시사보도 사진은 그렇게 별로 안 보이는 걸 보면...

최: 오히려 작품 사진 쪽은...

강: 그러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그것만 했지, 현장을 뛰는 사람은 주로 권정호나 정재소나 그 뒤에 들어오는 심... 선생님이라고 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다.

최: 사진부장이었지만...

강: 현장은 그렇게 많이 안 뛰었다고 합니다.

최: 그리고 또 하나 『매일신문』이 자랑하는 것이지요. 《어린이 사진공모전》⁸¹⁾인데. 《어린이 사진공모전》이 한국사진사에서 처음으로 일제히 나오는 것은 1950년에 『경향신문』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⁸²⁾ 그리고 ‘56년 5월에 『매일신문』이 《어린이 사진공모전》해서 거의 몇 십 년 이상 지속이 된 모양이에요.

강: 한 2-3년 전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최: 그러면 5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 공모전이 어떤 사회적 배경, 당연히 어린이 날 공모전인데 어떻게 해서 지속성과 어떤 사진가 그룹들의 관심을...

강: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만 첫째는 매일신문[사] 재단이 가톨릭 재단입니다. 항상 신부가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재단에서 생각하는 컨셉트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컨셉트가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신현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배상하 선생님이 만들었지만 신현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거기 뒤에 계셔서 사진계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는 소리도 못 했을 것이고...

최: 신현국 선생님은 오랫동안 사진부장직을 역임하셨나요?

강: 퇴직할 때까지 사진부장 했고...

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강: 퇴직할 때까지 했고, 퇴직하고서도 다시 또 몇 년 더 근무하는 것 있지요? {최: 예예.} 계약직으로 있으면서도 부장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서 그 영향도 있고 또 『동아일보』에서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매일사진동우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준기자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되는 사람은 대부분 상당히 명망이 있거나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매일신문』을 도왔죠. 그

81) 《어린이 사진공모전》은 1955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대구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대구시가 후원하여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회를 거듭해오며 매일신문사가 주최의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성장했으나 지금은 《어린이사랑 다자녀가족 사진-UCC 공모전》이라는 명칭으로 지속되고 있다. 매일신문사 포토갤러리 <http://photo.imaail.com>(최종접속: 2023년 9월 1일).

82) 1949년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주최로 열린 《전국어린이사진전람회》를 말한다.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 전시는 제1회는 1949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제2회는 1950년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미국문화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대구에서는 《제1회전》에서 임윤창이 최우수작, 《제2회전》에서 김원영이 최우수작에 입상했다.

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삼한C1의 한삼화 회장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매일신문』 《어린이 사진[공모전]》이 오래 가게 된 것이지요.

최: 제가 또 한국사진사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 유명 작가들, 대표적인 분이 주명덕⁸³⁾ 선생 같은 분입니다. 홀트아동복지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차영부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체부자유, {**강:**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 어쨌든 다 무엇을 소재로 하느냐 하면 어린이를 주제로 한, 심지어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숙미회⁸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전을 할 때 어린이를, 소위 말해서 사진가들의 1960년대 단골소재였어요.⁸⁵⁾ 그래서 어떻게 '50년대, '60년대 한국사회가, 특히 사진계에서 어린이 사진에 대해서 정말로 강한 선호도를 나타냈는지 그것이 궁금도 하고.

강: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어린이 사진전이 소재의 한계에 있어서 가족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린이가족사진공모전》 이런 식으로 몇 년 했습니다.

김: 그것이 아마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그럴 것 같아요.

김: 그러니까 '5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되면서 아이들이...

최: 그렇지요. 베이비붐세대 그런 것도 있고....

김: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많이 [소재로 삼고]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지요.

최: 있지요. 맞습니다.

강: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식이 있으니까.

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최: 어쨌든 신현국 선생님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것인데, 1962년 《제1회 신인예술상》⁸⁶⁾, 《신인예술상》은 사실 《국전》의 사진부가 생기기 이전에는 거의 《국전》과 같은 권위를 가졌던 것인데요. 그리고 1963년 《제1회 동아시아사진콘테스트》 특선 1등상, 그다음에 《제13회 국전》의 최고인 문교부장관상, 그러니까 거의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이분은 『매일신문』 사진부장직도 수행하셨다고. 이분은 대구사진계에서 위상은 어떠했습니까?

강: 신현국 선생님 인맥도 대단했거든요. 이명동 선생님하고 절친했고, {**최:** 아...} 서울의 이명동, 대구에 신현국, 부산의 김광석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세 참새라고 했습니다.

최: 어디요?

강: 대구에 신현국, 부산에 김광석.

최: 김광석이라는 분이요?

강: 예.

최: 부산의 김광석?

강: 네. 세 참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맥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또 신현국 선생님이

작품에 대한 열정 같은 것, 어떻게 사진을 찍을 것인가, 굉장히 몰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어디사진이고? (생각에 잠기며) 《동아시아사진콘테스트》인가? 회전그네를 타는 노인 사진을 찍는데...⁸⁷⁾

최: 네. 신현국 선생님입니다.

강: 사진을 찍는데, 노인을 섭외해서 찍으러 갔대요. 그런데 암만해도 표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영감님, 막걸리 하십니까?” 하니깐 “좋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한두 잔을 딱 드시고 그리고 올라갔더니 이야기가, 그때서야 흥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찍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사진은 이렇게 연출하는 것이다’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업시간에 들은 거예요.

최: 신현국 선생님한테서요?

강: 네.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 재주가 그때 당시에 신현국, 김갑연, 이런 사람들, 구왕삼 선생님 등 이런 사람들이 뛰어났었습니다.

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현국 선생 그 분의 사진, 사광회의 주축 멤버였고요. [신문사] 사진부장이셨으니까 아주 리얼리스트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구왕삼 선생의 리얼리즘론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객관적인 사건 포착이 중요한 가치를 발하고 있으니만치 사진의 기본 존재이유는 객관적 기록과 추구에 있다.” 이런 식의 리얼리즘론을 발표하신단 말이에요.⁸⁸⁾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회전목마도 그렇고, 이것이 일종의 연출사진이란 말이에요.

강: 신현국 선생님, 연출사진 많습니다. 상 받은 사진 다 연출입니다.

최: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더군다나 그때 리얼리즘이 어디까지 가나 하면 ‘절대 비연출’, 그런 이야기도 간간히 들 때란 말이에요.

김: ‘절대 스냅’, ‘절대 비연출’.

최: ‘절대 비연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소위 말해서 리얼리즘의 핵심 컨셉트인데.

김: 컨셉트이지요.

최: 그 리얼리즘의 영향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절대 비연출’이 아니라 절대 연출. (웃음)

강: <아빠, 뽀이빠이> 하는 것도 연출이거든요.⁸⁹⁾

최: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제13회]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 수상한] <생존>은 샌드위치 프린트⁹⁰⁾입니다.

강: 다 합성이고....

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모순이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리얼리즘론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의 사진은 오히려 정말로 독일의 ‘뉴 비전(New Vision)’⁹¹⁾이나 혹은 ‘주관적 사진(Subjective Photography)’⁹²⁾과 더 오히려 맥이 닿는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뭐라고 욕했던 살롱사진이라고 욕했던 것과 일정 부분 맥이 닿는 부분도 있던

87) 《제1회 동아시아사진콘테스트》에서 특선을 수상한 신현국의 <동심>을 말한다.

88) 구왕삼, 「사진의 '고전' 문제(하)」, 김태한 씨의 논박에 다시 답하며,, 『대구일보』, 1958년 11월 29일.

89) 신현국의 <아빠, 뽀이빠이>는 공보부 주최, 예총 주관의 《제1회 신인예술상》 사진부문에서 특상을 수상했다.

90) 두 개의 사진 이미지를 후에 몽타주하여 한 장면으로 완성한 작품을 말한다.

91) 독일의 라슬로 모호이너지(László Moholy-Nagy, 1895-1946)가 20세기 초 개진한 사진의 모더니즘 운동이다. 그는 사진을 현실모사의 기계적 재현수단 혹은 회화 종속적 매체가 아니라 동시대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는 빛의 매체로 여길 것을 촉구하면서 사진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탐구하는 '뉴 비전' 운동을 이끌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최봉림, 『서양 사진사 32장면』 (아카이브북스, 2011), 210-220 참조.

92) 독일의 사진가 오토 슈타이너트(Otto Steinert, 1915-1978)가 제창한 방법론 중 하나로, 1910년대 독일에서 유행한 '신즉물주의(Neue Sachlichkeit)'의 계보를 이으면서 사진의 모더니즘을 이끌었다. 피사체에 충실하되 작가의 강한 주관을 표현하고자 했다.



신현국, 《생존》, 1964.
《제13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말이에요. 이런 모순에 대해서 대구사진계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강: 그런데 절대적으로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구왕삼 선생님 사진도 대부분 만들어진...

최: 그분들도 연출 사진이 있으시잖아요.

강: 똑같습니다.

김: 특히 신현국 선생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작품집 사진을 봐도 그렇고, 이게 (웃음) 대구사 광회의 핵심 멤버, 주춧돌을 엮은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3년도에 오광회 하고 사광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만들어져서 따로 활동을 하시다가 '55년도에 사 광회로 통합이 되시는데, 그러면 핵심 디딤돌을 놓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진들이 아닌데,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그분이 공모전에 낸 사진과 그 분이 찍어 놓은 사진 전체를 놓고 보면 연출해서 찍어서 공모전에 낸 사진들과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찍어놓으셔서 연출한 사진들도 많지만, 연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냅사진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야, 정말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 그런데 공모전에 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강: 아니, 그 배상하 선생님 말씀이 권정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상하 선생님은 신현 국 선생님을 이렇게 평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고 하면 "신현국 선생님은 공모전의 사진 은 잘 찍는데 진짜 사진을 몰라. 공모전 상 타는 것만 알아." 이런 주장이...

최: 보도사진은 약한데, 공모전 사진은 강하시다?

강: 그렇지, 문제는 신현국 선생님 좋은 사진이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신현국 선생님이 보도 사진 비슷하게 대구를 기록했던 사진이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 구주택에서 신 선생님이 어려울 때 100% 구입을 해 갔어요. 청구주택 사장이 사진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해 갔는데, 그것이 청구주택에 와해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신현국 선생님이 연출하지 않는, 유머가 있는 풍경이나 이런 것 말고, 연출 하지 않는 정말 오리지널한, 리얼리티한 사진들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신현국 선생님이 그 사진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지만 다른 사진은 안 팔고, 그것은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신현 국 선생님 말년에는 풍경 찍으러 다녔습니다. 설악산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데 그것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최: 그때 판매 루트는 어디였나요?

강: 그러니까 지인들이 사주는 것이지요.

최: 화랑을 통한 거래는 아니고요?

강: 아~ 그것은 아니고요.

최: 조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두 분 선생님과 직접 관련을 맺는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 다. 우선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성대학교로 개칭되는 부산산업대학교에 김일창 선생, 김태한 선생이 사진학과 교수로 부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대구사진가들이 부산 소재 대학교의 창설학과의 교수로 가게 되는지요?

강: 그것이 부산산업대학 전신이 무슨 전문대학인데,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인데...⁹³⁾

최: 한성여자초급대학, 왜 한성이 붙지요?

강: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그래요.

최: 서울이 아닌데 왜 부산에 한성여자가 붙지요? 부산산업대학교 이전이 또 한성여자...

강: 전신이 전문대학입니다. 거기에서 김태한 선생님을 모셔갔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폐과가 되어 버렸어요. 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김태한 선생님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 을 해서 부산산업대학교, 산업대학이 개방대학 체제는 아닙니다. 경북산업대학하고는 다 릍니다. 경북산업대학고는 개방대학이었을 때인데. 사진과를 만듭니다. (편집자에 의해 서 질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삭제)

최: 그러니까 부산산업대학교에 만드신 거죠?

강: 예,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진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내가 김일 창을 데리고 간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저도 강의를 나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일 창 교수가 가게 된 거죠.

최: 그러니까 김태한 선생님이 또 대구의 지인분인 김일창 선생을 모셔서...

강: 김태한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김일창을 데리고 가야 부산산업대학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모셔 간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에는 또 에피소드가 많습시다마는 좌우간 그렇게 해 서 두 분이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는 거기에 필적할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 어요.

93) 부산산업대학교는 1955년 3월 경남대학교육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5월 경남사범대학을 개교한 것이 모 체이며, 1963년 한성여자실업초급 대학으로 개편인가 된 후 1979년 승 격 개편되며 바뀐 명칭이다. 1988년 경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경성대학교 60년사편찬위 원회, 『경성대학교 60년사』(경성대 학교, 2015), 526-531.

최: 거기에 정인성 선생도 계셨고...
강: 정인성 선생은 나이가 많잖아요.
김: 그때는 나이가 많으셨지요.
강: 이미 돌아가셨지요.
최: 아, 1986년이네요.
강: 정인성 선생님은 연배가 아마도 안월산 선생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최: 임응식 선생님 그쪽과 [연배가 비슷하시죠].
강: 그러니까 대구에 《국전》 초대작가가 대구에 안월산, 부산에 정인성, 이렇게 있을 시절 아닙니까.
최: 1988년에 경북대학인가요? 경일대학교로 개칭되는 게 무슨 대학인가요?
강: 경북산업대학.
최: 네. 경북산업대학이겠지요? 1988년에 경북산업대학에 사진학과가 생기는, 그때 선생님은 초대 교수로 가십니까?
강: 아닙니다.
최: 창설 교수가 아니시고요?
강: 예예. 경북산업대학에는 '88년도에 임태석 교수가 계명전문대학 사진과에 있다가 오셨 습니다.
최: 계명대학에 계신 분이...
강: 계명대학이 아니고 계명전문대학.
최: 전문대학.
강: 계명대학하고 계명전문대학은 다른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아닙니다. 재단은 같은데 학 교는 다릅니다.
최: 계명전문대가 지금도 있습니까?
강: 지금 계명문화대학.
최: 아, 그렇군요.
김: 지금은 통폐합하려고...
최: 결국은 4년제는 계명대학교라고 별도로 [있고]?
강: 별도 학교고.
최: 그렇군요.
강: 그래서 갔는데. 그때 내가 참, 운이 좋았지요. 거기 두 번째로 내가 가게 되었습니다.
최: 그러면 몇 년도에?
강: '89년도에.
최: '89년도.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교수가 되셨네요? 그때 '88년이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올

림픽에 분명히 사진 특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 그런 것이 아니고, 경북실전이 상당히 일찍이 사진과가 되었는데, 대일실전입니다. 대일 실업전문대 사진과가. 천구백...
최: '80년입니다. 대일실업전문대, 1983년에 경북실업전문대, 2012년에 대구미래대학교 로 교명이 개칭됩니다.⁹⁴⁾
강: 교명이 바뀌었는데, 대일실전대는 입시 할 때 사람 수가 조금 작았거든요. 그런데 경북실 전이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그 입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최: 경쟁률이 굉장했다는...
강: 그때 당시 계명전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최: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다 인기학과였다는 이야기이지요?
강: 예,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경북산업대학, 그때는 개방대학 체제였습니다.
최: 개방대학 체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 4년제 대학에는 일반대학과 개방대학 체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대학이지요. 기업 체 특혜 주고, 야간부도 있고, 이런 학교였습니다.⁹⁵⁾
최: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강: 그것은 아니고요.
최: 그것은 아니겠지요?
강: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체제가 일반대학과 개방대학, 두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최: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가산점을 준 다든지.
강: 가산점을 주기로 하고.
최: 무시험으로.
강: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입학, 졸업하는데 기간제한도 없고. 휴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최: 아,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와서 개학할 때 보니까 무슨 군인들도 와서 수업을 들 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강: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진과 만들려고 생각해서 예산 조사를 해 보니 확대기도 알아보고, 카메라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돈 얼마 안 든다고 만든 거예요.
최: 그런데다 경쟁률은 치열하고요.
강: 그러니까 만들고 보니까 이것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확대기가 한 명당 하나씩 필요한 건데, 확대기 하나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임태석 교수가 처음에 암실을 아마 정말로 고급

94) 대일실업전문대학은 1980년 설립되었다. 당시 사진과를 포함한 6개학과 828명의 정원으로 시작했 고, 1983년에는 경북실업전문대학 으로 교명이 변경됐다. 이후 1998년 대구미래대학, 2012년 대구미래대 학교로 개명된 후 2018년 경영난으 로 인해 자진 폐교했다.

95) 1980년 7.30 교육개혁에 따라 직업기술 인력양성, 실업계 고교, 전 문대 졸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 육기회 부여, 졸업정원제에 따른 중 도 탈락자 구제, 저소득계층 및 산업 체 근무자들에 대한 대학진학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방대학(開放 大學) 체제를 개설했다. 1998년 3 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의 하여 산업대학(産業大學)으로 명칭 이 변경됐다.

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그때는 주간 40명, 야간 40명을 뽑았거든요. 경쟁률이 대단했습니다.

최: 한 몇 대 몇?

강: 8대 1, 10대 1, 이렇게 되었는데.

최: 엄청 낮네요.

강: 그때 우리가 입시를 나흘씩 치렀어요. {**최:** 그랬겠네요.} 실기 문답고사를 하다 보니까 12시에 끝나기도 하고 이랬어요.

최: 전형료도 엄청 벌었겠네요. (웃음)

강: 그때 당시에 한 달 급료만큼 전형료 수당을 받았습니다.

최: 그렇겠네요.

강: 그다음에 또 3학년 되면서는 편입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한 해에 160명씩 졸업했어요.

김: 120명?

강: 편입반 80명하고, 일반반 80명하면 160명 아닌가?

김: 아, 그러네요.

강: 네 반인데 160명 졸업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반대학으로 바뀌면서 정원을 80명으로 했는데, 김유진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7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0명 정원입니다.

최: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의 취업 경로?

강: 그런데 참, 경일대학교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도 그런 타깃(target)을 가지고 했지만 입학생 70%가 서울,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가 실기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들어오려면 6개월, 1년씩 학원 다니는 사람 수가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조금 괜찮은 자리에 있는 부모를 가진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해에 많을 때에는 뉴욕에만 우리 졸업생이 유학 간 학생수가 20명, 30명 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전부 꿈은 교수이고, 기자고 [그러는데]

최: 작가가 되고 싶은...

강: 교수도 많이 되었고요. 심지어 교수가 된 분은 지금 크게 나뉘서 중앙대학교 김택훈, 경성대학교 황철희, 경일대학교 김유진, 다 경일대 출신이거든요. 경일대학교는 저희 학교 졸업생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 5대 일간지에 거의 사진기자가 다 있고, 그다음에 MBC, KBS, SBS 다 있습니다. 특히 대구MBC, 포항MBC, 울산MBC 같은 경우에는 주류가 카메라맨, 대구MBC가 8명인데 주류가 거의 대부분 경일대입니다. 그만큼 방송국,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이 4개였거든요. 보도, 광고, 순수, 영상 그래서 보도와 광고가 주전공이고, 순수와 영상은 부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나 광고를 전공하면서 순수

나 영상 중에 하나를 전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정규적으로 사진과 연결시켜서 교육시킨 사람이 많은데, 내 친구가 나중에 MBC 사장까지 했는데 그때 김동철 씨라고 사람을 뽑는 가장 큰 요직에 있을 때인데 우리 아이들이 잘 하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고 하니 옛날 자기들이 들어갈 때는 전자과 출신들을 사진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때 비디오카메라가 워낙 고가고, 전자장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 공부를 한 사람을 사진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사진 교육 한 사람을 전자 교육하는 것이 쉽더라고요. 그런데 경일대에서는 그것을 다 해서 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유학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경일대에서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MBC인가 KBS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창하고 카메라맨이 같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통역이 늦게 왔는데 사장이 보니까 자기 회사 마크를 달고 사진을 찍는데 유창하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니까 [통역이] '저하고 비슷합니다.' 한 애는 서울KBS에서 전국에서 50명을 뽑았는데 지방에서 3명 [합격]되었는데 경북대학교 신방과에 1명, 경일대 2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저희 학교로 학생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70%가 서울, 경기도입니다.

(카메라 배터리 교체 후 녹화 재개)

강: 광고 전공이 있기 때문에 광고 사진가들 중에서 대한민국 탑10 중에 과반수가 경일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서울 쪽에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 2006년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창설되는데 그 창설배경과 어떤 분들이 산파역을 했었나요?

강: 처음 2002년에 《대구사진비엔날레》를 만들기 조해녕(曹海寧, 1943-) 시장과 대구 MBC 이금희(李競熙, 1946-) 사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 성함이요?

강: 이.금.희. 그리고 대구 조해녕 시장, {**최:** 은혜 혜(惠) 자?} {**김:** 아니요.} {**최:** 바다 해(海) 자? 녀?) 녀. '안녕' 할 때 녀. {**최:** 네. 조해녕.} {**김:** 국회의원도 했었죠.} 그때 협약까지 맺고 제가 팀장이 되어서 이용환 교수하고 구성수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지하철참사⁹⁶⁾가 터져버려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인가 동강에 갔는데 그때 석재현 선생을 통해서 당시 『조선일보』 사진부장이었던 구자호 선생이 나를 보자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동강에 갔습니다. 만나서 《대구사진비엔날레》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당시에 김범일 부시장이 {**최:** 김범일?} 범일. 김범일 선생하고 구자호 선생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최: 경북고등학교이지요?

96)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말한다.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사망했다.

강: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프로사진가협회라고 사진관협회입니다. 한국프로사진가협회와 미국프로사진가협회가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고 들어와 있었습니다.⁹⁷⁾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한다고 들어와 있어서 김범일 부시장이 한꺼번에 2개를 추진하기 힘드니 '여기에 백의종군해서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저하고 석재현 선생이 한국사진사연구소를 끌어들어서 《연예인사진전》 같은 것도 개최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성공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문교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대구사진비엔날레》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최: 사진가로서는 구자호 선생님 그리고 강위원 선생님, 석재현 선생, 그렇게 산파 역할을 하셨네요?

강: 셋이서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최: 그런데 2004년에 《대구사진비엔날레》 위원장은 주명덕 선생이 맡으시고, 총감독은 박주석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강: 그건 2006년인데 위원장은 주명덕 선생님이 맡으시고, 박주석 선생이 큐레이터이지요.

최: 거의 총감독인 역할을 맡아서.

강: [총감독] 역할을 하는 큐레이터였지요. 그리고 보조 큐레이터로 석재현 선생이 맡았지요.

최: 그러니까 그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지역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강: 그때 '우리가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해서, {**최:** 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짠 것 중의 한 가지가 세 사람 중에 1명이었습니다. 1순위 강운구⁹⁸⁾ 선생.

최: 대구분이니까요.

강: 2순위 주명덕, 에드워드 김⁹⁹⁾, 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대구사진비엔날레》라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 있으면 세계에서 누가 알겠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조직위원장으로 부탁을 하자.

최: 지명도 높은 분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강: 그러니까 강운구 선생을 섭외를 했는데 강운구 선생이 '전권을 달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되고 주명덕 선생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맡게 되었고, 그래서 큐레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최: 또 주명덕 선생이 큐레이터는 또 정하셨겠네요?

강: 주명덕 선생이 정했는지 그때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최: 주명덕 선생님이 정하셨을 것입니다.

강: 예. 그래서 박주석 선생이 큐레이터를 하게 되었고, 석재현 선생을 도와주는 보조 큐레이터를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조직위원회는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때 조직위원회 자리에서 선정되었거든요. 사협 그다음에 사진기자단, 광고사진가협회, 학회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조직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최: 김태욱 선생께서는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기획전시 일환으로 대구 사진의 주요 인물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조명하는 전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2008년. 제 기억으로는 《대구사진의 선각자-구왕삼, 박영달 전》¹⁰⁰⁾, 대구봉산문화회관 제2전시장을 저도 그때 가서 보고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의미 있는 전시였고.

김: 그 사진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강: 정말 좋았습니다.

김: 그 전시가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이 빈티지 프린트를 그때 전시를 했었던...

최: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빈티지 프린트 다 어디 갔습니까? (웃음) 제가 그 색 바란 사진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강: 상당수가 동강[사진박물관]에 안 갔나요?

김: 빈티지 거의 대부분은 지금 한국사진은행에.

최: 한국사진은행이요?

김: 예.

최: 누구? 저축은행장 하셨던 분이 다 구입하셨나요?

김: 예. 그 [2008년] 전시하고 2010년도에, 그런데 그 전시를 할 때는 그 회장님이 오시지는 않았었는데.

최: 그 분이 《대구사진비엔날레》에서 운영위원은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김: 2010년도에 최현수? 회장님인가 그러실 것입니다.

강: 윤현수?

최: 아, 윤현수 부산저축은행장이 그랬지요. 윤현수 맞습니다.

김: 한국저축은행장 하실 때, 2008년도에 했던 《대구사진의 선각자》전이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도 해 주시고, 오죽하면 비엔날레에서 이것 빼고는 볼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최: 제가 도록도 갖고 있더라고요.

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전시를 두 번 기획하게 된 것은, 두 분 사진 빈티지를 봤을 때 받았던 충격을 전시회에 그대로 담았거든요. 저는 한국사진가 중에 사실 빈티지 사진들, 옛날 한국사진 작가들의 오래된 작품들을 봐도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감흥이나 감정을 불러오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작품들, 그러니까 빈티지 사진들을 딱 보면서 너무, 너무 신선하고, '과거에 한국사진계를 내가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받았던 감동을 그대로 전시회에다 옮기고, 전시 참 잘 끝내고. 2010년도에 그 리얼리즘 사진과

97) 대구시와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프로사진가협회가 주최하고 대구 EXCO와 한국프로사진가협회(PPK)가 주관하여 개최된 《대구 이미징 아시아전(Imaging Asia in Daegu)》(대구전시컨벤션센터, 2005.3.24.-27.)으로, 국제세미나·국제공모전·사진 기자재 전시회·사진 전시회·사진촬영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되었다.

98) 강운구(姜運求, 1941-) 경북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조선일보』 편집국 사진부를 거쳐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가담하다 해직됐다. 1965년 자유중국 《제3회 국제사진살롱》과 1967년 《제5회 동아사진콘테스트》에 입선했다. 대표적인 사진집으로는 『내설악 너와집』, 『경주 남산』, 『마을 삼부작』, 『강운구』, 『오래된 풍경』 등이 있다.

99) 에드워드 김(1940-2019). 본명은 김희중이다. 1960년 연세대학교 재학당시 도미하여 유학했고, 196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입사해 편집팀장을 역임했다. 1987년-1993년 『타임(TIME)』지 서울 특파원,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지냈다. 1974년 전미국제외기자단 『최우수취재상』, 1994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1999년 제1회 《이명동사진상》 등을 수상했다.

100)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의 기획전시로, 대구사진문화연구소 김태욱 소장이 기획을 맡아 대구봉산문화회관 제2전시장에서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최되었다.

조형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관주의 사진하셨던 분들, 특히 조형주의라기보다는 독일의 주관주의적 사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진들을 셀렉트 해서 각각 두 분씩, 리얼리즘 한 분, 주관주의적 사진작가 한 분, 이렇게 선정해서 두 분 릴레이 전시로 한 달 한 적이 있었습니다.¹⁰¹⁾

최: 그때 누구, 누구?

김: 그때 비엔날레.

최: 그때 2010년이지요?

김: 그때가 2010년이지요.

최: 그때 누구 선정하셨나요?

김: 그때 작가 선정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쪽에서는 구왕삼 선생님과 박영달, 배상하 또 한분은 누구더라....

강: 신현국?

김: 그때 신현국 선생님은 못 했습니다. 그때 한 분 누구였더라....

강: 내가 기억이 나는데....

최: 저희들이 찾으면 되구요.

김: 책이 있으니까요.

최: 하여간에 사랑회 쪽에 대표주자 네 분, 그리고 조형주의 쪽은 사우회 쪽이겠지요.

김: 그때 도주룡 선생님 들어가셨고.

최: 예? 도주룡¹⁰²⁾?

김: 도주룡, 아직까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이시기도 한데. 그때 안월산 선생님 사진 넣었고 또 누구 사진을 넣었더라, 도주룡 선생님 넣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최: 박달근¹⁰³⁾이나 김재수 선생이나 그 분들은 안 들어가셨나요?

김: 아, 김재수 선생님 사진 넣었었어요.

강: 김재수 선생님 사진 넣었어요.

최: 박달근 선생은 그때도 안 들어갔고요?

김: 박달근 선생님 사진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었는지, 박달근 선생님 사진은 안 넣었을 거예요.

강: 안 넣었을 거예요. 그때 박달근 선생님 원본이 없었거든요.

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박달근 선생님 사진은 사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퇴임하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학교에다가 작품 베스트 수십 점을 기증하셨는데 이것이 학교 측에서 보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품보관을 하다가 보관의 미스(mistake)로 보관이 조금 잘 안 되어서 인화지가 다 삭은 거예요.

강: 제가 듣기로는 그때 교장 하시던 분이 사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사하는 도중에 장마철

에 물에 잠겨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김: 그래서 그때 제가 살렸다기보다는 액자를 오픈하지 못 할 정도, 그대로 보고 그 액자 상태에서 사진이 삭아서 떨어져 버린 부분들 그러니까 빈티지를 내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박달근 선생님 사진은 못 했었죠. 그때 전시회 할 때 윤현수¹⁰⁴⁾ 회장이 와서 구왕삼 선생님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살짝 꺼내시더라고요.

최: 예. '구입할 의사가 있다.'

김: "빈티지가 얼마쯤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크게 구매를 하지 않을 테니까 타진을 한번 해 봐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딱 한 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전달하고 유족 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 사진 꼭 팔아야 되나" 고민 쪽 하고 계시다가, 한참 뒤에, 몇 번을 개인적으로 윤현수 회장님이 연락을 하셨나봐요. "김 선생님, 자꾸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가 빈티지 가져가기 전에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작품 그러니까 프린트, 윤현수 회장은 빈티지만 구입을 하셨고.

최: 동강 쪽은 모던프린트더라고요.

김: 그러니까 동강은 필름 프린트까지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빈티지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은 리프린트를 해서 빈티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은 하나 이렇게 해서 동강 그렇게 가져가고....

최: 윤현수 회장님은 그때 몇 작품 정도 구매하셨는지 모르세요? 박영달 선생 것과 구왕삼 선생님.

김: 박영달 선생님 것은 작품 구입을 안 하셨고.

최: 구왕삼 선생님 것만, 그때 한 몇 점정도 하셨나요?

김: 색깔 바랜 것은 다 가져가셨다고 했습니다.

최: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 전시했던 것은 다 가져가셨군요?

김: 예.

최: 그때 몇 점 거셨어요?

김: 두 번에 걸쳐서 다 구입을 하셨어요.

최: 그러니까 조형주의, 사실주의, 그때도 다 가져가시고, 2008년 것도 다 가져가시고?

김: 그것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최: 2008년, 2010년 기획전도 하셨으니까.

김: 하여튼 그 사진들 전부 다.

최: 그리고 2022년에는 장진필 선생님 기획전 하셨지요?

김: 장진필 선생님, 김일창 선생님 또 배상하 선생님 그리고 권정호¹⁰⁵⁾ 선생님.

최: 그 전에 《대구사진비엔날레》에 그 일환으로.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104)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진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부산에 제비꽃사진 갤러리를 개관에 운영하면서 사진을 수집했다. 한국저축은행장을 지냈고 불법대출과 횡령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105) 2021년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초대전시 일환인 《대구사진사 시리즈II》전은 배상하, 신현국, 권정호, 김일창, 장진필의 그룹전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12, 13전시실에서 9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었다.

김: 선정기준은 제가 전부터 선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비엔날레 측에서 준비한 작가분하고, 이분들만 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야기가 부족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만들고, 또 하나 기준은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작가 분들 생각은 최근의 작품들을 작품전시회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지 말고 우리 작가님들 초기작품을 굶어서, 왜냐하면 이 기회가 아니면 그 분들의 초기작품을 다시 볼 기회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이 작품을 꼭 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제가 접촉을 해서 "선생님, 초기작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굳이 꼭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셨거든요.

최: 원로 작가들이 초기작 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특이한 콤플렉스를 갖고 계시죠.

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설득을 했고. 그래서 초기 작품들 위주로 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추후에 핵심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포트폴리오는 또 따로 있으시니까. 그분들 작품은 그 이후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초기 작품은 아마 연세들도 많으신데 착고하시고 나면 아마 어디 가서 찾기 힘들 거다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최: 그리고 2009년에 《구왕삼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사진전》¹⁰⁶⁾을 동강사진박물관하고 같이 추진하셨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기획하신 것이지요?

김: 그때 제가 마침 2008년도에 《대구사진의 선각자》 전하고 우연치 않게, 그때는 제가 제 적등본을 보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1909년생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100년쯤 되는데 그러면 '100주년 기념전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빈티지 전부 다 하고, 사진 프린트, 그러니까 모든 프린트를 다 해서 봉산문화회관 1전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최: 2009년도 것도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하셨잖아요?

김: 아니요. 그 동강사진박물관은 그 전시하고 난 이후에 컨택이 와서 간 거예요.

최: 봉산문화회관에서 탄생 100주년을 하신 것을 보고서 동강사진에서.

김: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간 것이지요.

최: 그래서 또 동강사진박물관에서 그것을 또 컬렉션 하셨고.

김: 그것이 가져가는 조건을 달았었지요. 아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최:** 정순우 학예사.} 네. "너무 좋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최: 김태욱 선생은 2001년부터 정말 오랜 세월 대구 지역사진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2001년에는 '열린사진문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대구사진사 관련 자료집을 출판하셨고요. 2007년, 2008년에는 '마야사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구 사진문화연구소라고 해서 『대구사진사V』 권까지 출간하셨는데, 10년 사이에 세 번이나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열린사진문화연구소는 제가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열린사진문화연구소 『대구사진사』를 낼 당시에는 멤버들이 많으셨지요. 이용환 교수님부터 해서 저랑 동명이인인 김태욱 선생, 석재현 선생 등등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최: 그때는 김태욱 선생님은 여기 멤버가 아니셨어요?

김: 멤버 맞습니다. 저도 멤버에 참가를 해서 책을 그때 일 권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제가 신현국 선생님 파트였었고.

최: 그때는 작가마다 담당하신 분이.

김: 담당하신 분이 다 따로 있으셨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 한 권 내는데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 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내고 멈췄다가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이야기인데, "대구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니까 너가 하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셔서 고민을 조금 깊게 하다가 '새로 하는데 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름 하나 넣어야 될 건데 무엇으로 할까?' 그러다가.

최: 그러니까 열린사진문화연구소는 해체가 됐고.

김: 네. 그 당시에는 해체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름 하나 만들까?'해서 대구사진이 한국사진의 어떤 모태가 되는 근본도 되는데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마야(maya)'를.

최: 힌두어 아니에요?

김: 맞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모친의 이름이십니다.

최: 모친의 이름이 마야예요?

김: 예, 어머니 이름이 마야인데.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그 이름을 썼는데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야, 마야가 뭐야? 마야가 뭐야?" 그러시길래, '아, 내가 이름 잘못 지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책 만들 때는 제가 비용을 다 대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등록을 하고 지원을 조금씩 받으면 책값 정도 조금 찍는데 도움은 되니까.

최: 그러면 대구시 문화과에서 지원을 했나요?

김: 그때 초창기 당시에는 그렇지요. 각 지역 문화재단이 만들어 지기 이전이니까. 문화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등록할 때 이름을 심플하고 간단하게 대구사진문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대구사진문화연구소로.

최: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신 거군요.

김: 개명을 했죠. 그것 때문에 몇 번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그러면 『대구사진사』 4권, 5권, 이것도 다 대구시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셨나요?

김: 그렇지요. 그것 아니었으면 책을 못 찍었지요.

최: 그렇지요. 제가 생각해 봐도 사업성도 전혀 없는 (다들 웃음) 책을 출간 한다 라는 게, 전적으로 대구시 문화과의 지원을 받으신 거군요?

김: 인쇄비 정도 지원받는 거죠. 나머지는.

106) 2009년에 개최된 《구왕삼 선생 100주년 사진전 1909-1977》전은 봉산문화회관에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 한 후 2009년 동강 사진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10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구왕삼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었다.

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김: 그것은 전혀 없죠.

강: 자비 자원봉사지요.

최: 그리고 강위원 선생님도 『대구사진80년, 영선못에서 비엔날레까지』¹⁰⁷⁾ 2013년에 정말로, 한 개인의 힘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을 하셨는데, 이때 어떤 기관이나 어떤 개인의 재정지원 받으셨어요?

강: 이것은 제가 어떻게 대구예총에서 『대구예술50년사』¹⁰⁸⁾에 사진 분야 집필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최: 아~} 위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 다니다 할 수 없이 말았는데... 제가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것은 김태욱 선생이나 이용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의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특히 최인진 선생님께서 최계복 선생님의 사진집¹⁰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대구에서 사진을 평생 해 왔으니까 주위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대부분 원고를 못 구하는 분들은 사모님들을 알고 또 김태욱 선생이나 미리 정리해 놓은 원고들도 있고, 이라서 흔쾌하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나? 페이지가 너무 넘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총에서 요구하는 분량의 일점 오배, 거의 두 배의 원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축소해 달라고 하길래 상당부분 축소를 했는데 축소는 글을 다시 줄이려고 하면 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 크기 줄이고, 챕터를 몇 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내가 그 원고 받으러 올 때에는 사모님들한테 또 그분들한테 “책 나오면 책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대구예술 1,000부 찍었는데, 내가 한 부 겨우 얻었는데 내가 드릴 수가 없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대구에서 디지털진흥원에서 전자책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했는데 1등으로 당첨이 되어서 500만원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자책 만들면서 거기 돈으로 편집하고, 그 500만원 가지고 출판을 했죠.

최: 그래서 아트지로 출판도 하시고요. (웃음) 2010년에 최계복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 그리고 사진집 출간이 권정호 씨와 최인진 씨에 의해 진행되는데,¹¹⁰⁾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최계복 선생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강: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 그것이 다 무산이 되었다고 하던데 자초지종을 좀 아세요?

강: 조금 압니다. 처음에 최인진 선생이 미국 최승언 씨를 만나러 갈 때 권정호 부장이 구미에 있는 동양산업 박용희 회장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았습시다.

최: 동양산업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강: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은 전일부터 들었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고.

최: 그런데 이 자금 지원을 하려면 최계복 선생님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사진계에서 어떤...
강: 제 생각에는 권정호 선생님의 {최: 개인적인...} 개인적인 친분으로 또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제법 많은 돈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4,000만원인지, 7,000만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 인터블고호텔에서 전시를 하고 작품집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어떤 경우에서 사진보관 문제하고 이런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진들을 《대구사진비엔날레》하고 연결시켜서 대구시에 기증할 움직임도 갖고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노(no)’ 했습니다.

최: 그러면 그 유족 측에서는 기념관을 요구하셨나요?

강: 아니, ‘노’ 한 이유가 《대구사진비엔날레》는 아무 바탕이 없었습니다. 받아도 수장고가 없으니까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협에 권정태라고 대구사협 지회장하고 최승언 씨, 그러니까 최계복 선생님의 {김: 둘째 아들.} 집안 [생질]인 정은규 신부님이 있었어요. 신부님하고 권정호하고 경북대학교 모 교수하고가 최계복 기념관을 만들자고 한참 회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권정호 선생님이 정신이 있었는데, 저보고 ‘전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들어봐도 전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은규 신부님은 또 거기에 최계복 기념관에 또 하나 보태서 뭐 하나 더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어서 그것을 전부 받은 [사진] 원고를, 그 나머지 사진은 프린트 했는지 잘 모르겠고, 받아온 [사진] 원고를 그때 안상호라고 『매일신문』 사진부장을 지냈는데 지금 대구중구문화원장, 대구도심개발위원장하는 안상호 대표가 최승언 씨 집에 그것을 갖다 주러 갔답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갖다 주러 갔더니 “이것 갖다 줄 것 없이 거기에서...”

최: 그러니까 미국으로 갖다 주러 갑니까? 전시회하고 그런 것을 다시 미국으로...
강: 전시회 한 것 아니고 원래 가져온 [사진] 원본.

최: 그런데 최승언 씨는 미국에 계시다면서요?

강: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안상호 씨가 갖다 주러 갔다고 합니다.

최: 그러니까 사진을 다시 갖고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강: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 어차피 한국에 『매일신문』 관계가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국현(국립현대미술관)으로 {최: 국현으로 연결이 된 거군요.} 네. 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김: 저는 거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도 아주 조금 관련이 있어서. 처음에 최계복 선생님의 작품을 기증받거나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기업인들이 대구 경북지역 내에서 조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 할 때 처음에는 각 유족 측에서 조금 그것을 반대하셨던 것 같고.

107) 강위원, 『대구사진 80년, 영선 못에서 비엔날레 까지』(도서출판 학이사, 2013).

108) 2012년 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0개의 회원 단체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사진부문의 대구사진작가협회 50년사는 강위원이 집필했다.

109) 사진역사연구소, 『영선못의 봄, 최계복 사진집』(문사철, 2009).

110) 2009년에 개최된 《최계복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사진전》(호텔 인터블고 엑스코 아르토갤러리, 2009.10.28.-11.5.)을 말한다. 사진문화연구소는 『영선못의 봄: 최계복 사진집』(문사철, 2009)을 출판했다.

최: 개인에게 컬렉션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김: 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거의 그렇게 강위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쪽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경에 이야기하셨던 정은규 몬시뇰(Monsignor) 신부님께서 기념관 말씀을 꺼내셔서 기념관을 대구에다 만드느냐, 경북 왜관에 만드느냐, 장소 2개를 놓고...

강: 왜관 분도 수도권이겠지요.

김: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새로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건물을 구입해서 만드는 걸로, 정은규 신부님 부친께서 독립유공자이신가 그래요.

강: 맞아요.

김: 그리고 또 교육자이시고.

최: 그러니까 최계복 선생님의 조카 되시지요.

김: 그렇지요. 정은규 신부님이 조카가 되시죠. 지금 학교 법인을 갖고 계세요.

최: 신부님인데.

김: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지금은 넘겨주셨다 하시던데요. 기념관을 만들면서 [최계복 선생님] 외삼촌 되시니까 "같이 기념관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가 대구 장소를 고민하셨던 것이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대구제일교회 옆쪽에다 그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기념관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건물 2개를 놓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하시다가 어떤 판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계복 선생님 기념관 만드는 것은 캔슬(cancel)을 하고 또 부친 기념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왜관에 건물을 구입하셔서 리모델링하고 기념관을 만들어 두시고, 그것 만드시면서 작품을 정은규 신부님이 국현으로 [기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최종적인 책임 역할을 정은규 신부님이 하셨거든요. {최: 예.} 그래서 매일신문사에 가져다주는 것도 아마 정은규 신부님의 허락이 계셨기 때문에.

강: 정은규 신부님이 부탁을 했겠지.

김: 예, 부탁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기증식에 직접 가서서 사진을 다 찍으셨더라고요.

강: 누가?

김: 정은규 신부님이...

강: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미국에 가니까 거기에서 한국에 다시 또 와서 정은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국현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최: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 그런데 대구미술관 측에서는 그것을 안 받으려고 했다던가?

강: 그러니까 《대구사진비엔날레》 쪽으로 연결이 온 것으로 내가 알아요. 저 사람들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이 대구문화예술회관 가기 전인데 수장고가 있나? 뭐가 있

나? 거기 받아도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건의를 하니, 대구미술관이라고 하니 대구미술관에서는 사진에 관심 없었어요.

김: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 사실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2차 인터뷰로 장진필 선생님, 양성철 선생님 쪽으로 미뤄도 될 부분은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강: 예. 잘 하셨습니다.

최: 오늘 장시간 동안 2시간 반 이상을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정말로 대구사진사의 전문가답게 저희 연구소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대구사진사와 대구사진교육사

제2차 구술인터뷰



일시 2023년 6월 9일(금) 오후 1시 40분 ~ 오후 3시 40분

장소 유지엄한미연구소

구술 장진필(張振弼, 1936~)

양성철(梁誠哲, 1947~)

면담 김소희(유지엄한미연구소 학예연구관)

구술자 약력

장진필 (張振弼, b.1936)

부산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1965년 계성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했고, 1968년 월산예술학원에서 안월산에게 사사후 YMCA광화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사진 활동을 시작했다. 1971년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에서 은상, 1975년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입상하는 등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고, 첫 개인전을 1972년 대구백화점화랑에서 개최했다. 1978년부터 2001년까지 계명문화대학교 사진영상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사진교육학회(현 한국사진학회)와 영남사진학회(현 현대사진영상학회)를 창립했고 각각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동아일보사 주최 《동아국제사진살롱》의 심사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 지부장, 대한사진예술가협회 대구지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6년 사진집 『장진필 사진작품집』을 출간했다.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는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예술의 전당, 1994), 《남북합동 사진교류전》(세종문화회관, 2001),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초대전시 《대구사진사 시리즈 II》(대구문화예술회관, 2021) 등 다수가 있다.

양성철 (梁誠哲, b.1947)

1970년 영남대학교 상경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을 졸업했다. 1974년 대구사진연구회, 1975년 한국사진협회(현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하며 본격적으로 사진 활동을 시작했다. 1977년, 1978년 《제26-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작업〉과 〈청년 조국〉으로 연이어 입선했으며,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목언사진연구소와 목언출판사를 운영했다. 이후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산업정보대학(현 수성대학교) 사진영상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남사진학회 회장, 한국영상미디어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06년 《대구사진비엔날레》 창립 시기부터 2016년까지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사무국장, 운영위원장 등과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심의위원(2016-2020)을 역임하면서 대구 예술계의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는 《한국사진 역사전》(예술의 전당, 1998), 《제4회 대구사진비엔날레》 특별전 《대구현대사진의 여명》(대구문화예술회관, 2012) 등이 있다.

김: 오늘은 대구사진사 구술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진필 선생님, 양성철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진필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장: 저는 대구 계명문화대학 사진과 교수로 정년을 하고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촬영을 하는데, 촬영하는 그 자체가 나의 생활이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돌아다니면서 [촬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전부 사진에 이용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추상미술의 한 가지로 새로운 이미지 사진을 위한 밑그림 스케치로써 해야 되고, 다양하게 이미지 사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100%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나는 사진가로서의 아직까지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에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네. 양성철 선생님.

양: 저는 대구에 사는 양성철입니다. 대학에서 사진 교수 생활도 했었는데 주로 찍고, 발표하는 것을 더 중시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도 도와주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 네. 두 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사진계를 대표하는 원로 사진가 중에 구왕삼 선생님이 계십니다. 구왕삼 선생님은 동요 작곡을 하셨고, 음악 평론도 하셨고, 1940년대에는 사진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대표작들도 많이 남기셨고요. 1950년대 이후에는 사진 평론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구왕삼 선생님의 어떤 구체적인 이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구왕삼 선생의 이력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양성철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요?

양: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말고는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도 구왕삼 선생님을 처음 [사진] 할 때는 뵈었습니다. 이 [사진]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좌익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지 않았고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깐 그분도 아니라고 해서 구술을 하나 적어왔는데 지금 바로 이야기할까요?

김: 예.

양: 김일창¹⁾ 교수님이 저한테 메모를 줍니다.

김: 메모를 하신 부분이요?

양: 예. “사회주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는 ‘60년대 및 ‘70년대 말까지 교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사진평에 있어서 너무나 리얼리즘을 주장하시는 분이어서 오해를 많이 받으신 걸로 압니다.” 제가 6월 7일 [김일창 교수님으로부터 이 메모를] 받았습니니다.

김: 저희가 사전 질문에 구왕삼 선생님의 어떤 좌익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²⁾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사하신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김소희

장: 장진필

양: 양성철

1) 김일창(金一昌, 1940-).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 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사진전공으로 졸업했다. 1965년 한국사진협회(현 한국사진작가협회), 1968년 사월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1967년 프랑스 《제11회 남트국제사진살롱》 입선을 시작으로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의 입상작을 남겼다.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에 사진과 교수를 역임했다.

2) 구왕삼의 좌익 활동에 관한 언급은 강위원, 김태욱과 진행한 제1차 구술인터뷰 45-46 참조.

양: 예, 그렇습니다.

김: 장진필 선생님은 따로 아시는 바는 없으세요? 구왕삼 선생님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장: 그런데 구왕삼 선생님은 제가 만나서 대답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좌담을] 했는데 (면담자의 판단에 의해 질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삭제)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냥 뭐든지 배우고 싶은 그런 뜻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이 뚜렷하게 있으면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만나서 자주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런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의 깊은 어떤 대화는 가지지 못하고, (중략) 또 그분들이 사진에 자기 분야에서 완전히 전공하고 뚜렷하게 자리 잡은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저 길로 나아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저도 더 깊이 대화도 못 해 봤고...

김: 대구사진계에 주요 사진모임이 대구광화연구회³⁾가 1953년에 창립이 되고, 대구사우회가 1954년에 발족됩니다. 이 두 사진 모임이 뒤로 가면서 서로 굉장히 반목하게 되는데,⁴⁾ 이 두 사진 모임의 실제적인 힘의 역학 관계가 어떠했나요?

양: 대구사우회하고 사광회 양쪽이 서로 주장하는 스타일이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목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철저히 원수지간으로는 보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리더되는 분들은 서로가 조금 반목할지 몰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쪽도, 저쪽도, 양쪽 다 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크게 없고,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철전지 원수 같은데 사실은 서로 보고, 만나고, 물론 잠시 동안은 아주 원수가 될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또 화해되고...

김: 특정한 몇 분이 강하게 서로에 대한...

양: 양쪽에, 소위 말하면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 체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머지는 그런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 서로 교류도 하셨네요?

양: 저도 그 사이에 있어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장: 그런데 양 교수 이야기처럼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여기에 속했으니까 여기에서 동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쫓겨나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구가 양대 사우회하고 사광회로 갈리는 것은, 사광회는 매일신문사 위주로, 신현국 선생님이 위주로 모이는 팀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리얼리즘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우회는 살롱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차라리 저런 것보다는 살롱적인 사진이 좋다.’ 싶은 사람들은 또 거기서 모여요.⁵⁾ 우리가 사진 할 때가 ‘60년도이니가 ‘60년도에는 현상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현상소 위주로 해서 모여요.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뭐도 하고 ‘누구 나쁜 놈, 누구 좋은 놈’ 이런 욕들도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들고 ‘아, 어려운가보다. 아, 나는 그러면 이쪽에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이쪽에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서만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국제사진콘테스트가 대구에서 처음 생겼지만⁶⁾ 그 전에 작가들은 주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일창 교수가 외국의 사진살롱전에 작품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로를 몰라서 못 부치고 했는데, 하여튼 입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도 억지로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작품을 보냈더니 한두 점 입선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구태여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국제전은 안 내고, 그저 국내의 작품만 치중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작가들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그 위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해줄 사람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업자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경우로서는 결국은 공모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전》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중에 한 예로 뭐가 있는가 하면, 서울교육청에 한 분이 그냥 말단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분이 ‘66년-’67년도인가 그때 《국전》에 작품을 내니까 입선이 되었어요. 입선이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 승진이 되어서 계장급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국장급으로 해서 정년까지 한 분인데, 그 당시에 《국전》에 입선만 해도 {김: 위상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말씀이시죠?}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제로 [직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내가 알기로는 《국전》에 특선만 해도, 특히 장관상을 탄다고 하면 대학교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요. 그 당시 사진에는 서라벌예대하고 중앙대학이 그때 갓 생겼어요.

김: 네. ‘64년에 서라벌예술대학교가 생기고요.’

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작품만 했지, 어디로 옮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살롱이 많이 되느냐 또 리얼[리즘]과 생활상 사진이 많이 되느냐가 좌우됩니다. 심사위원도 보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 때 되면 서로 그것을 따오려고, 그래야 자기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양: 대구사우회하고 사광회 대립의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구왕삼 선생하고 김태한 선생하고의 논쟁이 크거든요.

김: 예. 격렬한 논쟁이 있었죠.

양: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고 했는데.

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양: 자꾸 놓친 것 같아서... 그 사건이 나고, 입건되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수습이 되었어요.

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1962년에 대구사광회에 김영민⁸⁾ 선생이 고소를 함으로써 대구사우회에 김태한 선생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잖아요.⁹⁾ 이게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6) 1963년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은 대구에서 《제2회 신라문화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내 최초의 국제사진공모전이다. 해당 전시는 경북공보관화랑에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중앙공보관에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공보관에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순회전으로 개최되었다.

7) 1964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 2년제 주간대학에 사진과가 창설되었다. 1972년 2월에는 서라벌예술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에 사진학과가 추가로 신설되는데 그해 6월 학교법인 서라벌예술학원이 중앙문화학원에 인수, 합병되었고, 1974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로 개명되었다. 서라벌예술초급대학의 2년제 사진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78년 서라벌예술초급대학이 폐교되면서 폐과되었다.

8) 김영민(金榮敏, 1913-1992). 경상남도 진주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구사광회,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대구광화회의 회원으로 사진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60-70년대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고, 1973년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966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1975년까지 다섯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1974년 사진집 『생의 찬미』를 발간했다.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9) 김태한이 1962년 7월 20일 자 『대구일보』에 「상반기 경북문화의 자취 - (사단)갈등과 의욕의 쌍곡선」이란 제목의 시평에서 김영민이 해외공모전 입상을 허위 선전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반발하며 김영민이 김태한을 고소하자 김태한이 대구교도소에 투옥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김태한은 대구사우회 조상민과 안월산이 적부심사를 도와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이용환, 『김태한』, 『대구사진사 1 인물자료집』, 열린사진문화연구소 편찬(한국사진자료실 포토하우스, 2001), 62.

양: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잘 마무리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들었고.

김: 그때 이후로는 그러면 두 사진 서클의 관계가 좀 나아졌나요?

양: 아주 소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는 안 보고 할 일은 없고 또 사진협회 총회 같은 데서 같이 자리도 하고 하니까...

김: 그때 당시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논박을 주고받았어요. 한 5년간 그게 이어지게 되는데요.¹⁰⁾

양: 처음에는 그래도 논지가 있었는데. {**김:**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인신공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김영민 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예요.

김: 그런데 그 과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양: 여러 사람들이 가운데서 중재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 그러면 그때 당시 아마추어로 활동하시던 사진가 분들의 처신이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거든요.

양: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잘 봤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냥 재미있게 봤대요.

김: 재미있게 봤다. (웃음)

양: (웃음) 하여튼 과장인지 몰라도.

장: 그런데 그때 일반 사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종 관계하고 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다투니까 ‘야,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결과가 날까?’ 또 그 당시는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사진에 관한 책이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가 거의 어려웠어요. 그저 일본 『아사히카메라』¹¹⁾ 이런 데서 사진을 보고 ‘야, 이런 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결말이 어떻게 날까?’

김: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군요.

장: 그런데 이분 이야기하면 이분이 맞고, 이분 이야기하면 이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뭔가 하면 ‘아,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서로 따지고 일어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면 도토리 키 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진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서 상당히 무엇인가를 많이 얻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가끔 있어주면,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있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김: 당시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논박들을 보면 지나친 표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과격함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1966년 혹은 1967년에 구왕삼 선생이 《시사전》이라는 개인전을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개인전의 장소가 어떤 분은 전주라고 하시기도 하고, 광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¹²⁾ {**장:** 그렇지. 광주로 가서} 그런데 저희가 1차 자료를 확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혹시 구왕삼 선생님의 개인전이 거주지인 대구가 아니라, {**양:** 대구는 안 하고...} 다른 도시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개인전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왕삼 선생님이 남의 전시를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보니까 사진에서는 대구에서 못하는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김: (구술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요?

양: 남 사진을 그렇게 모질게 비평한 상태에서 대구에서 전시를 하기에는 적이 너무 많아요.

김: 사진계에 적이 많아서요?

양: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많았어요.

김: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관계의 사진가들 때문에 대구에서는 못하시고 다른 지방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양: 진주는 자기 고향이라고 한 것 같아요.

김: 진주가 고향이시라고요?

양: 예, 거기에서도 하고, 광주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이 선생님의 개인전 관련해서...

양: 포항도 했습니다.

김: 포항도 했고요. 그러면 대구사진계에서 어떤 숙덕공론 같은 것은 없었나요?

양: 그것 말고는 잠깐, 대구에서 전시회를 겁나서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김: 그 점이 좀 의아해서요. 구왕삼 선생과 안월산 선생은 동년배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인간적인 관계는 혹시 어떠했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양: 내가 알기로는 둘 사이가 조금 먼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장: 그 당시에 나이에 연연해서 서로 연결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왕삼 선생님은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사진작가들한테 독설적인 어떤 그런 계통으로 많이 지도를 했어요. 안월산 선생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또 구왕삼 선생님은 어디 몰려서, 같이 모여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되고, 안월산 선생님은 어쨌든 나무가 큰 나무이니까 그 밑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대구사우회를 할 적에도 대구사우회가 그 전, 그 전에도 있다가 그것이 맥이 끊기고 전혀 다르게 탄생했거든요.¹³⁾ 그런데 대구사우회가 내년이 70주년이 되고, 한국 최장의 회로서 지금 남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사광회¹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인 것이 아무리 잘해도 2등 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장수 회인데도 사광회가 사우회한테 밀리니까 모든 것은 사우회가 대표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사우회도 왜 그런가 하면 살롱적인 사진

10) 1958년 사진 경향에 대한 관점 차이로 시작된 구왕삼과 김태한, 1959년 12월 구왕삼과 강영호 사이의 논쟁, 1960년 10월 순수사진과 영업사진 구분에 대한 김태한과 강신율의 논쟁, 1962년 8월 김영민과 김태한의 고소 사건 시비, 1963년 7월 비평 태도에 대한 김재수와 배상하의 논쟁 등 1958년부터 1962년 사진가들 사이에 서로를 비판, 비방하는 논박이 5여 년 간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자료집 ‘참고 자료’참고.

11) 『아사히카메라(朝日カメラ)』. 일본 아사히신문사에서 간행하는 사진 전문 월간지이다. 1926년 4월 창간했고 1942-1949년 휴간한 이외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간행된 사진 잡지이다. 부수 침체 등으로 2020년 6월에 휴간했다.

12) 구왕삼은 1966년 전라남도 광주목포에서 1967년 경상남도 김해와 진주에서 시와 사진을 접목시킨 개인전 《구왕삼시사전》을 개최했다. 제1차 구술인터뷰 각주 62번과 도판참고.

13) 1947년에 결성한 대구사우회는 한국전쟁으로 해산되었다가 1954년에 안월산이 회장, 최계복을 고문으로 하여 재결성했다.

14) 1950년대 이전의 대구사광회와 대구사우회에 관한 활동 사항은 자료의 부재로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일간지 기사자료를 참고하면, 《대구사광회의 제7회 월례회》는 1947년 3월에 열렸고 《대구사우회의 창립 작품전》은 1947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공회당에서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두 단체가 1947년 전후하여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광회월례회 특선에 홍사영 씨』, 『영남일보』, 1947년 3월 20일; 『대구사우회 사진전 개최』, 『경북일보』, 1947년 10월 18일 참조.

이고, 사광회는 신문사 위주의 뭐라 그럴까...

김: 리얼리즘 경향.

장: 리얼적인 그런 사진으로 나가서 분리되었는데 재력이 사우회 쪽으로 밀리니까 사우회가 번성하게 되었지요. 또 안월산 선생님이 《국전》에 가끔 심사도 가시는 거예요.¹⁵⁾ 그러니까 거기서 더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따지면 안월산 선생님과 구왕삼 선생님과 만나서 차 한 잔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안월산 선생님은 밑에 사람들이 많았고, 구왕삼 선생님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모여서 따르는 사람이 내가 볼 적에는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김: 배상하 선생님과 구왕삼 선생님이...

장: 배상하 선생님은 결국 매일신문사 처음에 촉탁(囑託)으로 갔지요?

양: 예.

장: 촉탁으로 가서 그 당시에 신문사는 촬영 원고를 많이 해주면 그것으로 인정받는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현국 씨하고 연결되고... 그런데 신현국 씨하고 배상하 씨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지만 구왕삼 선생님은 또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봐요.

양: 맞습니다.

장: 그러니까 결국은 신현국 씨하고 같이 합쳐버렸으면 위상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구왕삼 선생님은 구왕삼 선생님대로 완전히 독자노선을 걷는 식으로 되고,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볼 적에는 별로 없다고 봐요.

김: 그런데 사광회가 '55년에 결성될 때 구왕삼 선생님 그다음에 박영달, 그전에 홍사영¹⁶⁾, 신현국, 김영민, 김갑연, 배상하 선생님이 같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양: 그렇게 하다가 배상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는 신문사 사진부도 신현국 선생님이 맡았고, 사광회도 신현국 선생님이 맡았고 그래서 신현국 사단이 되었지요.

김: 안월산 선생님은 그러면 '54년에 대구사우회를 재결성할 당시에는 어쨌든 최계복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고.

양: 예.

김: 또 구왕삼 선생님과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걸으셔서 개인적인 친분까지는 모르시고요. 안월산 선생님이 한림화섬주식회사를 설립하시고 기업가로서 활동을 꽤 활발히 하시면서 경제력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양: 그래서 사진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김: 공헌을 하셨다고요?

양: 예.

15) 안월산은 1971년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의 사진 부문 심사위원, 1972년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의 사진 부문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16) 홍사영(洪思永), 1948년 《제2회 조선예술사진전람회》, 1949년 《전국산업사진전람회》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대구사광회, 경북사진문화연맹, 한국사진작가단에서 활동했다. 영광당(永光堂) 사진관을 운영했는데, 신현국을 비롯한 사광회 회원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명동의 회고에 따르면 브라질로 이민했다.

장: 그때 여담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로 방직계통, 대신동 가는 그 지역이 방직 그거를 사무실 하나만 챙겨놓고, 전화로 받아서 전화로 해서 옮겨주고, 이런 것으로 번성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벌고 나니까 뭘 하고 싶냐, 조금 색다르게 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니까 그때 또 많은 여자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지요? 이러니까 거기서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몰린다고 하면 어디를 가느냐?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 제일 큰 신형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부대 있잖아요. {양: 할리[데이비슨]} 거기가 뭐라고 할까, 사진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뒤에 멧있는 아가씨들 태우고 촬영한다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하려면 그런 식으로 촬영했던 시기이니까 결국은 재력 없고, 그다음에 그런 용기 없으면 결국은 위축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설수가 있게 마련인데, 어쨌든 안월산 선생님도 거기에 상당히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데 사우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월산예술학원¹⁷⁾을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나서 어쨌든 육영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68년도에 거기에 사진반을 만들어서 사진 교육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입학생] 1호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김태한 선생님, 강영호¹⁸⁾ 교수님, 신현국 선생님, 그다음에 등산가인 최억만 씨라고 있어요.¹⁹⁾ 이분이 와서 한번 강의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시설이 너무 초라해요. 초라해도 배울 데는 거기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을 받은 곳이다...

김: 당시에 그러면 아마추어로서 사진가로 활동을 하려면 이런 사설 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어쨌든 배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나요?

장: 그때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개인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서클에 모여서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그것이 공부이고 했는데, 정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데도 거기에 강사 나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아주 전공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분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김: 당시에 그러면 월산예술학원의 사진과에 강사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장: 월산예술학원에는 강영호 박사님하고, 김태한 선생님하고, 부산에 정인성²⁰⁾선생님 그다음에 최억만 씨, 이렇게 했는데 정인성 씨라든가 그다음에 안월산 선생님은 '70년도 전 후에 《국전》 심사를 자주 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모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오면 사진하는 사람들이 또 그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도 만들고 이러니까 대구를 참 좋아해요. 이런 결과로 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고 보고, (양성철을 바라보며) 강위원 교수도 월산 거기 나왔지요?

양: 출신 맞습니다.

장: 그런데 내가 1호인데, 그 뒤에 몇 년까지 계셨다는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김: 안월산 선생님도 직접 가르치셨나요?

17) 월산예술학원은 1965년 예술전문교육기관을 목표로 개원했다. 1층은 점포, 2층은 사무실과 사진 강의실, 3층은 화랑, 4층은 미술 강의실로 4층의 건물로 마련되었고, 이듬해 무용과 증설 허가를 받아 사진, 미술, 무용의 3과를 설치했다. 재정을 지원하던 한림화섬이 어려워지자 1971년 운영난으로 폐원했다.

18) 강영호(姜榮浩, 1928-1989).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53년 최계복의 한국사진예술학원에서 사진광학을 강의하면서 사진교육을 시작했다. 대구사우회, YMCA광화회에서 활동했으며 1950년대 전후 호주, 미국 등 해외 공모전에 다수 입상했다. 1972년 한국사진협회 이사, 1979년 한국사협 대구지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1960년에는 자신의 신체를 소재로 삼은 〈나〉 시리즈를 제록스기계를 이용해 제작했는데, 이를 '제로그래피(Xerography)' 기법이라 칭했다.

19) 제1차 구술인터뷰 각주 57번 참조.

20) 정인성(鄭寅晟, 1911-1996). 일본 동경사진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 월산사진연구회를 조직한 후 1937년 부산여광구락부에 입회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이후 1949년 《제2회 한국향토문화사진전》, 1954년 일본 아사히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4회 국제사진살롱》컬러 부문 등의 국내외 사진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다. 부산대학교와 동이대학교 등에서 사진학을 강의했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지에 20년간 사진 칼럼을 기고했다. 1971년 첫 번째 개인전 《정인성사진전》을 개최했고 1980년에 첫 사진집 『정인성사진집 1936-1975』를 출간했다.

장: 어디요. 나는....

김: 안 가르치시고?

장: 월산예술학원에서 내가 사진을 가르치지는 않았고....

김: 아니요, 안월산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나요?

장: 안월산 선생님은 강의를 하실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사진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저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김: 그러면 안월산 선생님은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바탕을 통해서 사진계에 공헌도 하시면서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양: 예, 그렇습니다.

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가 '61년도에 대구사진학원이 있었어요.

김: 대구사진학원이요?

장: 학원.

김: '61년도라고.

장: 그래서 나도 그것을 작년에....

양: 문화동 옛날 동아백화점 근처에?

장: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그것은 원고 하면 인상사진을 하는, 사진학원이라고 하는데 그 원장하고 이름까지는 내가 다 찾았는데 그분에 대한 뒤에 거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영업사진을 가르치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거기 1호로 졸업한 사람 수료증을 내가 찾아서 카피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본다고. 그런데 그거는 사진학원이, 이름은 사진학원이지만 영업사진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어쨌든 영업이든, 작품이든 간에 제일 먼저 '61년도에는 최계복 선생님 사진학원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다....

김: '56년에 최계복 선생님의 한국사진예술학원이 폐원이 되고요. 그러면 안월산 선생님의 월산예술학원이 '65년에 생기는데 그 전에 1961년도 그 사이에 대구사진학원이 있었다?

장: 아, 그렇지. 그거를 내가 작년에 찾았어요. 그 나머지를 더 찾아보라고 내가 김태욱 씨한테 했는데, 뭐 어떻게 찾았다는 이야기를 아직 내가 못 들었어요.

김: 그러면 월산예술학원은 왜 폐원이 되었나요?

장: 뭐가요?

김: 월산예술학원이 폐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양: 모기업의 경영난. 안월산 씨가 하는 기업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 그런데 사업가는 하루아침에 가기도 하잖아요. 하도 그 학원의 학생들이 무용까지도 있었어요. 조교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자기 생활비로 주고, 이쪽으로는 돈을 안 주고, 그래서 한번 상당히 애를 먹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투자를 안 해주니 기껏 해봐야 강사비하고 해 본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손을 놔 버리고, 사모님이 강하게 반대를 해버리니....

김: 김태욱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강상규²¹⁾선생과의 인터뷰 그리고 장진필 선생님께서 집필 하셨던 『빛과 함께한 인생』이라는 책에 따르면, 제가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호 박사, 정인성 선생 등 몇 분씩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외에는 내가 지도를 했다.”라고 [강상규 선생님] 말씀하셨고요.²²⁾ 그리고 “광화회에서는 강상규, 신태래와 함께 모임을 가졌고, 매년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강영호 교수를 광화회의 고문”으로 모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²³⁾ 이처럼 월산예술학원과 운영기간이 비슷한 시기인 1967년에 대구 YMCA의 사진 서클인 광화회의 활동 그리고 광화회의 사진 세미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클은 단순히 사진 모임을 넘어서서 어떤 활발한 사진교육 활동을 했는지, 주요 활동 그리고 강사진 그리고 대구사진계에서 대구 YMCA광화회의 위상은 어떠했나요?

장: 그런데 광화회는 우리가 YMCA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상규, 신태래, 저, 이렇게 해서 전부 YMCA에 관계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YMCA 내에 사진반을 만들자.” 이것이 '68년도에 완전히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YMCA 회원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수시로 토론회 비슷하게 자기가 아는 정도의 사진에 대한 공식적인 강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답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71년도 《건축 및 사진 전람회》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입선하기도 어려웠어요. 특선하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대구광화회에서 금상, 은상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²⁴⁾

김: 1971년 《제1회 건축 및 사진전람회》요.

장: 《건축사진전》에 강상규가 설악, 북악산으로 해서 대상을 가져오고 그래도 그것은 전부 장관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내가 은상을 하고. 그러니 별로 이름도 없던 대구에서 전국에는 《국전》에 한 서클에서 두 상을 가져와 버리니까 대단한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더 결속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특히 또 YMCA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국전》에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운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 상을 가져오고, 그때 또 장관상이 세 사람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홍순태²⁵⁾ 교수가 장관상을 하고, 이러니까 입선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느냐, 이래서 우리의 위상은 참 길이가 남을 어떤....

김: '71년 이후에는 [그 위상이] 확 올라갔나요?

장: 그것으로 해서 “사진으로 우리가 진짜 발로 뛰자.” 하는 계기도 그때 되었다고 봐요.

김: 선생님, '71년도 당선작 제작하실 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장: 어느 거를?

21) 강상규(姜相圭, 1936-). 1960년대 구왕삼에게 사사했고, 신사회 활동과 함께 사진에 입문했다. 《U.S. 카메라콘테스트》, 《제1회 동아국제 사진살롱》 등 1963년부터 다수의 국내외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1968년에 대구 YMCA광화회를 결성하면서 회장직을 역임했고, 1971년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계명전문대학, 대일실업전문대학 등에 출강했고, 대일실업전문대학에서 초대학과장을 역임했다. 1976년에 한국의 사진사를 정리해 최초의 사진통사 『한국 사진사』를 출판했다.

22) 강상규는 광화회 활동 당시 창립전과 전시 및 세미나를 매년 개최했다고 술회하며, “강영호 박사, 정인성 선생 등 몇 분씩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외에는 내가 지도하고 그랬지요.”라고 언급했다. 박다실, 『강상규 선생님 인터뷰』, 『대구사진사』 인물자료집, 『마야사진연구소 편찬 (도서출판 가람, 2008), 146.

23) 장진필, 『장진필(張振弼)의 빛과 함께한 인생: 1936년생 장진필 자술생애사』(다온미디어, 2015), 111.

24) 문화공보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국립공보관, 1971.9.1.-9.20.)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사진과 건축을 분리해 개최한 첫 번째 전시로, 사진 부문에서 강상규는 〈북악설경〉으로 대상을, 장진필은 〈물놀이〉로 은상을 수상했다.

25) 홍순태(洪淳泰, 1934-2016).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교사로 재직 중에 백영사우회에서 활동했다. 1968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특선 입상을 시작으로 《동아사진콘테스트》 등에서 다수 입상했다. 1978년 개인전 《투시》를 개최했고 이후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1982년 첫 작품집 『아메리카』를 출간했다. 신구전문대 사진과 교수로 근무했다.

대구매일신문사 주최 1955년 《제1회 어린이사진공모전》 공모 기사, 『대구매일신문』, 1955년 3월 16일. 제공: 매일신문사.



김: '71년도 상 받으신 <물놀이> 사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장: <물놀이> 하는 것 있잖아요. 물놀이 하는 것이 '71년도이고, '75년도에는 기도하는 장면, 나는 장관상을 두 번 타게 되었지요.²⁶⁾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이사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못하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우리는 감투라고 하는 이것은 거의 모르고, 취미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에 몰두하게 된 것이지요.

김: 1950년 『경향신문』에서 《어린이사진공모전》이 있었어요.

장: 어린이사진은 『매일신문』이잖아요.

김: 그 전에 '50년에 『경향신문』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1956년 5월에 『매일신문』이 주최해서 《어린이 사진공모전》이 50여 년 지나서 지속되거든요.²⁷⁾ 본 공모전의 개최, 사회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이 행사가 이렇게 한 세대 이상 지속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양성철 선생님?

양: 매일신문사의 능력이고, 신현국 선생 능력이지요.

김: 신현국 선생님.

양: 그분이 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대단하게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년 5월 5일 되면 『매일신문』에 입선작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김: 이것이 어떤 지역 안에서의 큰 행사였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양: 전국 행사입니다.

김: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행사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양: 예.

김: 이렇게 50년 이상 지속된 행사는...

26) 장진필은 1971년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에서 <물놀이>로 은상을 수상한 후 1975년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 부문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다.

27) 매일신문사 주최로 시작된 《어린이 사진공모전》은 1955년 5월 처음 실시되었다. 당시 사진부장이던 배상하의 주도로 진행되어 매일신문사의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어린이사랑 다자녀가족 사진·UCC 공모전》으로 지속되고 있다.

28) 『매일신문』은 1980년 11월 정 부에서 시행한 언론 통폐합 정책에 따라 『영남일보』를 흡수하고 12월에 『대구매일신문』으로 지명을 변경했다. 『매일신문』 제호에 대해서는 1차 구술 인터뷰 각주 73번 참조.

양: 지금도 합니까?

김: 한 2~3년 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그것이 다 『동아일보』 사진 동호회처럼 거기에도 동호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상하면 회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신문사기자협회에서 신분증 주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하나 하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해서 더더욱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진필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직접 수상도 하셨잖아요.

장: 예, 그런데 동아일보사가 우리 한국사진의 대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으로는 매일신문사가 지방에서 대부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역사가 '50년대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근래까지는 내려왔다가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협 이사장이라든가, 다른 중진들도 거기 출신들이 많습디다. 그 당시는 서울, 지방, 이런 데 전시가, 공모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더 들어가려고 애를 썼을 때예요. 그래서 신현국 선생님이 이명동 씨, 『동아일보』하고의 유대가 그래서 더 깊어질 수도 있었고, 또 이명동 씨가 구미 사람인데 오면 술친구로서 대구에 자주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 (정정하며) 성주 사람. 이명동 씨가 경북 성주 사람이예요.

김: 그러니까 초창기 『매일신문』이 《어린이 사진공모전》을 주최할 당시에는 [배상하 다음으로 사진부장을 지낸] 신현국 선생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양: 그렇지요.

김: 그러면 대구일간지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었던 일간지 신문은 어떤 신문인가요?

양: 제가 보기에는 때마다 틀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통폐합하면서 『매일신문』, 『영남일보』를 없애버리고 『매일신문』이 남았잖아요.²⁸⁾ 그래서 매일신문이 제일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일신문』이 『영남일보』, 『대구일보』인데 어떨 때는 『영남일보』가 좋았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고, 중앙일간지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가장 권위가 있었으니까...

양: 지방지이니까 그것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김: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진 활동들이 대구의 어떤 일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될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현국 선생이 그렇게 상당한 위치에 있어도 그 분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도 있고 하나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문사 사진부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매스컴에서 권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채록 불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 대구사우회 회원이었던 서성해²⁹⁾ 씨가 1957년에 대구 최초의 컬러 현상소였던 동아현상소를 운영하셨는데요. 이 동아현상소의 경영 상태는 혹시 어떠했나요?

양: 그분이 애주가입니다. 그래서 한 잔 하면 최고 한 며칠씩 가게를 비웁니다. 저와 이웃에 있어서 가면 없고, 가면 없고. 그런데 그 아들이 나하고 동갑인데 그 사람도 컬러 현상소 기사였어요. 대물림 되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이분 알기를 공군 문관으로 알았는데 어떤 분은 미8군의 문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좌우간 군에서 군의 문관으로서 컬러를 배우고, 그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하고, 처음에는 [군]부대에 들고 들어가서 한 모양입니다.

장: 그때 내가 그 외의 이야기는 강영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서성해 씨가 독일 가서 컬러를 배워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강 박사가 그분한테 컬러 사진을 꼭 맡겨요. 내일 급한데 가보면 안 돼 있는 거야, 왜냐면 술을 또 좋아해요. 그리고 또 컬러는 약품도 잘못 처리하면 버리잖아요. 제때 해 놓는 것이 별로 없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인가 하면 컬러도 비싸고, 사업도 잘 안 되니까 그랬는데 미군부대에서 배운 것하고 독일에서 했다고 하는 것하고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둘 다 다 맞을 수도 있는데 강영호 교수님이 거기에 단골로 컬러를 맡겼어요. 그다음에 또 공보원장하시던 이홍식 씨도 초기에는 사진을 했거든요. 그분은 미공보원 부원장까지 하시니까 자기 작업의 모든 것은 칠곡에 있는 그때 컬러 현상소에 가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가 [주한] 미8군에 컬러 현상소 하는 그 친구를 알아서 거기를 방문했어요. 미국 부대에서 컬러 사진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맨날 하다 보면 작업할 것이 없으니까 반 쉬는 거예요. (중략) 그 당시에는 컬러가 굉장히 비쌌어요.

김: 그러면 1960년에 김원영 선생과 이홍식 선생의 컬러사진 개인전이 개최가 되는데,³⁰⁾ 이런 컬러현상소의 어떤 [활성화와 연관된 것인지?]

양: 서성해 씨가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 아닌 것으로요?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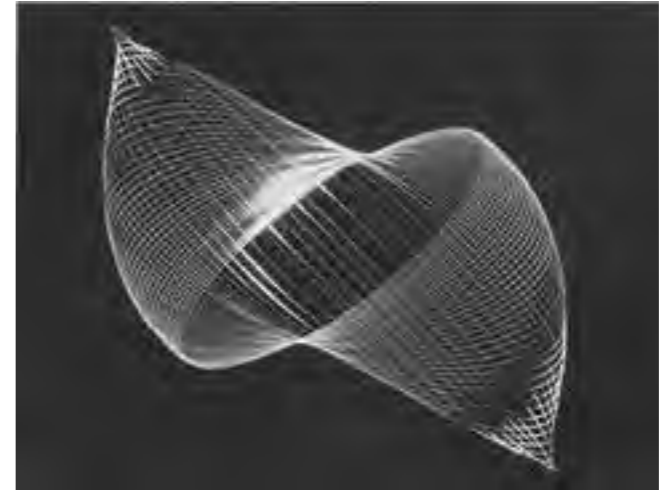
양: 서울에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김: [인화를] 서울에서요?

양: 김원영 씨하고 이홍식 씨, 두 선생님은 서울에서 했는데 또 [장진필] 선생님 말대로 칠곡 미군부대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좌우간 서성해 씨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집자에 의해서 질문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삭제)

(10분 휴식 후 녹화 재개)

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선생님의 <펜듈럼(pendulum)>이 1960년에 제작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미니 카페에 의한 실험>은 1961년 작품입니다. 망원렌즈와 초광각렌즈



김재수, <펜듈럼(pendulum)>, 1960.

를 사용하신 작품인데요. 빛의 형상을 탐구한 독일의 '뉴 비전(New vision)' 영향의 작품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사진계의 평가는 혹시 어떠했는지요? 물론 구왕삼 선생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전시 중에 김재수 작 펜듈럼은 사진의 특수기술이지, 아무런 표현과 내용이 없는 물리적 현상에 의해 생긴 원형과 타원형의 궤적사진으로 소위 기술사진에다 등장시킨 것은 한국만이 볼 수 있는 년센스이다.”³¹⁾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혹평을 가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대구사진계의 또 다른 평가가 있으셨나요?

양: 저는 어떤 것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긍정적으로 본 것은 있어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한 이야기는 구왕삼 선생님 말고는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김: 그러면 새로운 시도였다, 이런 말은 또 있었군요?

양: 예.

김: (장진필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장: 그런데 사진의 기본적인 토대가 단단하지 않은 거기에서 조금 잘 한다고 해봐야 될 더 잘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쪽에 작품이 좋으니, 나쁘니 하고 헐뜯는 것은 비평가로서도 그렇고 그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내 생각은 이런 식인데,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그냥 갖다가 “저게 사진이냐?”라고 해 버리니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의 어떤 아집이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를 풀려고, 위로하려고 하는 경우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재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지도는 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남은 죽으나

29) 서성해(徐聖海), 영관장교 출신으로 컬러사진의 현상과 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1957년 대구 최초의 컬러현상소인 동아현상소를 개점하여 운영하면서, 대구사우회, 한국정작사진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64년 《제3회 신인예술상》 준특선,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으로 입상했다.

30) 김원영은 1962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김원영 컬러사진전》을 개최했고, 이홍식은 한해 앞선 1961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공보관에서 컬러사진 개인전 《예술과 미국인》을 열었다.

31) 김재수의 <펜듈럼>은 1960년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에 출품한 작품이다. 구왕삼은 1960년 대구사진계를 결산하면서 “김재수 작 <펜듈럼>은 사진의 특수기술이지, 아무런 표현과 내용이 없는 물리적 현상에 의해 생긴 원형과 타원형의 궤적사진으로 소위 기술사진에다 등장시킨 것은 한국만이 볼 수 있는 년센스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왕삼, 『진통에서 새 발전으로 - 활기 띤 해외진출의 해, 『매일신문』, 1960년 12월 19일, 대구사진문화연구소, 『대구사진사 IV 인물자료집』(도서출판가람, 2009), 131.

사나 뛰고 있는데 “그까짓 것 그것 뛰고 숨 차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생태하고, 내 생태하고 구별을 해 줘야 되는데 내 기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 못하는 제자도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강하게 자꾸 뺏어나고, 신문에 자꾸 나고, “누가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이목이 커지니까 아마 그것을 또 신문에서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내가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 작업을 하면서 볼 적에는 ‘이야, 참, 이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 당시는 배우는 입장이고 또 사진만 열심히 찍었지, 사진의 이론에 대해서는 또 사진의 어떤 이즘(-ism)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그만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했어요. 하지만 [혹평은] 너무하다. 예를 들어서 최고 사진과 대학을 나오고 양대 그룹이 서로 다투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꾸 상대방을 헐뜯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결국은 조금 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김: 김재수 선생님의 《펜돌럼》 사진이 빛의 원형, 반복된 형상을 만드는 추상적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형적인 사진 경향이나 리얼리즘 사진 경향으로 양분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다른 시도로 [보지 않았을까] 대구사진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나,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여쭙본 것입니다.

양: 그것이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안 본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에 한번 봤지 실제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다들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단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기에 배어 있는 그런 분들 쪽에서는 “그것은 사진도 아니다.”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사진 아니면 그것은 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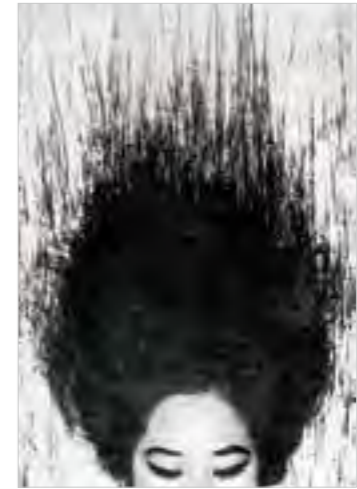
김: 네. 김재수 선생님도 리얼리즘적인 사진을 많이 하셨거든요.

양: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사람 몇 몇 빼놓고는 양수겸장(兩手兼將)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사진 찍을 것이 폭이 넓고, 다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 박달근 선생님도 역시 파격적인 스크래치 작업³²⁾을 하셨는데, 이 작업의 어떤 계기나 대구사진계에서 평가라든지,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양: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진을 봤고, ‘사진이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모두 생각했겠지요.

장: 그때 김재수 선생님은 현상소를 했거든요.³³⁾ 사우회 관계로 해서 저는 학교 오고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면서도 들르고, 작업할 것 있으면 가서 부탁해서 들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편집자의 판단으로 삭제) 그분은 어쨌든 자기 외골[수]로 뭐를 나가고 하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왜 못 되느냐? 자기는 일단 하나의 사진 서클에 관여를 했지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박달근, 〈격정〉, 1960.
박달근의 『사진교실』(송원문화사, 1967)에서 발췌.

그래도 “이렇게 또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고, 박달근 선생님은 또 따지면 사진의 이단[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분은 나쁘게 말하면 외골수예요. 그다음에 뭐가 하나 옳다고 하면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고, 박달근 선생님은 지부장하고 그 후임이 저거든요. 해서 내가 잘 알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집에는 후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사모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매끄럽지 못 했어요.

김: 박달근 선생님은 자녀분 있으세요.

장: 이렇게 해 놓으니 사진을 한다고 하고, 비트는 이런 기분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나니까 사진관계 자료를 다 막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와이프도 사실 누구보다 중요하면 다스러져 좀 이렇게 [보관]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니깐 거기 견딜 사람이 몇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워하는 그것이 있어요. 작품에 우리가 조금 뭐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도 완전히 사진이라고 하면 완전히 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사후에 있어서 누드사진을 또 많이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의 경우에는 누드사진이라고 하면 꼭 바람난 남자들 취급이 되어 놓으니까 특히 또 더 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요. 또 대성학교에 그 사진반이 있었고, 박달근 선생님이 있었던 대륜학교에 사진반이 있었고, 대구에는 두 고등학교가 사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한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대성학교에 있었고...

양: 사대부고 있었습니까. 저 사진반 출신인데?

장: 아니야, 그때는 없었는데?

양: 정태영³⁴⁾ 선생님이 계셨을 때.

34) 정태영(鄭台泳, 1930-1989). 서울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63년 《제1회 한국국제사진 살롱》, 1964년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과 입선을 수상했다. 이듬해 1965년 예총경북지부 산하 경북사진협회 총무를 역임했고, 1968년에는 《경북문화상》을 수상했다. 1970년 경북사진단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양분된 경북지역의 사진협회의 통합에 일조했다. 대구예술30년사 편찬위원회, 『대구예술30년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직할시지회, 1993), 918.

32) 박달근은 자신이 집필한 사진 교재인 『사진교실』에 게재된 〈격정〉(1960)과 같이 여성 초상 사진 필름에 스크래치를 내어 조형성을 강조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33) 김재수는 흑백사진 현상소 영인당을 40여 년 운영했다.



박달근, 『사진교실』, 송원문화사, 1967.

장: 누가?
양: 정태영!
장: 아, 정태영 선생님은 그 뒤잖아요.
양: 그건 모르겠지만...
장: 우리가 '60년대...
양: '60년대에 제가 다녔습니다.
장: 정태영 선생님은 거기에 계속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양: 아니에요. 저 졸업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장: 그래요?
양: 예.
장: 그런데 그 전부터 그 당시에는 사진반이 둘이나 있어서...
양: 경북고등학교도 사진반이 있었고요. 거기는 최박지³⁵⁾가 있었습니다.
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몰라도 '50년대에서는...
양: '50년대는 모르겠습니다. '60년대에는 각 학교마다 사진반이 있었습니다.
장: 그런데...
김: 사진반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암실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양: 암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장: 그래서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어쨌든 대륜학교에 사진반이 있었고, 계성학교에 사진반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사진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각 학교에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 1967년에 박달근 선생님이 『사진교실』³⁶⁾이라는 교재를 {양: 교재를 만들었지요.} 네. 출

35) 최박지(崔博之)는 《제2-4회 한국정착사진가협회 회원전》 팸플릿을 통해 한국정착사진가협회 경북지부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36) 박달근의 『사진교실』(송원문화사, 1967)은 저자가 대륜고등학교 화학교사로 재직 중에 특별활동으로 맡은 사진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출간한 사진 교재이다. '사진의 발명', '카메라의 종류', '빛과 렌즈', '필름의 성질과 알맞은 노출' 등 12개의 챕터로 구성된 사진기술 위주의 실용서로 8판까지 간행했다.



강영호, 〈나〉 시리즈, 1985.

간을 하시는데, 이것이 '68년에는 재판이 되거든요.
양: 예, 그럴 것입니다.
김: 이 사진 지침서가 사실 사진교육기관 혹은 사진서클이나 이런 데에 일종의 교재로 사용된 책임가요?
양: 저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그 책을 통해서도 하고 했습니다.
김: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이 참고를 하셨고.
양: 예.
장: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양: 맞습니다.
장: 그러니까 교재이고, 교양이고 간에 사진하는 사람은 꼭 이것을 사 보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모르는 것은 또 자기 지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주 유용하게 [봤습니다].
김: 활발히 활용이 된 교재군요.
장: 그것이 교양 교재로, 그래도 히트 쳤어요.
김: 강영호 선생의 어떤 파격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후지 제록스 복사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신체를 복사한 사진, 이 〈나〉 시리즈에 대한 대구 사진인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 저는 강 박사님한테 직접 저희 모임에서 모셔서 설명 들었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지만.
김: 그 시리즈에 대해서요?
양: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좀 파격적인 어떤 시도로?
양: 예.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우리는 사실 제록스라는 자체를 못 만져봤잖아요.

김: 그런데 처음 생겨서 들어왔을 당시이니까.

양: 그런데 이분은 경북대학에 계시니까 경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물리학 교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옷 벗고 해서.

김: 그 사진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나요?

양: 예.

김: 액자인 상태로, 아니면 그냥 낱장인 상태로?

양: 거의 8x10, 11x14 정도 되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예.

장: 강영호 교수?

김: 강영호 선생님의 <나>시리즈요.

양: [장진필] 선생님 잘 아실 것입니다.

장: 강영호 교수님은 광화회 고문으로 있잖아요. 그분은 원자력 공학박사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자주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때 하여튼 그분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의 정점식³⁷⁾ 교수님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군공보원에 이홍식 원장하고 그다음에 강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아주 사진 예술, 미술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또 계대[계명대]에 정점식 교수는 추상 계통이거든요. “사진을 가지고도 추상 형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중 노광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탈색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실험적인 것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 데 안 있었겠느냐. “새로운 사진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점식 교수님도 새로운 미술이라고 해서 추상 미술을 하면서 《국전》에서 배타를 당했어요.

김: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요?

장: 추상을 너무 체계적으로 안 해 놓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이 한국의 위상은 상당히 있는데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너희들은 《국전》에 작품을 내지 마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까지도 되었어요. 좀 안 된 이야기로는 나중에 이분을 《국전》에서 배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초대작가로 영입을 하자, 그래서 영입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작품을 《국전》에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화도 있고, 그래서 강 교수는 어떻게든 대학교수로서 실험을 많이 하니까 우리한테도 새로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그런데 이야기는 듣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요. 그 당시에 암실 작업한 사람이 흔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작품을 서울 널 적에만 해도 1미터짜리 인화를 할 사람이 대구에 내가 볼 적에는 몇 사람 없다고 봐요. 그 당시에 신현국 선생님이 했고 그다음에 김재수 씨는 그때는 좁아서 못했고요. 그래서 내 작품을 서울 내고, 어디 내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암실에서 베니다(ベニダ)³⁸⁾ 가지고 바트(バット)³⁹⁾하고, 비닐로 덮어씌워서, 이래서 그때 작업을 했어요. 해

놓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인화지가 신통치 않아서 그 당시에는 아플로라고 해서 비엔나하고, 국산인데 갔더니 약품도 좋지를 않았어요. 이러니 NG가 많이 났거든요. 이래서 미국에 인화지를 부탁해서 오니까 우체국에서 “이것 뭔지 모르니까 뜯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미국에 인화지를, 광나는 거 있잖아요. RC⁴⁰⁾인가요?

양: 예.

장: 이것을 내가 사놓고 한참 썼어요.

김: 1980년대 이전에는 사진 관련 정보들 혹은 세계 사진의 동향, 이런 정보들을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입수하게 되나요?

양: 대구에 상명서림이나 집현전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는데, 둘 다 외국서적 전문점인데 있는 거라고는 일본 책밖에 없어요. {김: 일본 서적 만요?} 예. 거기에서 일본 잡지하고, 잡지를 보다 보면 한 번씩 괜찮은 사진집이 보이면 그것도 주문하면 한 달 뒤에 옵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에 카보나이트(carbonite) 불을 켜놓고 미국 서적, 잡지를 쪽 깔아놓고 파는 데가 있거든요. 길가에 보면, 거기에서 골라봅니다. 사진잡지가 보이면 그것 아주 헐값에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잡지 말고도 괜찮은 것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정보도 얻고 그렇게 했지, 따로 책 같은 것은... 그렇게 정보를 많이 얻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교사였기 때문에 어머니님 덕에 많은 번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그랬습니다.

장: 내 경우는 '6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진전에 작품을 내면 떨어져도 작품집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참조를 했어요. 《홍콩살롱전》 1회 때 내가 작품을, 그때가 '70년대인가 났더니 그 작품집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계 사진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구나.’하는 식으로... {김: 참조하시고.} 그런데 참조만 했지,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도하더라도 “이런, 이런 스타일이 있다. 그런데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나도 힘이 난다.”

김: 해외 공모전에 대한 정보, 데드라인이 언제이고, 어떤 규격으로 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정보를] 얻으셨나요?

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김일창 교수가 '60년대부터 그 자료를, '60년도 중반부터이지요.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는 계속 그것을 보냈어요. 보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은 못 보내니까 쿠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은행에 가서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 번호도 내가 그 당시에 몇 번 얻는 것도 힘들었어요. 장소만 알았으면 나도 보낼 때는 좀 보내겠는데... 그런데 결국은 한국의 겨울사진 또 시장 사진, 이런 것 아니고는 풍경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구태여 내가 이렇게 해

37) 정점식(鄭點植, 1917-2009). 1917년 경상북도 성주 출생으로 1938년부터 1947년까지 교토시립 회화전문학교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만주 하얼빈을 거쳐 1950년대 초부터 대구에 정착하여 계성중고등학교 교사,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했다. 1953년에 대구 미공보원에서 《제1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38) 합판을 뜻하는 베니어(veneer)의 일본식 발음이다.

39) 필름 인화를 위해 인화지를 담그는 용기를 뜻하는 바트(vat)의 일본식 발음이다.

40) RC는 수지코팅지(resin-coated paper)를 말한다. 수지코팅지는 종이 위에 감광유제를 칠한 섬유지(fiber-based paper)와 달리 종이의 양면에 식물성 수지나 폴리에틸렌 수지로 코팅하고 그 위에 감광유제를 입힌 인화지이다.

가면서 계속 보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몇 년 하다가 계속 작품집하고 오니까 내가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그것을 가지고 인화 방법, 촬영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살롱적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김: 1973년에 강상규 선생님께서 『한국사진사』⁴¹⁾를 출간하시는데요. 대구사진계의 전반적인 추동의 결과물인지 혹은 강상규, 구왕삼 특정 개인의 어떤 열정의 산물인지, 『한국사진사』 책에 대한 대구사진계의 평은 어떠했나요? [양성철] 선생님 말씀해 주시지요.

양: 저는 평가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시다. 조금 미온적이었고 또 역사를 어떤 사관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 주변분들 위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제가 선배한테 “더 이상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시다.

김: [장진필] 선생님.

장: 그런데 강상규는 내가 친구이니까 당신이 대구의사회 사무국장 할 때예요. 여기에서 결국은 시달리면서 살겠느냐, 내가 그때 대학원 졸업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해줄 테니까 대학원에 시험을 쳐라.” 이렇게 해서 가니까 미술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느냐, 그래서 내가 교수들하고 이만한 위치에 있는 작가를 키우려고 하면 전공을 하고도 몇 십 년 걸리는데, 영어시험하고 실기 몇 개 가지고 떨어뜨린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를 입학하고 나서 추후 시험을 치도록 해라.” 그래서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니 그다음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떻게 한국사진사 논문을 써라. 왜? 아직 한국사진사는 최인진 선생님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거기 가서 의논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대학원 논문은 쓰는 것은 처음이니까 당신이 해라.” 이래서 했는데 주로 가서 의논한 사람이 임응식 선생님하고 이명동 씨하고 이렇게 몇 사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⁴²⁾이 나오고 나서 아마 원로들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가 빠졌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달성되는 논문은 드물다. 그러니까 그 후에 지적되는 것은 그 다음 사람이 논문 쓸 적에 그것을 메우면 된다.” 그런데 강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 한국사진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가지고 한국사진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일창 교수도 고등학교 때 사진 작가로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강상규도 졸업할 때 되었고, 당신도 대학원 시험을 하라고 하니가 자기가 아예, 시험을 쳤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나하고 이야기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일단 강 교수가 졸업할 때가 되었으니까 당신도 하자, 그래서 시험을 합격했잖아요. 그것도 운이 좋아서 졸업하면서 동시에 김태한 교수가 당겨서 부산으로 왔거든요. 만일에 반 학기라도 늦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논문을 쓰는 것을, 그분은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머리도 좋고 하니가,

41) 강상규, 『한국사진사』(형설출판사, 1976).

42) 강상규, 『한국사진의 발전에 대한 사적 고찰』(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76).

“강상규가 한국사진사를 썼으니 당신은 대구사진사를 써라.” 이래서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사진사를 쓰기는 낫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해서 결국은 부산을 가게 되었다...

김: 장진필 선생님의 석사논문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으로 1973년 발표를 하시는데, 「사진예술과 회화와의 연관에서 본 사적 고찰」⁴³⁾입니다. 당시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였던 강영호 선생님께서 지도교수로 있으셨는데, 어떻게 강영호 선생님이 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논문을 지도할 수 있었는지요?

장: 그런데 대학원 논문은 대필해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는 논문을 써야 되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그 방식을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만 강 교수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옳고 그른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상태를 잘 모르고 또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도 회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진하고 미술하고의 복합적인 형태로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참 운이 좋은 것이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사진 논문으로서는 1호예요.

김: 당시는 지도교수님이 정점식 교수님이셨는데?

장: 지도교수라고 해도 논문지도는 강영호 교수님이 하셨고.

김: 개인적으로 가서 뵙고 의논을 드리신 건가요?

장: 그렇지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서클의 고문이니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주 가서 할 수는 없고. 내가 스스로 전부 수집해서... 왜냐하면 내가 반 이상은 그림이니까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믹스를 했고 또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바우하우스(Bauhaus)⁴⁴⁾ 문제라든지 보면 또 만 레이(Man Ray, 1890-1976)⁴⁵⁾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진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의 어떤, 잘 쓰는 것은 둘째 치고 ‘어떻든 시도해 보자.’ 거기 논문지도 할 사람도 없고, 요식만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술 교육인데도 내가 처음으로 가서 사진 교육이 거기에 적용되도록 발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거기에서 사진 논문을 쓰도록 그 다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덕본 사람들이 많아요. 졸업하자마자 교수로 간 사람도 상당히 있고.

김: 네. 1978년에는 계명문화실업전문대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셨고, '83년에는 사진과가 창설이 됩니다. 그 창설의 진행과정 그리고 언제 4년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요.

장: 경북, 대구에서는 사진학 교수로서는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응미과[응용미술과] 학과장으로 갔어요. 가서 사진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운이 좋아서 나를 학생부장을 시키더라고요. 학생부장은 학장회의 때 부장까지 다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명대학에서는 미술이 우리 한국에서는 안 빠질 정도의

43) 장진필, 「사진예술과 회화의 연관에서 본 사적 고찰」(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73).

44) 바우하우스.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예술교육기관이자, 건축을 주축으로 삼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역사적, 문화적 현상을 지칭한다.

45) 미국 출신의 초현실주의자로 1921년에 파리로 이주해 파리의 다다(Dada) 그룹과 초현실주의 예술가 그룹에서 활동했다. 다양한 매체적 실험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포토그램, 솔라리제이션(Solarization) 등 광학적 실험을 통해 일찍이 사진 미학을 확장시켰다. 포토그램을 활용한 기법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레이오그램(Rayogram)이라 칭했다.

위상이 굉장히 췌어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에서도 미술 스케치과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케치과를 해서, 지금 계명문화대학은 디자인 계통하고, 이 계통이 상당히 췌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스케치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니까 이때 “그러면 사진과를 만듭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정점식 교수님이 그때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서 사진과를 인가 받았어요.

양: 이것이 잘못된 것이 계명문화대학이 4년제로 바뀐 일이 없습니다. 계명문화대학은 2년제로 끝났고, 계명대학교에 사진디자인과가 별도로 생긴 거예요. 계명대학교 미대에 사진디자인과가 별도로 생기고... [사진학과와] 관련 없는 거예요.

장: 그런데 전문학교가 전문대학 한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문대학교, 산업대학 뭐라고 하고 자꾸 이름이 바뀌어져요. 결국은 계명문화대학 사진현상과로 또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오다가 2000년 중기까지 와서 그다음에 학부에 사진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집중하고, 이쪽에는 또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탈락이 되고, 그래서 자꾸 바뀌게 되었어요.⁴⁶⁾

김: 1980년에는 대일실업전문대, 1983년에는 경북실업전문대학, 2012년에는 대구미래대학교 그리고 2018년에는 폐교가 되는데⁴⁷⁾ '80년에 대일실업전문대에 사진과가 창설이 됩니다. 입학경쟁률이나 교과과정 그리고.

양: 처음에는 경쟁률이 괜찮았어요. 교과과정은 여기나, 거기나 2년제 대학은 비슷비슷합니다.

김: 교과과정은 어떤가요?

양: 배울 것 없어요. 거의 사진 기초 실기, 암실 실기, 광고사진, 테크닉 위주의 수업을 주로 했고요.

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은 어느 방면으로 주로 되었나요?

양: 취업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되는데, 학생이 취업을 못할 정도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에 웨딩포토가 왕성할 때는 좀 되었고, 그 뒤부터는 서서히 하다가 대구에 사진과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가 지금은 폐과가 되고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장: 그때 제가 할 적에는 어쨌든 전문대학이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작가로서 나가기는 어렵니까, 직업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광고사진, 인상사진, 웨딩사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김: 인상사진이라 함은 초상사진관 말씀이시지요?

장: 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초상사진을 배워서 사진관 낸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가지면 안 좋겠다 해서 사진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또 뭔가 하면 웨딩사진이 그때 붐이 났어요. 지금도 50대 전후 되는 웨딩사진에서는 상당한 재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 오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켜서 또 다른 데 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준비해 주고.

김: 양성철 선생님께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신일전문대학⁴⁸⁾에서 사진과 전임교수로 부임하시게 되고요. 현재는 폐과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 맞아요.} 당시 사진과 창설시기 그리고 폐과 시기 그리고 폐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 1989년에 그 과가 생겼어요.

김: '89년이요?

양: 신일전문대학에 생기고 '90년에 부임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대학 긴축 통폐합하면서 사진과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었어요. 디자인과가 많이 폐과되고 나서 우리가 폐과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김: 이미 대구에 여러 대학에서 사진과가 창설되었던 시점이었잖아요. 당시 신일전문대 사진과의 학생 정원이나 커리큘럼은 어땠나요?

양: 많을 때에는 주간 80명, 야간 40명, 산업체 40명인데 다 못 채우고 한 110명~120명까지 채웠어요.

김: 총 120명 정도이면 꽤 많은데요.

양: 예, 많았어요.

김: 그러면 굉장히 사진과가 인기가 많은 과였다는 거죠?

양: 그때만 그랬어요.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김: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양: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야간부 폐과, 산업체 모집수도 거의 본과생 80명만 데리고 있다가 또 디자인과하고 통폐합하는 바람에 또 줄고, 또 줄고 한 것 같습니다.

김: 그러면 2000년이 넘어가면 서서히 사진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당시 대구에 어떤 상업사진 시장과 영향관계에 있는 건가요?

양: 상업사진에 관계없이 인력자원이 줄어서 그래요. 고교 졸업생은 없는데 전문대 학과는 많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운영경비 제일 많이 드는 과부터 폐과시키겠지요.

김: 그러면 사진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당시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양: 반성할 이야기인데, 그렇게 취업이 잘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왔어요. 사진이라고 하는 매력 때문에 오고 또 그 뒤에는 4년제 대학이 생기니까 편입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2년 마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기회가 오니까 또 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되었지요.

김: 1992년에는 돈보스코예술학교, 1997년에 대구예술대학교로 승격·개편이 되는 학교인데요.⁴⁹⁾ 여기에도 사진과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에 굉장히 번성했다고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 학교에도 사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 과잉 팽창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48) 신일전문대학은 1973년 제남간호전문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74년에 개교했다. 이후 1981년 신일실업전문대학, 1990년 신일전문대학, 1997년 대구산업전문대학, 1998년 대구산업정보대학 등 여러 차례 교명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2012년을 기준으로 수성대학교로 개칭되었다.

49) 돈보스코예술학교는 1992년 1월 학교법인 유신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2월에 개교했다. 설립 당시 사진학과를 포함한 5개학과로 출발했고, 1997년 대구예술대학교로 개칭되었다.

46) 계명실업전문대학은 1962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계명기독대학병설여자초급대학이 모체이며, 1964년 학교법인으로 계명기독대학병설초급대학으로 변경인가 된 후 1979년에 개편되며 바뀐 명칭이다. 사진과는 1982년에 설치인가를 받았다. 2013년 3월 계명문화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사진과는 사진영상과, 사진영상미디어과 등 여러 번의 명칭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는 뷰티코디네이션 학부로 통합되었다.

47) 대일실업전문대학은 1980년 12월 학교법인 대일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에 개교했다. 설립 당시 사진과를 포함한 6개학과로 출발했고, 1983년 9월 경북실업전문대학, 1998년 대구미래대학, 2012년 대구미래대학교로 여러 차례 교명이 변경된 후 2018년 경영난으로 인해 자진 폐교했다.

양: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서 더 많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대일실업전문대학의 교주는 차준부 씨이고요. 차준부 씨 동생이 차용부⁵⁰⁾ 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학교이니까 사진과를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 유학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일전문대학에 사진과가 생겼는데 그것도 초대 학과장님이 차용부 교수입니다.

김: 신일?

양: 내가 부임했을 때 내 선임자가 차용부 교수였어요. 그리고 돈보스코예술학교 사진영상과, 그것도 또 교주가 경북실업전문대학을 팔아버리고 다시 좀 쉬다가 돈보스코예술학교를 설립하면서 또 사진과를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차준부 씨 동생 차용부 씨니까 또 [사진]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몰라도 이 3개 대학은 차용부 교수님의 공훈입니다.

장: 그때 조금 우스운 이야기로는 대일전문대학이 처음에 생겼을 적에는 유신학원 안에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양: 예, 그렇습니다.

장: 그런데 복도 끄트머리에다가 암실을 조그맣게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진 희망하는 학생은 많고, 사진과라고 하니까 서울이고, 어디이고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보니 입학 해놓고 수업을 듣고 보니 이것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이래서 한 학기 지나면 전부 돌아가는 식으로 그랬었지요. 그때 고초를 좀 당했을 거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원에서 사진과를 만들어놓으니 학원식으로 운영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자기 형님이 거기 대표이니까 차용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식구들 데리고 LA(Los Angeles)에 갔잖아요. {양: 네.} LA에 가서 사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 관계로 볼 적에는 황 누구입니까? LA에....

양: 지금 서울에....

김: 황규태⁵¹⁾ 선생님.

양: 황규태 선생님. 네 거기서 취업했어요.

장: 그분 밑에서 암실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하여튼 하고자 하는 어떤 집념은 굉장히 강해요. 유신학원의 전체 컨트를 하는 총무 역할 맡았기 때문에 대인관계하고 이것은 또 아주 열심히 했고, 거기도 또 우리 광화회에 {양: 광화회 회원이시지요.} 회원을 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 정도로 재치가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자기 재주이니까, 원 교주가 자꾸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바뀌어 지니까 밑에는 자연적으로 따라가서 움직이면서 지금은 교수들이 더 맥을 못 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까지 조사 다 당한다고 하고.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공부하나 싶기도 하고....

김: 예.

장: (웃음) 그래, 하여튼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니까....

김: 대구에서 사진 공모전이나 단체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열리는 횟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 권위와 위세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이고 또 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양: 그것을 본다면 2000년대 와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그 사이에 아마추어들도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공모전이 많이 식상해졌잖아요. 타락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진학과도 폐과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교강사들이 실업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강의를 하면서 언제인가는 대학에 전임이라도 가보자.'하고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합적으로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도 그 사이에 일어나니까 결국은 누가 어떻게 했든, 기업들이 하면 할까 몰라도 개인전으로서 하기에는 대구는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서울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 2006년에는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창설되는데요. 그 창설배경 그리고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요?

양: 그것을 제가 카피하라고 아까 드렸지요.⁵²⁾

김: 예.

양: 그것이 1996년 당시 대구에 사진작가는 너무너무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학생도 많고, 교수도 많고 하는데, 대구는 서울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스스로 국제화 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서울에 작고하신 여러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해라, 밀어줄게. 밀어줄게." 하는데 격려는 많이 받았는데 사실 도움도 하나 없고. 저희들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소문을 듣고 강상규 교수님이 "너희 [준비] 한다면서? 같이 하자. 나 도울게." 해서, 다시 또 헤쳐모여서 강상규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것이 1999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기획서를 던져놓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이미지 아시아⁵³⁾라고 하는 미국PSA⁵⁴⁾ 대구 회원들이 그것을 대구엑스포에서 했는데.... {김: PSI요?} PSI인가, 미국 사진가 그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서 대구엑스포에 과장님이 "내가 그거 봤다, 낸다는 기획서를 받아와라, 그걸로 하자."

김: 대구엑스포의 공무원이셨던?

양: 예, 엑스포에서. 그래서 그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하면서 엑스포 큰 공간에다가 한쪽은 기자재전, 한쪽은 작품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 "이건 가능성 있다."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작업해서 2006년에 《제1회 대구사진비엔날레》⁵⁵⁾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받아간 인연 때문에 제가 2016년까지 관리를 했어요.

김: 선생님께서 예술 감독으로 또 [겸임하시고]

양: 아니, 운영위원장까지 했고.

김: 운영위원장까지.

52) 구술자가 Image Expo 추진위원회 '2001 Image Expo 계획안' 과 대구사진문화연구소가 1999년 작성한 '2001년 8월 문화, 산업, 관광을 위한 대구사진페스티벌 계획안'을 인터뷰 전에 연구자에게 전달했다.

53) 200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한 《대구이미징아시아(Imaging Asia in Daegu 2005)》를 말한다. 대한프로사진가협회, 미국프로사진가협회 등 국내외 사진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제1차 구술인터뷰 각주 97번 참조.

54) '이미징 아시아'에 참여한 미국의 사진단체는 미국프로사진가협회(Professional Photographer of America, PPA)이다. 구술자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55) 2006년 《대구사진비엔날레》는 2005년에 개최된 《대구이미징아시아(Imaging Asia in Daegu 2005)》를 모태로 한 국내 최초의 사진 비엔날레로, 대구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대구광역시와 주최, EXCO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대한프로사진가협회, 한국사진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 등이 후원하여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EXCO,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대구사진비엔날레》는 조직위원장에게 주명덕, 수석큐레이터에 박주석을 선임하여, 주제전 《다큐멘터리 사진 속의 아시아》와 특별전 《사진속의 미술, 미술속의 사진》을 비롯해 《대구사진비엔날레기자재전》, 2006대구사진비엔날레 국제심포지움 및 초청강연회, 멀티미디어 영상 쇼, 《사진으로 본 대구 50년》, 《젊은 사진가》전 등으로 구성해 열었다. 10개국 1,100여 점 출품했으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6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2023년 《제9회 대구사진비엔날레》는 박상우 예술총감독과 미셀 프리즈(Michel Frizot)를 큐레이터로 선임해 '사진의 영원한 힘'을 주제로 9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양: 예술감독하려고 욕심내다가...

김: 예술감독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양: 아니, 한번 되었다가 내가 양보했어요. 그때 뭔가 하면 예술감독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둘 다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채록 불가) 가서 같이 하겠다 하니까 호선해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이쪽저쪽이 발 각 뒤집어져서 (웃음) 끝나버렸어요.⁵⁶⁾

장: 그때 비엔날레에 가니까 대구사진학과, 대구사진 모든 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것으로 되니까 '대구에서 사진으로 앞장세우자' 하는, 우리는 그런 밑그림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거든요. 처음에 하면서 강위원이 맡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볼 적에는 큰 실수를 했어요. 운영위원을 전부 대학원 또 사진전공, 초창기 초보자들, 내가 볼 적에도 거의가 모르겠고, {양: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는 완전히 거수기 역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양: 그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대구시 공무원이에요. 대구시 공무원이 좌지우지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진과 출신이에요. 강위원 교수도 거기에서는 맥을 못 찾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 친구가 원체 횡포를 부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뭐냐 하면 이 비엔날레가 없어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어왔는데, 비엔날레를 해서 대구사진계에 무엇인가 보탬을 되자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대구사진학과가 막 폐과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새로 다듬어서 하고 있는데.

김: 그래도 지역사회의 큰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 아직도 덜 차지요. 저희들이 꿈 꾀 것이 있는데, 그 꿈까지 와야 되는데 늘 보면 문턱에서 흐지부지하고 될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되고 그랬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도 젊은 친구들한테 무엇인가 좀 힘을 내라고 하는데, 개들도 크게 거기에 깊이 개입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장: 그런데 거기에 비엔날레는 세계화 하는데 대구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좀 해라." 뭐라고 하고, 자꾸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데 괜히 일하는 사람 민망할까 싶어서 그저 뒤에서만 자꾸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밀었고, 이제는 터가 좀 잡혔다고 봐요. 어느 나라의 비엔날레하고 비교하는 식은 조금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 활성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란서의 비엔날레는 뭐가 어쩐다더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의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좀 작아서 그렇지, 작는데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누가 잘 하고, 못하는 것은 계산하기 힘들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써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나는 필요해서 "뭐 해주세요."하

면 주제전 지난번에 하듯이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화랑 전시 관계는 매년 안 빠지고 참여를 하거든요. 내 나름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이것으로라도 내가 협조해야 되겠다, 내 주위에서도 자꾸 하도록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그마한 실수라도 다음에 개선해서 확보하면 그것이 한발 더 앞 디디는 거예요. 우리 양 교수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우리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해도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하는 것을 볼 적에 나는 또 이해를 하고, 어쨌든 그것이 삶으로써 그 사진의 길을 걸어오는 우리의 그것이 하나의 자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과 이름이 자꾸 달리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대로 이끌어 가면 돼요.

김: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양성철 선생님.

양: 대구사진에 대해서 아까 택시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구사진사,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봤을 때 없고 또 대구사진이 그 지역에서 발전하면서 교류했는데도 서울에서 하는 사진이 한국사진이 되어 버리고, 지방 사진은 거의 해외 사진 비슷하게 그렇게 치부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도 했는데, 마침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참, 고마워요.

김: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양: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잘 잡아서 균형 있게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장: 내 경우는 양 교수하고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굉장히 사진하기를 참 잘 했다고 자부를 느껴요. 요 근년에 와서 사진의 위상이, 내가 키가 좀 작지만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처음 대구시에서 아카이브를 대구의 원로들 스무 사람 하는 가운데 사진이 두 사람 들어갔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사진의 위상을 전부 높여주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내년이면 오픈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의 자료가 또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하고, 자료를 보관한 것이 참, 잘했다.' (중략) 한미사진미술관[현 뮤지엄한미]에는 특히 고마운 것이 전에 대구사진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 썼어요. 이번에도 대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까지 사진의 위상을 올려준 것, 건강하시고 또 좋은 자료를 많이 해서 한국에 영구히 빛날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해 주신 두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2차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고맙습니다.

56) 양성철은 2006년 제1회 대구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 위원, 2010년 집행위원, 2012년 사무국장, 2016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